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공 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단순한 지식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휴일과 방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장으로서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 사회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또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대화의 광장(1992)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주된 고민의 1위와 2위가 각각 성적과 진로 문제로 나타났듯이, 입시위주의 교육은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와 관련된 압력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질이나 취미를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며 또한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김준호, 1990; 김준호 외, 1993).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적이나 진학문제로 인한 자살이 전체 청소년 자살인구의 31%나 될 정도로 학업과 관

런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정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이중, 1992; 한준상, 1995). 교우관계 역시 경쟁적인 인간관계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황정규, 1990).

증가 추세에 있는 중도탈락¹⁾ 학생과 전체 학생의 10%를 차지하는, 학교가 어쩔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의 부적응 문제는 예방과 보호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예방활동이란 전통적으로 위험한 요인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즉,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감소하거나 제거,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비행, 학교중퇴,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요인,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 또래관계와 관련된 요인,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Dryfoos, 1990; 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학생 부적응 문제들에 공통되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동

1)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로 산출한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00년 기준 4%인 70,721명에서, 2001년 5%인 72,74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의 경우 입학생의 약 4%가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였고, 2001년의 경우 약 5%가 학업을 중단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각급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졸업률과 다음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비진학률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에까지 이르지 못한 비율을 계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또한 현재 학교에는 학교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있고 규모는 전체 학생의 거의 10%에 이른다(윤여각 외, 2002).

시에 노출될 경우에는 문제 유발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Dryfoos, 1990).

한편 보호활동은 자기 존중감이나 사회성, 대처능력 등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특성과 지지적인 가정환경, 지지적인 또래관계 등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을 활성화하는 일이다(Garmezy, 1985; Jessor, 1991; Rutter, 1987). 즉, 보호요인은 가정 및 학교환경 내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스트레스 등 각종 위험요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그리고 개인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자기성장을 지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 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방 및 보호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또한 학교제도에 있어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는 지식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부적응 학생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행동을 보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는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각종 학교 청소년 문제들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 효과적인 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를 탐색한다.

2)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 분석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 파악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내용, 문제행동의 경험, 행동의 유형, 행동 표출의 정도 분석 등 문제행동의 현황을 파악한다.

(2) 문제행동의 원인 탐색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예: 학습 측면/ 생활 측면)을 탐색한다.

(3) 학생의 고민이나 갈등 해결 양상 분석

- 문제행동별 학교 청소년들의 고민 및 갈등 해결양상을 학교급별, 성별로 분석한다.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지도 실태 분석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파악

- 교사 및 학부모의 문제행동 파악 정도, 문제행동 파악 방법, 문제행동 파악시의 애로사항 등을 알아본다.

(2)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실태

-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행동 지도 현황, 방법, 내용, 문제점 등 현장지도 실태를 파악한다.

4)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대책 탐색

- 예방·보호 및 사후지도의 차원에서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요인, 문제행동의 내용, 문제행동 지도 접근 및 방법과 단위학교 수준 및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역할을 탐색한다.

3. 연구방법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관련 통계자료 및 조사도구 검토·분석

2)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상담사례 분석

- 학교 청소년 문제의 실상을 분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상담사례 수집, 검토 및 분석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분석 및 예방·대책을 위한 조사실시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면담실시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학년(초등 5, 중2, 고2: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실업)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성(남, 여)을 고려해 표집한 2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의 관련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조사 실시

4) 전문가 의견수렴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지도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II.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2.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원인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지도
4. 연구추진 방향에의 시사점

공 백

II.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1) 학교 청소년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이란 개념은 adolescent와 youth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설명된다(Idem, 1991). adolescent의 개념은 발달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그 의미가 나온 것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고 육체적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생리학적 발달 국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반면 youth의 개념은 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youth의 개념과 관련하여 케니스톤(Keniston)은 후기 산업사회가 그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요구함으로써 youth라 불리는 새로운 인생주기가 창출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youth의 개념 속에는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참여 및 시민성 등을 강조하는 고유한 인생의 발달단계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김진화 외, 2002).

adolescent와 youth의 두 가지 개념이 어원이나 개념의 출발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개념은 모두 청소년기가 아동기의 미성숙 상태를 지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특징적인 한 시기(Sprinthall, & Collins, 1995; Steinberg, 1993)임을 나타내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즉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어린이의 특징과 성인의 특징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징을 모두 갖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청소년기는 엄격하게 시기를 정해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 범주는 <표Ⅱ-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표Ⅱ-1-1> 각 국 청소년의 연령 범주*

국가명	연령층(세)	국가명	연령층(세)
가봉	7-14	스페인	30세까지
그리스	14-30	시리아	15-24
네팔	40세까지	아르헨티나	40세까지
레소토	15-45	오스트리아	14/15-25/27
르완다	7-24	요르단	15-24
마다가스카르	15-30	이디오피아	14-30
미국	16-24	이란	15-30
방글라데시	15-30	이집트	18-35
벨기에	26세까지	인도	15-30
부르키아프소	7-25	자메이카	15-25
불가리아	14-35	잠비아	12-35
브라질	14-24/30	중국	7-30
브룬디	21세까지	콩고	6-35
산마리노	26세까지	핀란드	29세까지
스리랑카	15-29	한국	9-24
스위스	15-34	헝가리	15-35

* 김진화 외(2002).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p.13에서 인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은 9-24세에 해당되나 이는 <표Ⅱ-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도 청소년, 소년,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등 법에 따라 다르다.

<표 II-1-2>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의 청소년 명칭 및 연령 규정*

명칭	연령	관련 법률의 예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연 나이 적용)
	9-24세	청소년기본법 연령정의 없이 청소년 명칭 사용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 옥외 광고물 관리법
소년	20세 미만	소년법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연소자	18세 미만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연령을 정의한 법률 없음 · 사유 : 민법의 성년개념 반대 해석 연령 정의 없이 미성년자 명칭 사용 · 미성년자보호법 · 공중위생법 · 식품위생법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국민건강증진법
	18세 미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청소년, 미성년자, 18, 19세 미만자 혼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

* 출처 : 김진화 외(2002)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p.1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기는 엄격하게 시기를 정해 구분하기보다는 다소 개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 중 학교를 다니는 학생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발달적 특징과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법을 고려할 때, 학교 청소년을 규정

하는 연령의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에 제시된 연령의 범위(9-22세)보다는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발달심리학에서 보여주는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특징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학교 청소년이라 함은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2) 문제행동의 개념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소년기의 변화, 발달과업 및 이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 가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나 약물사용,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임영식, 1997). 더욱이 이러한 문제행동의 발생은 아동기를 포함한 발달 초기에 비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en, 1988).

청소년 비행 혹은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비행 혹은 문제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Ketterlinus & Lamb, 1994). 이는 문제행동의 범위와 규정이 시대 및 사회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데에서 비롯한다.

하영근과 최상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별로 나누어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가정생활에 관한 문제행동으로는 형제간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 도박, 가출, 부모에 대한 반항 등이, 학교생활 관련 문제행동으로는 무단결석, 조퇴,

불량서클 가입 등이, 그리고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행동은 자살 시도, 흥기소지, 본드 흡입, 패싸움 등이 포함된다(김진화 외, 2002). 또한 서울특별시 자녀안심 운동 서울협의회(2000)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을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유해업소 출입, 유해매체 노출과 이용, 가출, 폭력, 성 비행, 정신건강(우울증, 자살, 섭식장애), 등교거부, 학교 중퇴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진화 등(2002)은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일탈행동과 범죄, 가치기준에서 탈락한 이상행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가치와 윤리, 법·제도에 위배되는 범죄 및 일탈행위로 개인은 물론이고 타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와 악영향을 끼치는 반사회적 행동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사회적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성격,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진화 등(2002)은 다음의 <표Ⅱ-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을 심리적 문제, 가정 부적응 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청소년 폭력, 유해약물 오용·남용, 성 일탈, 유해미디어 이용, 유해시설 접촉, 청소년 범죄 등 아홉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II-1-3> 김진화 등(2002)의 청소년 문제행동 분류

문제행동 영역	문제행동의 유형
심리적 장애	불안, 우울, 섭식장애, 정신분열, 자살, 자기비하, 성격고민, 대인기피, 정신적 장애 등
가정 부적응	형제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가출, 결혼가정, 과잉보호, 지나친 무관심 등
학교 부적응	집중력 부족, 성적저하, 시험불안, 공부에 대한 무관심, 중퇴, 학교공포증, 등교거부, 학교거부, 중도 포기, 무단결석, 학교 회피 등
청소년 폭력	공격성, 구타, 집단따돌림, 금품 갈취, 협박, 집단 괴롭힘 등
유해약물 오용·남용	흡연이나 음주, 보드, 시너, 부탄가스, 대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흡입 등
성 일탈	왜곡된 성의식, 원조교재, 성 폭력, 음란물 탐닉 행위 등
유해미디어 이용	유해간행물(유해잡지, 유해만화, 유해일간지 등), 유해영상물(포르노비디오, 성인비디오, 불법CD, 성인영화 등), 유해인터넷(음란통신 및 채팅, 애니메이션 포르노사이트, 일반 포르노사이트, 자살사이트, 폭력사이트, 사행성조장사이트 등)
유해시설 접촉	오락성 업소(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방 등), 술집(스탠드바, 룸살롱, 단란주점, 생맥주집 등),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호텔 등), 매매춘 업소(사창가, 퇴폐이발소, 화상방 등)
청소년 범죄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폭력범(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 재산범(절도, 횡령, 배임, 장물, 사기 등), 교통사범 등

또한 이종원 등(2001)은 전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1-4> 이종원 등(2002)의 청소년 문제행동 분류

범주	유 형	항 목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귀걸이 착용, 머리염색,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디스코텍/나이트 클럽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폭력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권위 반항형 문제행동	부모님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결석, 무단외박, 가출, 컨닝, 가족 돈/카드 유용, 심한 말다툼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 비행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상점 절도, 공공기물 파손, 공공장소 소란행동, 폭행, 패싸움 참여, 친구 따돌리기(왕따)
	성비행	사창가 배회, 버스/지하철 신체접촉,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환각약물 흡입
	도피형 비행	마약 복용, 자살시도, 폭력성 게임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 시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반사회적 사이트 열람, 인터넷 파밍 몰입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온라인 욕설/폭언, 웹사이트 해킹,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허위정보 유포,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온라인 스토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상당히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구분하는 하위 영역에 있어서도 일관된 기준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화 등에 의해 제시된 문제행동에 대한 분류의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대상(예: 청소년 폭력)과 장소(예: 가정 부적응, 학교 부적응), 그리고 문제의 특성(예: 성일탈, 유해시설 접촉)등이 함께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리하

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공간차원이라든가 문제행동의 특성 등에 따라 재분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다고 할 때, 이 역시 학교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어떤 기준이나 범위에 한정해 문제의 내용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라는 상황에 한정해, 그 속에서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문제들로 학교 청소년의 문제 행위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와 비슷한 의미로 학교부적응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학교부적응이란 청소년의 다양한 부적응 행동 특성들이 학교라는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김진화 외, 2002).

김성이(1997)는 학교 부적응의 유형을 ‘학업과 관련된 유형’, ‘약물남용과 관련된 유형’, ‘타인과 관련된 유형’, ‘성과 관련된 유형’의 4가지로 나누었고 이경은(1998)은 여기에 ‘정서와 관련된 유형’을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2000)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부적응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① 학업 관련 유형 : 학습부진과 무단결석, 조퇴 등의 불성실한 면학태도가 수반되며 유급까지 초래되기도 함.
- ② 학교폭력 관련 유형 :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징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 여기에 낙서, 반항, 기물파손, 흉기 소지, 갈취 및 도벽 등의 행동도 포함.
- ③ 학교교칙 관련 유형 : 복장, 용모 관련 규율, 교수 학습 관련 규율,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규율,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규율, 형법 위반에 관한 규율,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 출결과

관련된 규율,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규율 등에 위반되는 행위.

- ④ 교우 관련 유형 : 동료집단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거나 또는 여가시간을 동료들과 위험한 행동을 하며 지내는 것,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동료들과의 심각한 갈등 등의 행위.
- ⑤ 문화적 차이 및 정서장애 관련 유형 : 문화의 차이, 외래문화의 유입 등으로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음. 또한 무기력, 불만, 이상행동, 불안, 지나친 수줍음, 자살 기도와 같은 정서장애 행동 등이 있음.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관련 문헌이나 자료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엄격하게 구분하긴 어려워도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과 특별히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하영근과 최상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고, 김진화 등은 심리적 문제, 가정부적응 문제, 학교부적응 문제, 청소년 폭력, 유해약물 오용·남용, 성 일탈, 유해미디어 이용, 유해시설 접촉, 청소년 범죄 등 아홉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이종원 등은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영역 중 학교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김진화 등의 경우 ‘학교부적응 문제 영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집중력부족’, ‘성적저하’, ‘시험불안’, ‘공부에 대한 무관심’, ‘중퇴’, ‘학교공포증’, ‘등교거부’, ‘중도포기’, ‘학교회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종원 등의 경우, 학교나 학생에 관한 문제행동은 주로 규범적 문제행동 영역에 치중되며, 규범적 문제행동의 영역에는 화장이나 머리염색 등 학생의 의복, 용모와 관련된 표

출형 문제행동, 음주, 흡연, 음란, 포르노물 열람 등의 유흥이나 풍속형 문제행동, 부모님이나 교사에 대한 반항과 같은 권위 반항형 행동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관련 문제행동은 일부 사이버 문제행동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관련 영역의 문제행동들은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에 제시된 ‘학교 부적응 유형’과 유사하다. 즉 한국청소년 연구회(200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업관련 유형’, ‘학교폭력관련 유형’, ‘학교교칙관련 유형’, ‘교우관련 유형’ ‘문화적 차이 및 정서장애 관련 유형’ 등 5가지의 학교부적응 유형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기보다는 대체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들이라는 유사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문헌 검토 결과,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접근은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원인

1) 문제행동의 형성 및 심화

학교는 학생들에게 규칙 준수를 훈련시키며, 지적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또래의 친구들과 경쟁·협동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은 낮은 학업성취, 규율위반, 교사 및 동료학생들과의 관계 결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고 좌절감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좌절감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며, 문제행동은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5).

학교 청소년들이 이러한 학교 부적응에서 느끼는 긴장과 좌절감, 압박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이나 음주를 시작하게 되고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드나들게 되며 심지어는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경험하게 된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행동은 우연히,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학칙 등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지 비행의 전조가 되는 문제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노성호, 1992).

이들은 점차 사소한 절도나 폭행 기타 법 위반 행위로서의 문제행동을 번번이 행하게 되다가, 더 나아가 불량교우와 함께 학교 주변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처벌·징계를 받는 등의 낙인경험의 과정에서 문제행동이 심화되어 폭행·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 주거침입절도 등의 재산범죄 등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인 범죄행위를 행하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 및 심화 과정은 사소한 문제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심화되는 문제행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의 시작과정’과 이러한 가벼운 수준의 문제행동에서 점차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으로 발전되어 가는 ‘비행의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문제행동의 시작과정’에서는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이 학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단계인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에서는 불량교우와의 교제, 학

교에서의 낙인경험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유홍준·정은경, 1999). 다음은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 원인이 되는 내용들에 관한 것이다.

2) 문제행동의 형성 원인

(1) 개인적 심리적 특성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유형에 따라 원인들이 다양하다고 하겠으나 대체로 개인적 심리적 원인들에는 개인의 도덕성, 낮은 자아개념(심웅철, 1992; Evans, Levy, Sullenberger & Vyas, 1991),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신체이미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낮은 자기통제수준, 청소년기 이전의 비행경험,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 저조한 학교 성적 등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이 되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Lyntton, 1995; Seydlitz, 1993).

특히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법을 어기는 청소년 비행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아이와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과의 적대적 관계, 낮은 수준의 애정, 낮은 관여수준, 소홀한 감독, 무섭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의 훈육, 가족간의 갈등과 혼란, 부모의 성격적 교란과 비행경력, 학교와 직장 등의 친 사회적 기관에 대한 애착의 결여, 긍정적인 성인역할 모델의 부재, 폭력이나 범죄, 비행이 자주 일어나는 환경에의 노출 등이다(Dishion et al, 1995; Huff, 1996).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중단연구에 의하면 학령전 단계의 공격성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비행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타인 화나게 하기’와 ‘타인 괴롭히기’와 같은 가벼운 수준의 공격성으로 시작하여 점차로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강도나 강간과 같은 극

단적 폭력으로 발전한다(Loeber Stouthmer- Lorber, 1998).

청소년들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 우울과 자살(또는 자살 시도)은 극심한 가정내 갈등과 이혼, 자녀에 대한 관리 소홀, 자녀 남용을 포함하는 가정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살 시도는 주로 극단적 외로움과 고독, 절망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나타난다(Blumenthal, & Kupfer, 1998 : Rubenstein et al, 1998).

최근 학교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주요 관련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분노와 공격성, 충동성,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분노와 공격성은 폭력적인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빈번히 발견, 보고되고 있는 성격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시형, 1997; 정지민, 1998;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1996). Reasoner(1994)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문헌점토를 통해 낮은 자존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나 폭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을 한 신종순(1991)의 연구에서도 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양상을 보인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자존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폭력적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의 문제발생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지각이나 오인과 같은 정보처리과정상의 왜곡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odge, Bates & Pettit, 1990).

(2) 사회 문화적 요인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결손 상태, 부모 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관계, 사회 경제적 지위, 거주지역의 환경, 그리고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사회적 지지 등을 들 수 있다(Lyntton, 1995; Seydlitz, 1993).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

모는 자녀의 인생초기는 물론, 청소년기 동안에도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수록 자녀들이 비행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구체적인 비행유형으로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불명확한 경우, 가정에 긴장감이 높거나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자녀행동에 대한 보상이 적거나 모니터링 수준이 낮은 경우 등에서 청소년 자녀들의 음주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nes, Farrel, & Banerjee, 1995).

반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우울을 감소시키고(Asarmove & Horton, 1990), 약물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Hughes, power, & Francis, 1992), 비행발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Lee, 1993).

학교환경 또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는 결속관계(Hawkins, Farrington & Catalano, 1998)와 학교가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수업방법을 채택하는 정도(Hawkins et al, 1996)등이 주요하게 지적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시킨다(Dielman et al, 1992). 또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청소년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써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교사는 청소년기의 비행 및 우울 발생의 억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적거나 부적절할 때 학교나 교사는 비행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rock, 1996).

다음의 상담 사례들(<사례1>~<사례2>)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제시된 <사례1>과 <사례2>는 가정에서의 지나친 방임이나 대화의 단절, 애정의 결핍, 혹은 과잉기대, 그리고 가정불화 등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사례3>은 과대경쟁과 입시교육위주의 학교 교육이 획일적, 권위적, 비인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학교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진로 지도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1>*

1. 내담자에 관한 정보

- * 16세, 중학교 3학년(자퇴), 여자
- *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가기 싫어하지만 부모는 학교 가기를 강요함. 학교에서는 백도 없는 날나라라고 구타당하고, 성적이 낮음. 이미 몇 차례의 결석과 가출로 학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학교에서도 받으려 하지 않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말 가고 싶어하지 않음. 상담 후 학교에 나가보려 했지만, 학교의 거부적인 태도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받고 자퇴함. 현재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싶어하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려고 함.

2.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

- * 진로선택의 어려움(선배, 또래로부터 폭력, 학업부진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학교부적응)
- * 잦은 가출(가출로서 문제 해결하려 함)
- * 가족간의 불화(어머니와는 사이 좋지만, 아버지는 잦은 구타와 욕설, 변덕스런 성격임)
- * 낮은 자존감(학업부진, 부모의 낮은 평가, 잦은 도벽, 자퇴, 애정적 욕구 강하지만 보살핌을 못 받는다고 생각함)
- * 책임감의 결여(학업부진, 자퇴, 가출 등의 책임을 부모와 교사에게 돌림, 책임회피)

* 출처: 홍혜영(2000) 청소년 면접상담사례 '학교부적응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서울청소년상담연구, 제2권, 제1호, 83-102.

<사례2>*

1. 내담자에 관한 정보

* 18세 대학 휴학중, 남자

*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하여 한번 월반을 시키고 2학년 때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공부하여 3년 만에 고졸(대입)검정고시까지 합격. 다른 친구들보다 2년 앞서 전문대학에 들어갔음.

아들이 우수하다는 어머니의 지나친 편향적 사고와 욕심으로 청소년시기 친구들과 제대로 된 인간 관계형성을 하지 못하여 외톨이로 외롭게 지냄. 또한 어머니의 지나친 욕심으로 학업을 강요하다보니 체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상 학생보다 체격이 작은 편임.

2.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

*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요구, 지시대로 생활한 것에 대한 커다란 반항 내지는 적개심을 품고 있음

* 검정고시 합격 전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나,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사실상 가정과 분리된 생활을 함. 가출된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친구나 동료와의 이성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생생활이나 유학생활 중 주위로부터 지지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 자연히 우범 청소년과 식사하러 드나들었던 중국집 배달친구와 술, 담배, 약물, 유해환경에 젖어들고 그런 동료와 어울려 음란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슷한 또래들과 성관계도 가졌으나 가정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

* 출처: 백형기(1999). 때뿔게만 나가는 18세 휴학생과 그 어머니.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사례연구집 1999. pp.155-165.

<사례3>*

1. 내담자에 관한 정보

* 19세. 고등학교 3학년, 남자

* 출석률이 저조하고 학업태도가 불량해 학교로부터 의뢰된 사례.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작 학교에 가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결국, 안 가게 됨. 자퇴 후 고2때 복학하여 자기보다 1년 어린 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학교를 성실히 안 다닌 지 오래되었고 학교가 지루함. 교사들이 인격적인 모독을 주며 괴롭힘. 교사들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음. 짜증느낌. 학교를 도망치며 교문을 나설 때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사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낌.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하지 않겠냐는 어머니나 주변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학교를 근근히 다니고는 있지만 학교에 가기 싫은 상태. 졸업장을 따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함.

2.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

* 등교거부에 대한 어머니의 과도한 관여 상태가 내담자를 가장 불편하게 함.

* 내담자는 학교문제와 관련해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 자신이 원해서 다니는 학교가 아님.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 대책을 세워 행동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상태.

* 출처 · 김형수(2001). 등교거부 사례.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사례연구집, pp.220-238.

이처럼 가정변인은 학교변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단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지도

유홍준과 정은경(1999)은 근래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학교생활 요인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를 크게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이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고학력화·폭력화·집단화 경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이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상당한 부적응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부적응성이 학생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 불량교우와의 교제, 학교에서의 낙인경험은 학생의 문제행동 및 범죄행위와 큰 연관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문제행동의 특성이나 문제행동의 심각성 수준 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 동안 학교상담에 대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학교상담은 학생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Gerler & Anderson, 1986; Tuma, 1974; Withr, Coyne, & Adams, 1991), 학교상담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차원에서 뿐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를 예방해 주고 학생들의 효과적인 발달을 가능케 한다(Morrill, Hurst, & Oetting, 1980). 또한 학교상담은 학교상담 서비스를 직접 받은 대상에게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체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Rich, 1987).

이렇게 학교상담이 교육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상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 만큼 우리나라에서 학교상담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한때 학교상담 또는 생활지도 무용론이 대두될 만큼 학교상담은 교육현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유정이, 1997).

이렇게 학교상담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상담의 문제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학교상담자 측면, 학교상담 기능측면, 학교상담 조직측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상담교사가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조종희, 1990; 임용우, 1992; 안종현, 1993; 원호택, 1993; 황용연, 1994; 장선규,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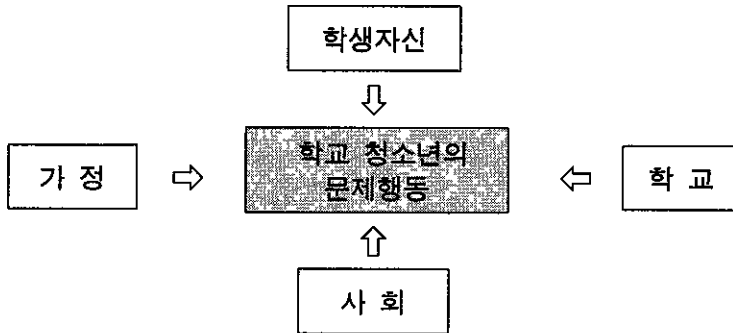
둘째, 학교상담 기능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학교상담이 대다수의 정상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문제학생을 치료하고자 하며, 상담실로 찾아오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담이 비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형득, 1993; 황용연, 1994).

셋째, 학교상담 조직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학교상담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며,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상담교사도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학생 및 교사들의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김영갑, 1983; 고재일, 1985; 김용웅, 1985; 조종희, 1990; 임용우, 1992; 황용연, 1994).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상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학교상담을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들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상담과정의 상호작용과 순환적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여준다(Viney, Clark & Benjami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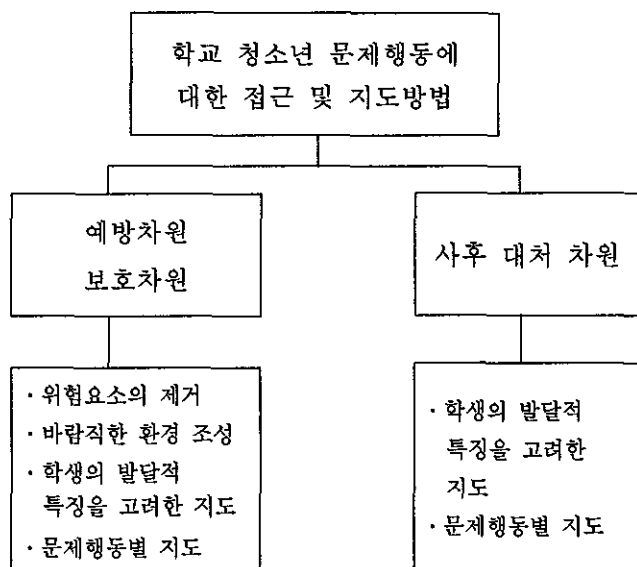
최근 박효정 등(2002)의 중·고등학생들의 생활지도 실태 조사 연구 역시 학교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효정 등은 연구를 통해 학생과 교사 집단 간에 생활지도의 실태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며, 중·고등학교의 상담실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교사-학생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문제행동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근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학생의 심리 및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배치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원인에 관한 제반연구 결과로부터 학생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은 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 자신에 의한 영향 요인으로서는 낮은 자존감, 낮은 기대, 부정적 자아 정체감, 낮은 자기 감정 통제력 등이, 가정의 경우는 가정내 갈등,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등이, 학교에서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 방법의 결여, 학교 상담 혹은 생활지도의 문제, 학교에 대해 느끼는 삶의 질 또는 결속력의 문제와 친구관계, 교사의 역할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범람하는 퇴폐풍조와 유해환경, 물질중시 사상의 팽배로 인한 도덕성 결여 등도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II-3-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따라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에 있어,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과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사후 대처 차원에서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문제행동별로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그림 II-2-2] 참조).



[그림 11-3-2]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접근과 방법

다시 말해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생활 속에서 경쟁 과정에서 탈락하였을 때 느끼는 불안과 긴장, 열등감과 좌절감 등의 문제점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문교사의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한 개별적·인간적 접촉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행동을 발생시킨 학생들을 징계를 통해 배제시키기 보다는 포용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중비행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며, 학교 내 비행학생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경비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비행(범죄행위)까지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 여겨 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추진 방향에의 시사점

기존의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 결과,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연구에 따라서는 범죄 행위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탈 행위와 같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에 따라 문제행동을 다루는 범위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 때,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가 우선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청소년의 개념 규정과 더불어 이들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혹은 문제행동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의 시작과정’과 이러한 가벼운 수준의 문제행동에서 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범죄행위)으로 발전되어 가는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문제행동의 시작과정’에서는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이 학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단계인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에서는 불량 교우와의 교제, 학교에서의 낙인경험이 학교 청소년들의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효과적인 예방 및 사후대처 방법을 탐색키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 중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와 지도 대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치료라는 맥락에서 학교 청소년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다른 문제행동의 범위와 분류는 주로 어른의 입장에서 그리고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결정되어 조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제행동 영역과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된 영역과 내용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정된 문제행동이 실제로 문제행동인지 아니면 학생들만의 독특한 문화 행위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선행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문제행동의 특성이나 문제행동의 심각성 수준 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제행동 지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요망된다.

Ⅲ.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

Ⅲ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2.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분석
3. 면담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본
문제점 분석

공 백

III.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이미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에 따라 문제행동을 다루는 범주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분야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비교하거나 청소년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의 실태 및 지도에 관해 알아보기에 앞서,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학교,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 포함할 수 있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사 49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 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행동,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제행동, 주변의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표 III-1-1> 면담대상 교사의 지역별, 학교급별 구성

(단위:명)

지역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고	실업고	종합고	
대도시		3	4	1	5	-	13
중소도시		5	5	8	3	4	25
읍면지역		3	4	-	4	-	11
계		11	13	9	12	4	49

면담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행동으로 ‘거친 언어의 사용’, ‘교내폭력’, ‘흡연’, ‘참을성 없고 산만한 것’, ‘이기주의’, ‘습관적 지각’ ‘집단 따돌림’ 등을 지적하였다. 가장 심각한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는 ‘이기주의,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 ‘거친 언어 사용’, ‘교내 폭력’, ‘학습태도 불량’, ‘금품갈취’ 등을 지적하였다(<표Ⅲ-1-2> 참조).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 들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는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집단 따돌림’, ‘가출’, ‘무단지각, 결석, 장기 결석’ 등을 지적하였다.

<표Ⅲ-1-2> 교사들이 지적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우선순위(10가지)

(단위:명)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	명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문제행동	명	주변에서 들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행동	명
거친 언어 사용	21	이기주의(배려심없음)	10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10
교내폭력	17	거친 언어 사용	9	집단 따돌림	4
흡연	13	교내 폭력	8	가출	4
참을성 없고 산만한	13	학습태도 불량	7	무단지각·결석, 장기결석	4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12	금품갈취, 금품거래	7	학습태도 불량	3
이기주의	12	참을성 없고 산만한	7	습관적 지각	3
습관적 지각	11	인터넷 과잉 몰입	6	교내폭력	3
집단따돌림	11	가출	5	불건전한 이성교제	3
기초생활태도 미숙	9	흡연	5	절도, 강도	3
학습무기력증/ 무단지각·결석, 장기결석	8	과다한 게임/ 매사에 무관심한태도/ 불건전한 이성교제/ 무단지각·결석, 장기결석	4	위장취업	3

* 복수응답 처리함.

면담을 통해 밝혀진 교사들의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다양하여 구체적으로는 50여 가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

위의 <표Ⅲ-1-2>에 제시한 몇 가지 사항(<표Ⅲ-1-2>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10가지만 제시한 것임)을 제외하면, 응답 내용의 범위는 꽤 넓다. 이처럼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막연하고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다시 말해 이는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들의 면담 내용에 기초해 볼 때,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행동은 무엇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간에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질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내용은 질문조사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2.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 분석

여기에서는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과 성을 고려해 표집한 초·중·고등학생, 관련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청소년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지역과 성을 고려해 표집한 초·중·고등(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실업)학교의 학생 총 2,108명과 학부모 2,079명, 관련학교 교사 157명이었으며, 2003년 7월 2-3주 사이에 우편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Ⅲ-2-1>~<표Ⅲ-2-3>과 같다.

<표Ⅲ-2-1> 조사 대상 학생의 분포

		명(%)				
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실업고	
학교 소재 지역	서울	112(35.0)	108(33.8)	71(22.2)	29(9.1)	320(100.0)
	대도시	182(36.0)	143(28.3)	104(20.6)	77(15.2)	506(100.0)
	중소도시	324(36.9)	321(36.5)	163(18.5)	71(8.1)	879(100.0)
	읍면지역	112(27.8)	112(27.8)	90(22.3)	89(22.1)	403(100.0)
학생 성	남	396(34.8)	399(35.1)	234(20.6)	109(9.6)	1138(100.0)
	여	334(36.1)	240(25.9)	194(21.0)	266(12.6)	925(100.0)
계		730(34.6)	684(32.4)	428(20.3)	266(12.6)	2108(100.0)

<표Ⅲ-2-2> 조사 대상 학부모의 분포

		명(%)				
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실업고	
학교 소재 지역	서울	150(44.0)	93(27.3)	69(20.2)	29(8.5)	341(100.0)
	대도시	205(38.7)	144(27.2)	104(19.6)	77(14.5)	530(100.0)
	중소도시	283(35.2)	312(38.8)	158(19.6)	52(6.5)	805(100.0)
	읍면지역	113(28.0)	114(28.3)	89(22.1)	87(21.6)	403(100.0)
자녀 성	남	409(35.6)	404(35.2)	229(19.9)	106(9.2)	1148(100.0)
	여	342(36.7)	259(27.8)	191(20.5)	139(14.9)	931(100.0)
계		751(36.1)	663(31.9)	420(20.2)	245(11.8)	2079(100.0)

<표Ⅲ-2-3> 조사 대상 교사의 분포

		명(%)				
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실업고	
학교 소재 지역	서울	12(21.4)	5(10.2)	4(12.5)	3(15.0)	24(15.3)
	대도시	16(28.6)	14(28.6)	11(34.4)	6(30.0)	47(29.9)
	중소도시	21(37.5)	23(46.9)	14(43.8)	5(25.0)	63(40.1)
	읍·면	7(12.5)	7(14.3)	3(9.4)	6(30.0)	23(14.6)
성	남	21(37.5)	15(30.6)	11(34.4)	11(55.0)	58(36.9)
	여	35(62.5)	34(69.4)	21(65.6)	9(45.0)	99(63.1)
계		56(35.7)	49(31.2)	32(20.4)	20(12.7)	157(100.0)

2) 조사내용

조사 대상별 조사의 내용은 다음에 제시된 <표Ⅲ-2-4>~<표Ⅲ-2-6>과 같다.

<표Ⅲ-2-4> 학생용 질문지의 구성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문항내용
I. 학생 배경 변인	I-1	거주 지역
	I-2	학급 성적
	I-3	동거 가족
II-1. 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II-3	가정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II-4	가정에서의 불만사항
	II-9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II-10	1)~10)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감
II-2. 학생들의 하교 후 배회	II-5	하교 후 배회 정도
	II-6	배회의 이유
	II-7	배회하는 시간
	II-8	배회하며 가는 장소
II-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II-1	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에 대한 생각
	II-2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교/부)
III. 청소년 개발원 공통 문항 (문제행동 경험 여부)	III-1~5	5가지 문제행동들의 경험 여부 (1 유해업소 출입 /2 폭력 행사 /3 절도 /4 유해약물 복용 /5 성범죄)
IV 청소년 개발원 공통 문항 (문제행동 실행 빈도)	IV-1~5	위 5가지 문제행동들의 실행 빈도
V.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행	V-1 ~20	(a) 각종 문제행동들에 대해 학생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V-1 ~20	(b) 위 각종 문제행동들의 실제 실행 정도
VI 문제행동 경험시기와 경험 이유	VI-1~7	(a) 경험한 문제행동 유형
		(b) (a)문제행동의 최초 경험 시기
		(c) (a)문제행동 최초 경험의 이유
VII.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VII-1	고민, 걱정, 갈등의 해결 방법
	VII-2	문제행동으로 어려움 겪을 때 부모나 교사 에게 알리는지 여부
	VII-3	알리지 않는 이유
	VII-4	부모나 교사가 문제행동 알았을 때의 반응
	VII-5	문제행동 지도 후의 느낌

※ (교/부)는 교사용과 학부모용 질문지에도 있는 공통문항임.

<표 III-2-5> 학부모용 질문지의 구성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문항내용
I. 학부모 배경 변인	I-1	질문지 응답자
	I-2	아버지 학력
	I-3	어머니 학력
	I-4	경제적 수준
	I-5	거주 지역
	I-6	가장 직업
	I-7	자녀 성적
II-1. 학생에 관한 부모의 인식	II-9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인식(교)
	II-10	학부모가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의 특성(교)
II-2. 자녀의 생활(고민, 문제)에 관한 파악	II-1	자녀의 학교 생활 인지
	II-2	학교생활 확인 방법
	II-3	학교생활 및 문제행동 파악에서의 어려움
II-3.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II-5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교)
	II-6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교)
	II-11	가장 심각한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교)
II-4. 문제행동 감소 요인 및 지도 대책	II-7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교)
	II-8	문제행동 지도시 요구되는 요인

※ (교)는 교사용 질문지에도 있는 공통 문항임.

<표 III-2-6> 교사용 질문지의 구성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문항내용
I. 교사배경변인	I-1	응답교사의 학교급
	I-2	2-1)담임여부, 2-2)소속부서, 2-3)직위
	I-3	학교소재지역
	I-4	교사 성별
	I-5	교직 경력
II-1. 학생에 관한 교사의 인식	II-10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인식
	II-11	교사가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의 특성
II-2. 학생지도를 위한 정보수집	II-9	학생지도를 위한 정보 수집
II-3. 학생들의 문제(고민, 갈등) 파악방법 혹은 정보수집	II-1	학생들의 문제(고민이나 갈등)는 파악 방법
	II-2	문제행동 파악과정과 지도시의 어려움
II-4.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II-6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
	II-3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
	II-12	가장 심각한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II-5. 문제행동의 지도 경험	II-4	지도 경험과 지도효과에 관한 의견
	II-5	지도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의견
	II-7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
	II-8	문제행동 지도 방법과 사용 정도

3)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로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1) 학생 의견 분석 결과

(가) 학생의 가정과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생이 가정분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생 2,099명 중 가정 분위기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60.5%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33.3%, 불만스럽다는 학생은 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90%가 넘는 초·중·고등학생들은 비교적 가정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는 편임을 알 수 있다.

<표Ⅲ-2-7> 가정분위기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응답내용		명(%)			
구분		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불만스럽다	전체 χ^2
학교 급	초	507(69.8)	199(27.4)	20(2.8)	80.76***
	중	408(60.0)	225(33.1)	47(6.9)	
	일반	246(57.6)	146(34.2)	35(8.2)	
	실업	108(40.6)	130(48.9)	28(10.5)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190(59.4)	101(31.6)	29(9.1)	9.29
	도시 광역시	316(62.6)	159(31.5)	30(5.9)	
	중소도시	534(61.2)	293(33.6)	45(5.2)	
	읍면지역	229(57.0)	147(36.6)	26(6.5)	
성 ¹⁾	남	673(59.5)	388(34.3)	70(6.2)	1.27
	여	570(61.8)	295(32.0)	58(6.3)	
계		1269(60.5)	700(33.3)	130(6.2)	2099(100.0)

*** $p < .001$

- 1) 조사대상 1개 중학교에서 성별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학교는 missing data 처리함. 따라서 성별분석 전체인원은 학교급별, 학교소재지별 전체 인원보다 30여명 적음. 이후 제시되는 표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임

배경변인별 경향에 있어서는 학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지역간, 성별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9.8%, 중학교 60.0%, 일반고 57.6%, 실업고 40.6%의 순으로 나타나 낮은 학교급의 학생들이일수록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8> 학생이 느끼는 가정에서의 가장 불만스러운 사항

		명(%)							
구분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학교급	초	196(29.2)	26(3.9)	169(25.1)	19(2.8)	35(5.2)	62(9.2)	165(24.6)	268.20***
	중	246(37.8)	37(5.7)	82(12.6)	20(3.1)	17(2.6)	120(18.4)	129(19.8)	
	일반	129(31.2)	64(15.5)	17(4.1)	18(4.3)	9(2.2)	68(16.4)	109(26.3)	
	실업	83(32.8)	61(24.1)	9(3.6)	11(4.3)	14(5.5)	33(13.0)	42(16.6)	
학교소재지역	대 서울	93(30.6)	28(9.2)	40(13.2)	20(6.6)	13(4.3)	38(12.5)	72(23.7)	31.13*
	광역시	155(32.0)	46(9.5)	65(13.4)	16(3.3)	16(3.3)	72(14.9)	114(23.6)	
	중소도시	261(32.0)	70(8.6)	131(16.1)	23(2.8)	34(4.2)	130(15.9)	167(20.5)	
	읍면지역	145(37.6)	44(11.4)	41(10.6)	9(2.3)	12(3.1)	43(11.1)	92(23.8)	
성	남	374(34.4)	87(8.0)	162(14.9)	37(3.4)	32(2.9)	185(17.0)	211(19.4)	35.95***
	여	267(30.9)	97(11.2)	109(12.6)	29(3.4)	43(5.0)	94(10.9)	224(26.0)	
계		654(32.9)	188(9.4)	277(13.9)	68(3.4)	75(3.8)	283(14.2)	445(22.4)	1990(100.0)

* $p < .05$, *** $p < .001$

- ①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② 경제력이 부족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
 ③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다
 ④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
 ⑤ 나에 대한 부모님의 애정이 부족하다
 ⑥ 부모님이 나를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⑦ 기타_____

학생들이 느끼는 가정에서의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32.9%가 ‘부모님이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신다(14.2%)’,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다(13.9%)’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체로 부모님의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간섭을 주요 불만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경향을 보면, 학교급별로는 ‘부모님이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중학생(37.8%)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실업고(32.8%), 일반고(31.2%), 초등학교(29.2%)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불만스럽게 느끼는 점으로는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점(25.1%)’을, 중학생(18.4%)과 일반고(16.4%)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을 들고 있는 반면, 실업고 학생들의 경우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불만스러운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들일수록,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신들에 대한 부모님의 이해 부족을 더 불만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많은 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불만족은 부모가 자신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시위주의 상황에서 부모들이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려는 욕구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들의 여러 가지 특성,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부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 이해 부족과 갈등은 오히려 자녀들을 빗나가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들의 자녀 이해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III-2-9>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명(%)			
구분	응답내용	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불만스럽다	전체 χ^2
학 교 급	초	318(43.9)	357(49.3)	49(6.8)	724(100.0)
	중	203(29.7)	398(58.2)	83(12.1)	684(100.0)
	일반 고	109(25.5)	248(58.1)	70(16.4)	427(100.0)
	실업	49(18.4)	175(65.8)	42(15.8)	266(100.0)
학 교 소 재 지 역	대 서울	133(41.6)	156(48.8)	31(9.7)	320(100.0)
	도 광역시	155(30.6)	293(57.9)	58(11.5)	506(100.0)
	중소도시	285(32.6)	497(56.9)	92(10.5)	874(100.0)
	읍면지역	106(26.4)	232(57.9)	63(15.7)	401(100.0)
성	남	354(31.3)	638(56.4)	140(12.4)	1132(100.0)
	여	312(33.8)	512(55.4)	100(10.8)	924(100.0)
계		679(32.3)	1178(56.1)	244(11.6)	2101(100.0)

*** $p < .001$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2,101명 중 56.1%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생활에 불만족한(11.6%) 학생들보다는 만족하는 학생(32.3%)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초등학교(43.9%), 중학교(29.7%), 일반고(25.5%), 실업고(18.4%) 순으로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반면, 실업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가 가장 높으며(41.6%), 읍면지역 학생들(26.4%)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10> 학교나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결과

1) '학교는 매일 가고 싶은 곳이다.'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급	초	99(13.7)	456(63.1)	168(23.2)	723(100.0)	179.37***
	중	177(25.9)	414(60.5)	93(13.6)	684(100.0)	
	일반	183(42.9)	214(50.1)	30(7.0)	427(100.0)	
	실업	103(38.7)	148(55.6)	15(5.6)	266(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79(24.7)	185(57.8)	56(17.5)	320(100.0)	10.84
	광역시	136(26.9)	304(60.1)	66(13.0)	506(100.0)	
	중소도시	218(25.0)	525(60.1)	130(14.9)	873(100.0)	
	읍면지역	129(32.2)	218(54.4)	54(13.5)	401(100.0)	
성	남	306(27.1)	661(58.4)	164(14.5)	1131(100.0)	0.61
	여	236(25.5)	550(59.5)	138(14.9)	924(100.0)	
계		562(26.8)	1232(58.7)	306(14.6)	2100(100.0)	

*** $p < .001$

학교나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를 매일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 초·중·고등학생 2,100명 중 14.6%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8.7%의 학생들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70%가 넘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낮은 학교급의 학생들이일수록 ‘학교는 매일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고(38.7%)보다 일반고(42.9%) 학생들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2)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인 것이 자랑스롭다.’의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 급	초	71(9.8)	384(53.0)	269(37.2)	724(100.0)	287.92***
	중	219(32.1)	372(54.5)	92(13.5)	683(100.0)	
	일반 고	148(34.7)	248(58.1)	31(7.3)	427(100.0)	
	실업 고	105(39.5)	136(51.1)	25(9.4)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86(27.0)	150(47.0)	83(26.0)	319(100.0)	37.32***
	광역시	129(25.5)	271(53.6)	106(20.9)	506(100.0)	
	중소도시	189(21.6)	517(59.2)	167(19.1)	873(100.0)	
	읍면지역	139(34.6)	202(50.2)	61(15.2)	402(100.0)	
성	남	298(26.3)	617(54.6)	216(19.1)	1131(100.0)	1.29
	여	236(25.5)	493(53.4)	195(21.1)	924(100.0)	
계		543(25.9)	1140(54.3)	417(19.9)	2100(100.0)	

*** $p < .001$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인 것이 자랑스롭다’에 대해 전체 초·중·고등학생 2,100명 중 25.9%만이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70%가 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비교적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낮은 학교급의 학생들이일수록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실업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낮고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준다.'의 응답 결과

응답내용		명(%)				χ^2
구분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교 급	초	130(18.0)	429(59.3)	164(22.7)	723(100.0)	99.59***
	중	169(24.9)	455(67.0)	55(8.1)	679(100.0)	
	일반	99(23.3)	295(69.6)	30(7.1)	424(100.0)	
	실업	75(28.2)	170(63.9)	21(7.9)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70(22.0)	201(63.2)	47(14.8)	318(100.0)	17.77**
	도					
	시	115(22.8)	330(65.5)	59(11.7)	504(100.0)	
	광역시					
	중소도시	174(20.0)	569(65.3)	128(14.7)	871(100.0)	
	읍면지역	114(28.6)	249(62.4)	36(9.0)	399(100.0)	
성	남	259(23.0)	743(66.0)	124(11.0)	1126(100.0)	8.72*
	여	204(22.1)	575(62.4)	142(15.4)	921(100.0)	
계		473(22.6)	1349(64.5)	270(12.9)	2092(100.0)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 준다'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중 77.4%의 초·중·고등학생들은 '약간'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고 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초·중·고등학생들보다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4) '학교에서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의 응답 결과

명(%)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구분						
학교 급	초	236(32.8)	400(55.6)	84(11.7)	720(100.0)	26.45***
	중	256(37.5)	375(55.0)	51(7.5)	682(100.0)	
	일반	161(37.8)	239(56.1)	26(6.1)	426(100.0)	
	실업	120(45.3)	132(49.8)	13(4.9)	265(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106(33.4)	182(57.4)	29(9.1)	317(100.0)	13.27*
	시 광역시	169(33.4)	297(58.7)	40(7.9)	506(100.0)	
	중소도시	326(37.5)	463(53.3)	80(9.2)	869(100.0)	
	읍면지역	172(42.9)	204(50.9)	25(6.2)	401(100.0)	
성	남	399(35.3)	649(57.5)	81(7.2)	1129(100.0)	8.24*
	여	352(38.3)	477(51.9)	90(9.8)	919(100.0)	
계		773(36.9)	1146(54.8)	174(8.3)	2093(100.0)	

* $p < .05$, *** $p < .001$

'학교에서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의 36.9%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반 정도에 가까운(45.3%) 학생들이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경향에 있어서는 읍면지역(42.9%)의 학생들이 대도시(33.4%)나 중소도시(33.5%)의 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학교에서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다소 부정적인 자아의식 성향을 보이고 있다.

5) '학교에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의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 급	초	110(15.3)	372(51.7)	237(33.0)	719(100.0)	38.00***
	중	107(15.7)	415(60.8)	161(23.6)	683(100.0)	
	일반 고	74(17.3)	261(61.1)	92(21.5)	427(100.0)	
	실업	55(20.8)	164(62.1)	45(17.0)	264(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40(12.6)	183(57.5)	95(29.9)	318(100.0)	43.30***
	광역시	76(15.1)	275(54.7)	152(30.2)	503(100.0)	
	중소도시	127(14.6)	530(60.8)	214(24.6)	871(100.0)	
	읍면지역	103(25.7)	224(55.9)	74(18.5)	401(100.0)	
성	남	194(17.2)	671(59.4)	264(23.4)	1129(100.0)	7.07*
	여	143(15.6)	514(55.9)	262(28.5)	919(100.0)	
계		346(16.5)	1212(57.9)	535(25.6)	2093(100.0)	

* $p < .05$, *** $p < .001$

'학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 2,093명의 초·중·고등학생들 중 83.5%가 '약간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비교적 학교생활을 통해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낮은 학교급 학생들일수록 학교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읍면지역(25.7%) 학교의 학생들이 대도시(서울 12.6%, 광역시 15.1%), 중소도시(14.6%)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교 생활을 더 잘 하는 경향을 보였다.

6) '학교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배운다.'의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급	초	100(13.8)	325(44.9)	299(41.3)	724(100.0)	24.16***
	중	76(11.1)	368(53.9)	239(35.0)	683(100.0)	
	일반고	42(9.8)	239(56.0)	146(34.2)	427(100.0)	
	실업고	40(15.0)	147(55.3)	79(29.7)	266(100.0)	
학교소재지역	대서울	32(10.0)	164(51.3)	124(38.8)	320(100.0)	20.88**
	광역시	55(10.9)	255(50.5)	195(38.6)	505(100.0)	
	중소도시	104(11.9)	436(49.9)	333(38.1)	873(100.0)	
	읍면지역	67(16.7)	224(55.7)	111(27.6)	402(100.0)	
성	남	148(13.1)	594(52.4)	391(34.5)	1133(100.0)	4.29
	여	107(11.6)	457(49.6)	358(38.8)	922(100.0)	
계		258(12.3)	1079(51.4)	763(36.3)	2100(100.0)	

** $p < .01$, *** $p < .001$

'학교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배운다'에 대해 2,100명의 학생 중 12.3%의 학생들만이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 속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익히고 형성해 감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경향에 있어서는 실업고(15.0%), 초등학교(13.8%), 중학교(11.1%), 일반고(9.8%)의 순으로 나타나 실업고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배운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7)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신다.'의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급	초	128(17.8)	360(50.0)	232(32.2)	720(100.0)	136.08***
	중	179(26.2)	424(62.0)	81(11.8)	684(100.0)	
	일반고	114(26.8)	271(63.6)	41(9.6)	426(100.0)	
	실업	68(25.6)	160(60.2)	38(14.3)	266(100.0)	
학교소재지역	대서울	75(23.6)	177(55.7)	66(20.8)	318(100.0)	9.46
	시광역시	118(23.3)	301(59.5)	87(17.2)	506(100.0)	
	중소도시	184(21.1)	516(59.2)	172(19.7)	872(100.0)	
	읍면지역	112(28.0)	221(55.3)	67(16.8)	400(100.0)	
성	남	274(24.3)	656(58.2)	198(17.6)	1128(100.0)	3.99
	여	200(21.7)	533(57.7)	190(20.6)	923(100.0)	
계		489(23.3)	1215(58.0)	392(18.7)	2096(100.0)	

*** $p < .001$

전체 조사대상 2,096명 중 76.6%의 초·중·고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신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더 보였다. 그러나 지역,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선생님들은 학급에서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신다.'의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 급	초	107(14.9)	314(43.6)	299(41.5)	720(100.0)	126.61***
	중	151(22.2)	369(54.2)	161(23.6)	681(100.0)	
	일반	102(23.9)	269(63.0)	56(13.1)	427(100.0)	
	실업	51(19.2)	156(58.6)	59(22.2)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58(18.2)	166(52.0)	95(29.8)	319(100.0)	5.88
	시 광역시	112(22.1)	265(52.4)	129(25.5)	506(100.0)	
	중소도시	156(17.9)	467(53.7)	247(28.4)	870(100.0)	
	읍면지역	85(21.3)	210(52.6)	104(26.1)	399(100.0)	
성	남	220(19.5)	606(53.6)	304(26.9)	1130(100.0)	1.11
	여	184(20.0)	472(51.4)	263(28.6)	919(100.0)	
계		411(19.6)	1108(52.9)	575(27.5)	2094(100.0)	

*** $p < .001$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 2,094명 중 19.6%만이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80% 정도의 초·중·고등학생들은 비교적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공평하게 대우해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학교급별로 보면 '선생님들이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초등학생(85.1%)들이 가장 많은 반면, 일반고 학생들(76.1%)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 '나는 공부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 급	초	121(16.8)	430(59.6)	171(23.7)	722(100.0)	89.61***
	중	218(31.9)	356(52.1)	109(16.0)	683(100.0)	
	일반 고	173(40.6)	195(45.8)	58(13.6)	426(100.0)	
	실업	82(30.8)	140(52.6)	44(16.5)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80(25.1)	172(53.9)	67(21.0)	319(100.0)	13.06*
	광역시	147(29.2)	258(51.2)	99(19.6)	504(100.0)	
	중소도시	233(26.7)	479(54.9)	161(18.4)	873(100.0)	
	읍면지역	134(33.4)	212(52.9)	55(13.7)	401(100.0)	
성	남	322(28.5)	601(53.2)	207(18.3)	1130(100.0)	0.16
	여	256(27.8)	498(54.0)	168(18.2)	922(100.0)	
계		594(28.3)	1121(53.5)	382(18.2)	2097(100.0)	

* $p < .05$, *** $p < .001$

전체 조사대상 2,097명 중 71.7%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공부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에 있어서는 초등학생(83.3%)들이 공부나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업고(69.2%), 중학교(69.1%), 일반고(59.4%) 순으로서 일반고 학생들이 공부나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4.9%), 광역시(70.8%), 중소도시(73.3%)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들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읍면지역(66.6%)의 학생들이 공부나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포부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0) '나는 학교에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의 응답 결과 명(%)

구분 \ 응답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교급	초	85(11.8)	348(48.3)	288(39.9)	721(100.0)	233.68***
	중	71(25.1)	400(58.7)	110(16.2)	681(100.0)	
	일반	163(38.2)	210(49.2)	54(12.6)	427(100.0)	
	실업	88(33.1)	145(54.5)	33(12.4)	266(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70(22.0)	173(54.4)	75(23.6)	318(100.0)	19.70**
	광역시	105(20.8)	270(53.4)	131(25.9)	506(100.0)	
	중소도시	207(23.8)	452(52.0)	210(24.2)	869(100.0)	
	읍면지역	125(31.1)	208(51.7)	69(17.2)	402(100.0)	
성	남	250(22.1)	606(53.7)	273(24.2)	1129(100.0)	4.93
	여	242(26.3)	475(51.6)	204(22.1)	921(100.0)	
계		507(24.2)	1103(52.6)	485(23.2)	2095(100.0)	

** $p < .01$, *** $p < .001$

'나는 학교에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 2,095명 중 2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상당수의 초·중·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초등학생(88.2%)들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음으로 중학생(74.9%), 실업고 학생(66.9%), 일반고 학생(61.8%)의 순으로서, 특히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 볼 때 일반고 학생들이 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68.9%)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의 가정과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가정 분위기에 대해, 초·중·고등학생들의 60.5%가 가정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낮은 학교급(초등학교)의 학생들일수록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중·고등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는 점은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불만스러운 점으로 중학생과 일반고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초등학생들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이었으며, 실업고 학생들은 ‘경제력이 부족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1/3 정도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실업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서울·대도시보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학교생활과 관련한 자신감, 자아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은 적게는 8.3%에서부터 36.3%까지의 분포로서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약간 만족한다’는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63.1%에서 87.7%로서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 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생활에 관한 10가지 구체적인 질문들(학교, 교사,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이나 공부 및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 등에 관한 질문)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반

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가장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신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일반고등학생과 실업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10개의 질문 중 각각 5개 질문에서 가장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별 경향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공부·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자신감,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성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으로서 첫째는,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공부,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학업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낮게 나타난 자신감과 만족도는 학교 교육에 대한 위기를 염려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지식 위주의 평가 방법 운영으로 인해 공부 잘 하고 모범적인 소수의 학생만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교육의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되고 이로 인해 낮은 자신감과 만족도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생활과 자신에 대해 불만족한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서울, 대도시보다 일관성있게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신감과 공부 및 학교생활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어 열악한 생활과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만족, 나

아가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 학생들의 하교 후 배회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홀로 혹은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는 일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어디에서 배회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Ⅲ-2-11> 하교 후 배회하는 정도

구분 \ 응답내용						명(%)	χ^2
		자주 있다	가끔 있다	어쩌다 있다	전혀 없다	전체	
학 교 급	초	62(8.6)	191(26.5)	271(37.5)	198(27.4)	722(100.0)	156.08***
	중	71(10.4)	248(36.4)	265(38.9)	98(14.4)	682(100.0)	
	일반 고	43(10.1)	194(45.4)	140(32.8)	50(11.7)	427(100.0)	
	실업	70(26.3)	100(37.6)	69(25.9)	27(10.2)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45(14.2)	124(39.0)	103(32.4)	46(14.5)	318(100.0)	15.63
	광역시	61(12.1)	172(34.0)	192(37.9)	81(16.0)	506(100.0)	
	중소도시	85(9.8)	297(34.1)	312(35.8)	177(20.3)	871(100.0)	
	읍면지역	55(13.7)	140(34.8)	138(34.3)	69(17.2)	402(100.0)	
성	남	121(10.7)	385(34.0)	424(37.5)	202(17.8)	1132(100.0)	3.55
	여	117(12.7)	323(35.1)	314(34.1)	166(18.0)	920(100.0)	
계		246(11.7)	733(35.0)	745(35.5)	373(17.8)	2097(100.0)	

*** $p < .001$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2,097명 중 17.8%의 초·중·고등학교생들만이 하교 후 배회하지 않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2.2%의 학생들은 집에 바로 가기보다는 혼자서 또는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주 그런다’는 학생들은 11.7% 정도 되었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반고 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하교 후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일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2-12> 하교 후 배회하는 이유

		명(%)							χ^2
구분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 교 급	초	45(6.5)	32(4.6)	13(1.9)	165(23.9)	63(9.1)	61(8.8)	312(45.2)	158.28***
	중	15(2.2)	47(7.0)	5(0.7)	279(41.8)	46(6.9)	56(8.4)	219(32.8)	
	일반고	10(2.4)	38(9.2)	11(2.7)	159(38.6)	35(8.5)	52(12.6)	107(26.0)	
	실업고	18(6.9)	36(13.8)	6(2.3)	120(46.0)	8(3.1)	20(7.7)	53(20.3)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17(5.5)	20(6.5)	8(2.6)	118(38.3)	24(7.8)	31(10.1)	90(29.2)	24.87
	광역시	25(5.1)	41(8.3)	11(2.2)	179(36.2)	42(8.5)	49(9.9)	148(29.9)	
	중소도시	27(3.2)	60(7.2)	14(1.7)	296(35.5)	61(7.3)	80(9.6)	295(35.4)	
	읍면지역	19(4.8)	32(8.1)	2(0.5)	130(32.9)	25(6.3)	29(7.3)	158(40.0)	
성	남	45(4.1)	86(7.9)	26(2.4)	363(33.2)	84(7.7)	104(9.5)	384(35.2)	9.34
	여	42(4.7)	66(7.4)	9(1.0)	336(37.5)	67(7.5)	82(9.2)	293(32.7)	
계		88(4.3)	153(7.5)	35(1.7)	723(35.6)	152(7.5)	189(9.3)	691(34.0)	2031(100.0)

*** $p < .001$

- ① 집에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없다
 ② 집에 가면 답답하거나 불안하다
 ③ 늦게 와도 야단을 치거나 꾸중하는 사람이 없다
 ④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⑤ 학원이나 과외 또는 특별히 계획하여 할 일이 없다
 ⑥ 기타 _____
 ⑦ 배회하는 일이 없다

학교 후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35.6%)’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집에 가면 답답하거나 불안하다(7.5%)’, ‘학원이 나 과외 또는 특별히 계획하여 할 일이 없기 때문(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배회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실업고 학생(46.0%)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회 이유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집에 가면 답답하거나 불안하다’에 대한 반응 경향에 있어서도 실업고 학생들(13.8%)은 일반고(9.2%), 중학교(7.0%), 초등학교(4.6%) 학생들보다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지역,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2-13> 학교 후 배회 시간

		명(%)					
구분	응답내용	1-2시간	3-4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	전체	χ^2
학교 급	초	445(77.7)	96(16.8)	15(2.6)	17(3.0)	573(100.0)	106.38***
	중	504(77.9)	120(18.5)	16(2.5)	7(1.1)	647(100.0)	
	일반	268(65.8)	120(29.5)	14(3.4)	5(1.2)	407(100.0)	
	실업	137(52.1)	86(32.7)	27(10.3)	13(4.9)	263(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215(70.3)	65(21.2)	18(5.9)	8(2.6)	306(100.0)	15.17
	광역시	315(68.2)	116(25.1)	21(4.5)	10(2.2)	462(100.0)	
	중소도시	536(72.5)	171(23.1)	19(2.6)	13(1.8)	739(100.0)	
	읍면지역	288(75.2)	70(18.3)	14(3.7)	11(2.9)	383(100.0)	
성	남	778(75.5)	197(19.1)	29(2.8)	27(2.6)	1031(100.0)	25.66***
	여	542(66.3)	218(26.7)	43(5.3)	14(1.7)	817(100.0)	
계		1354(71.6)	422(22.3)	72(3.8)	42(2.2)	1890(100.0)	

*** $p < .001$

하교 후 밖에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1,890명 중 1-2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7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4시간(22.3%), 5-6시간(3.8%), 6시간 이상(2.2%)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1-2시간이라고 응답한 초·중학생들은 각각 77.7%, 77.9%이며, 일반고 65.8%, 실업고 52.1%로서 초·중학생들은 비교적 1-2시간 정도 하교 후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반면, 고등학생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중 일반고 학생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4> 학생들이 배회하며 들르는 장소

		명(%)									
구분	응답내용	전자 오락실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유흥 주점	노래방	비디오 방	점결방	PC방	만화 가게	기타
학교급	초	66(9.0)	-	1(0.1)	-	12(1.6)	11(1.5)	4(0.5)	130(17.8)	73(10.0)	427(58.5)
	중	211(30.8)	7(1.0)	5(0.7)	4(0.6)	139(20.3)	4(0.6)	16(2.3)	391(57.2)	169(24.7)	191(27.9)
	일반고	102(23.8)	64(15.0)	26(6.1)	12(2.8)	206(48.1)	11(2.6)	23(5.4)	206(48.1)	86(20.1)	114(26.6)
	실업고	93(35.0)	59(22.2)	15(5.6)	8(3.0)	114(42.9)	3(1.1)	16(6.0)	127(47.7)	33(12.4)	49(18.4)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50(15.6)	29(9.1)	4(1.3)	2(0.6)	93(29.1)	2(0.6)	7(2.2)	98(30.6)	46(14.4)	151(47.2)
	광역시	123(24.3)	37(7.3)	11(2.2)	6(1.2)	137(27.1)	5(1.0)	20(4.0)	223(44.1)	93(18.4)	210(41.5)
	중소도시	190(21.6)	47(5.3)	19(2.2)	10(1.1)	179(20.4)	15(1.7)	21(2.4)	351(39.9)	155(17.6)	273(31.1)
	읍면지역	109(27.0)	17(4.2)	13(3.2)	6(1.5)	62(15.4)	7(1.7)	11(2.7)	182(45.2)	67(16.6)	147(36.5)
성	남	309(27.2)	28(2.5)	13(1.1)	15(1.3)	179(15.7)	21(1.8)	31(2.7)	602(52.9)	171(15.0)	362(31.8)
	여	144(15.6)	102(11.0)	34(3.7)	9(1.0)	286(30.9)	8(0.9)	28(3.0)	224(24.2)	178(19.2)	410(44.3)
계		472(22.4)	130(6.2)	47(2.2)	24(1.1)	471(22.3)	29(1.4)	59(2.8)	854(40.5)	361(17.1)	781(37.0)

초·중·고등학생들이 하교 후 배회하며 주로 들르는 장소는 PC방(4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자오락실(22.4%)과 노래방(22.3%), 만화가게(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중학생이 PC방(57.2%)과 만화가게(24.7%)에 가장 많이 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PC방(17.8%), 전자오락실(9.0%), 노래방(1.6%) 등에 들르는 학생들이 월등히 적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PC방(45.2%)과 전자오락실(27.0%)에 가장 많이 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학생들은 노래방(29.1%)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주로 PC방(52.9%)과 전자오락실(27.2%)을, 여학생들은 노래방(30.9%)과 PC방(24.2%)을 들르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학생들간에 선호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하교 후에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며 주로 PC방과 전자오락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컴퓨터 게임,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부모들의 눈을 피해 PC방이나 전자오락실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발생과 무관하지 않고 컴퓨터,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의 욕구를 적절히 가정 안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표III-2-15>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의식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된다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전체	χ^2
학교급	초	612(85.4)	105(14.6)	717(100.0)	274.48***
	중	430(63.2)	250(36.8)	680(100.0)	
	일반고	187(43.8)	240(56.2)	427(100.0)	
	실업	111(41.9)	154(58.1)	265(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187(58.8)	131(41.2)	318(100.0)	11.41*
	광역시	314(62.1)	192(37.9)	506(100.0)	
	중소도시	590(68.1)	276(31.9)	866(100.0)	
	읍면지역	249(62.4)	150(37.6)	399(100.0)	
성	남	759(67.5)	366(32.5)	1125(100.0)	12.75***
	여	550(59.8)	369(40.2)	919(100.0)	
계		1340(64.1)	749(35.9)	2089(100.0)	

* $p < .05$, *** $p < .001$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2,089명 중 64.1%의 초·중·고등학생들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6> 학생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에 관한 학생의 인식

명(%)

구분	응답내용	자기 자신	부모님	학교 교육	친구	학교 선생님	사회환경	기타	전체	χ^2
학 교 급	초	400(55.2)	118(16.3)	29(4.0)	42(5.8)	43(5.9)	82(11.3)	10(1.4)	724(100.0)	21.90**
	중	342(51.2)	47(7.0)	32(4.8)	74(11.1)	26(3.9)	140(21.0)	7(1.0)	668(100.0)	
	일반	251(60.9)	12(2.9)	24(5.8)	25(6.1)	7(1.7)	90(21.8)	3(0.7)	412(100.0)	
	실업	150(55.4)	19(7.3)	8(3.1)	20(7.7)	6(2.3)	55(21.2)	2(0.8)	260(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186(58.7)	32(10.1)	9(2.8)	19(6.0)	12(3.8)	56(17.7)	3(0.9)	317(100.0)	30.77*
	시 광역시	277(56.1)	47(9.5)	27(5.5)	26(5.3)	20(4.0)	94(19.0)	3(0.6)	494(100.0)	
	중소도시	446(52.0)	86(10.0)	44(5.1)	84(9.8)	29(3.4)	161(18.8)	8(0.9)	858(100.0)	
	읍면지역	234(59.2)	31(7.8)	13(3.3)	32(8.1)	21(5.3)	56(14.2)	8(2.0)	395(100.0)	
성	남	621(55.9)	96(8.6)	49(4.4)	93(8.4)	45(4.1)	194(17.5)	13(1.2)	1111(100.0)	2.66
	여	496(54.6)	92(10.1)	42(4.6)	66(7.3)	35(3.9)	168(18.5)	9(1.0)	908(100.0)	
계		1143(55.4)	196(9.5)	93(4.5)	161(7.8)	82(4.0)	367(17.8)	22(1.1)	2064(100.0)	

* $p < .05$, ** $p < .01$

조사대상 초·중·고등학생들의 55.4%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환경(17.8%), 부모님(9.5%)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일반고 60.9%, 실업고 55.4%, 초등학교 55.2%, 중학교 51.2% 순으로서 전체 경향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문제행동의 가장 큰 책임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학생들이 '사회환경'에 문제행동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반수가 넘는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생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자기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행

학생들에게 최근에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행동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각각의 행동에 대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인식과, 그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의 실행 빈도를 질문하였다. 여기서 질문한 20가지 행동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II-2-17> 20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응답 결과

①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

1) 수업시간에 잠자는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 급	초등학교	649(90.4)	69(9.6)	718(100.0)	238.40***	620(89.1)	74(10.6)	2(0.3)	696(100.0)	891.54***	
	중학교	388(57.1)	291(42.9)	679(100.0)		197(29.3)	402(59.8)	73(10.9)	672(100.0)		
	일반고	245(57.5)	181(42.5)	426(100.0)		63(14.8)	256(60.1)	107(25.1)	426(100.0)		
	실업	150(57.9)	109(42.1)	259(100.0)		46(17.8)	155(60.1)	57(22.1)	258(100.0)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231(72.9)	86(27.1)	317(100.0)	9.08*	154(49.8)	131(42.4)	24(7.8)	309(100.0)	15.97*	
	광역시	321(63.8)	182(36.2)	503(100.0)		209(41.8)	221(44.2)	70(14.0)	500(100.0)		
	중소도시	606(70.2)	257(29.8)	863(100.0)		404(47.4)	359(42.1)	89(10.4)	852(100.0)		
	읍면지역	274(68.7)	125(31.3)	399(100.0)		159(40.7)	176(45.0)	56(14.3)	391(100.0)		
성	남	780(69.3)	346(30.7)	1126(100.0)	0.35	503(45.4)	476(42.9)	130(11.7)	1109(100.0)	0.04	
	여	620(68.1)	291(31.9)	911(100.0)		411(45.8)	382(42.5)	105(11.7)	898(100.0)		
계		1432(68.8)	650(31.2)	2082(100.0)		926(45.1)	887(43.2)	239(11.6)	2052(100.0)		

* $p < 0.05$, *** $p < 0.001$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동은 최근에 학교교육 효율성과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문제행동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²⁾.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과외교습을 받거나 인터넷·게임 등으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정작 학교 수업시간에는 졸거나 엎드려 자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업시간에 잠자는 행동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생의 31.2%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행동이 학생으로서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9.6%, 중학생은 42.9%, 일반고 학생은 42.5%, 실업고 학생은 42.1%로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자는 행동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행동에 대한 실행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54.8%의 학생이 가끔 혹은 자주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은 10.9%, 중학생은 70.7%, 일반고 학생은 85.2%, 실업고 학생은 82.2%가 가끔 혹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보도되었던 수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수업시간에 잠자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행 빈도를 살펴보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

2) 한국교육개발원이 2002년 전국 68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9.4%의 학생들이 ‘학원수강으로 피곤해서 학교에서 잠을 자게 된다’고 응답하였다(김양분, 2003). 또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원수업·숙제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잠잔 적이 있는 학생이 10명 중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3. 4. 30).

체적으로 68.8%인데 비해 이 행동을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5.1%인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제 행동간에 괴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과 이 행동을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②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 하기 (욕하거나 대답 안하기 등)

2)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하기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02(97.4)	19(2.6)	721(100.0)	41.23***	523(74.9)	156(22.3)	19(2.7)	698(100.0)	18.45**
	중학교	603(88.7)	77(11.3)	680(100.0)		440(66.0)	201(30.1)	26(3.9)	667(100.0)	
	일반고	387(90.6)	40(9.4)	427(100.0)		297(70.0)	112(26.4)	15(3.5)	424(100.0)	
	실업고	240(92.3)	20(7.7)	260(100.0)		173(67.6)	67(26.2)	16(6.3)	256(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	304(95.6)	14(4.4)	318(100.0)	6.88	236(76.6)	66(21.4)	6(1.9)	308(100.0)	12.91*
	대도시	457(90.7)	47(9.3)	504(100.0)		328(65.7)	152(30.5)	19(3.8)	499(100.0)	
	중소도시	801(92.6)	64(7.4)	865(100.0)		599(70.6)	215(25.4)	34(4.0)	848(100.0)	
	읍면지역	370(92.3)	31(7.7)	401(100.0)		270(69.2)	103(26.4)	17(4.4)	390(100.0)	
성	남	1046(92.6)	84(7.4)	1130(100.0)	0.04	751(67.9)	311(28.1)	44(4.0)	1106(100.0)	5.53
	여	843(92.3)	70(7.7)	913(100.0)		651(72.7)	213(23.8)	31(3.5)	895(100.0)	
계		1932(92.5)	156(7.5)	2088(100.0)		1433(70.1)	536(26.2)	76(3.7)	2045(100.0)	

* $p < .05$, ** $p < .01$, *** $p < .001$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을 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학생들이(92.5%)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97.4%)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88.7%)이 가장 낮았다. 지역과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을 하는’ 행동의 실행 빈도를 물어본 결과, 29.9%의 학생들이 가끔 혹은 자주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34.1%)이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을 하는’ 행동에 대해 학생으로서 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과 실제 행동 빈도가 중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고등학교에 가서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수업시간에 딴 짓 하는 것 (떠들고 문자 보내기 등)

3) 수업시간에 딴 짓 하는 것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구분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 교 급	초등학교	677(94.4)	40(5.6)	717(100.0)	87.07***	202.08***	385(54.9)	283(40.4)	33(4.7)	701(100.0)	
	중학교	538(79.2)	141(20.8)	679(100.0)			216(32.3)	354(52.9)	99(14.8)	669(100.0)	
	일반고	348(81.7)	78(18.3)	426(100.0)			94(22.1)	257(60.3)	75(17.6)	426(100.0)	
	실업	193(75.4)	63(24.6)	256(100.0)			53(20.7)	143(55.9)	60(23.4)	256(100.0)	
학 교 소 계 지 역	서울	267(84.2)	50(15.8)	317(100.0)	4.73	17.85**	121(39.2)	152(49.2)	36(11.7)	309(100.0)	
	광역시	409(81.8)	91(18.2)	500(100.0)			154(30.7)	272(54.3)	75(15.0)	501(100.0)	
	중소도시	744(86.2)	119(13.8)	863(100.0)			346(40.5)	400(46.8)	108(12.6)	854(100.0)	
	읍면지역	336(84.4)	62(15.6)	398(100.0)			127(32.7)	213(54.9)	48(12.4)	388(100.0)	
성 별	남	962(85.5)	163(14.5)	1125(100.0)	2.13	7.66*	422(38.1)	560(50.5)	126(11.4)	1108(100.0)	
	여	755(83.1)	153(16.9)	908(100.0)			308(34.2)	455(50.6)	137(15.2)	900(100.0)	
계		1756(84.5)	322(15.5)	2078(100.0)			748(36.5)	1037(50.5)	267(13.0)	2052(100.0)	

* $p < .05$, ** $p < .01$, *** $p < .001$

‘수업시간에 딴 짓 하는 것’에 대하여 84.5%의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 94.4%, 중학생 79.2%, 일반고 학생 81.7%, 실업고 학생 75.4%로 나타나 초등학교가 가장 엄격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딴 짓 하는’ 행동의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63.5%가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응답하여 생각과는 다르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잡담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며(초등학교 45.1%, 중학생 67.7%, 일반고 학생 77.9%, 실업고 학생 79.3%), 지역별로는 광역시의 학생들(69.3%)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들(61.9%)보다 여학생들(65.8%)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④ 지각, 결석

4) 지각, 결석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604(84.0)	115(16.0)	719(100.0)	32.68***	516(73.8)	157(22.5)	26(3.7)	699(100.0)	11.83	
	중학교	498(73.3)	181(26.7)	679(100.0)		481(72.0)	163(24.4)	24(3.6)	668(100.0)		
	일반고	305(71.4)	122(28.6)	427(100.0)		297(70.5)	101(24.0)	23(5.5)	421(100.0)		
	실업고	197(75.8)	63(24.2)	260(100.0)		167(65.2)	70(27.3)	19(7.4)	256(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	257(80.8)	61(19.2)	318(100.0)	3.67	218(70.6)	77(24.9)	14(4.5)	309(100.0)	5.38	
	광역시	379(75.2)	125(24.8)	504(100.0)		350(70.4)	117(23.5)	30(6.0)	497(100.0)		
	중소도시	663(76.8)	200(23.2)	863(100.0)		605(71.2)	212(24.9)	33(3.9)	850(100.0)		
	읍면지역	305(76.3)	95(23.8)	400(100.0)		288(74.2)	85(21.9)	15(3.9)	388(100.0)		
성	남	888(78.6)	242(21.4)	1130(100.0)	3.13	781(70.6)	271(24.5)	55(5.0)	1107(100.0)	1.37	
	여	685(75.3)	225(24.7)	910(100.0)		646(72.4)	210(23.5)	36(4.0)	892(100.0)		
계		1604(76.9)	481(23.1)	2085(100.0)		1461(71.5)	491(24.0)	92(4.5)	2044(100.0)		

*** $p < .001$

‘지각과 결석’의 경우 76.5%의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4.0%)이 중·고등학교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각과 결석’ 행동의 경우 전체 학생의 71.5%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행 여부가 일치하는 편이라고 하겠다.

⑤ 부모님 속이기 (용돈, 신용카드 몰래 사용 등)

5) 부모님 속이기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7(99.4)	4(0.6)	721(100.0)	32.33***	675(97.7)	15(2.2)	1(0.1)	691(100.0)	154.97***	
	중학교	660(96.9)	21(3.1)	681(100.0)		584(87.8)	72(10.8)	9(1.4)	665(100.0)		
	일반고	401(94.1)	25(5.9)	426(100.0)		337(79.5)	78(18.4)	9(2.1)	424(100.0)		
	실업	247(94.3)	15(5.7)	262(100.0)		182(71.4)	60(23.5)	13(5.1)	255(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	309(97.2)	9(2.8)	318(100.0)	0.22	278(90.6)	27(8.8)	2(0.7)	307(100.0)	10.16	
	대도시 광역시	487(96.6)	17(3.4)	504(100.0)		435(87.3)	55(11.0)	8(1.6)	498(100.0)		
	중소도시	839(96.9)	27(3.1)	866(100.0)		743(88.1)	87(10.3)	13(1.5)	843(100.0)		
	읍면지역	390(97.0)	12(3.0)	402(100.0)		322(83.2)	56(14.5)	9(2.3)	387(100.0)		
성	남	1092(96.6)	39(3.4)	1131(100.0)	0.60	975(88.6)	108(9.8)	18(1.6)	1101(100.0)	3.59	
	여	888(97.2)	26(2.8)	914(100.0)		767(86.1)	111(12.5)	13(1.5)	891(100.0)		
계		2025(96.9)	65(3.1)	2090(100.0)		1778(87.4)	225(11.1)	32(1.6)	2035(100.0)		

*** $p < .001$

‘부모님을 속이는 행동(용돈이나 신용카드 몰래 사용하기, 거짓말하기 등)’에 대하여 96.9%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을 속이는 행동’의 정도는 12.7%의 학생들이 가끔 혹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많아지며 실업고 학생들(28.6%)이 ‘부모님을 속이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잠자기’,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하기’, ‘수업시간에 딴 짓 하기’, ‘지각·무단결석’, ‘부모님 속이기’는 학교생활이나 교사, 부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행동들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 하기, 지각 및 결석하기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부모님 속이기 등 교사와 부모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각·무단결석을 제외한 다른 권위반항형 행동들의 경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은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⑥ 용의 복장 위반 (머리염색, 화장, 귀걸이 착용 등)

6) 용의 복장 위반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485(67.7)	231(32.3)	716(100.0)	22.84***	504(72.6)	140(20.2)	50(7.2)	694(100.0)	58.39***
	중학교	513(75.4)	167(24.6)	680(100.0)		583(87.4)	69(10.3)	15(2.2)	667(100.0)	
	일반고	266(62.3)	161(37.7)	427(100.0)		322(75.8)	86(20.2)	17(4.0)	425(100.0)	
	실업고	177(68.1)	83(31.9)	260(100.0)		185(72.5)	58(22.7)	12(4.7)	255(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대도시	205(64.7)	112(35.3)	317(100.0)	6.57	224(72.0)	68(21.9)	19(6.1)	311(100.0)	13.02*
	광역시광역시	340(67.6)	163(32.4)	503(100.0)		386(78.3)	79(16.0)	28(5.7)	493(100.0)	
	중소도시	621(71.9)	243(28.1)	864(100.0)		685(80.7)	135(15.9)	29(3.4)	849(100.0)	
	읍면지역	275(68.9)	124(31.1)	399(100.0)		299(77.1)	71(18.3)	18(4.6)	388(100.0)	
성	남	841(74.6)	287(25.4)	1128(100.0)	35.99***	942(85.3)	134(12.1)	28(2.5)	1104(100.0)	81.75***
	여	566(62.2)	344(37.8)	910(100.0)		613(68.6)	215(24.1)	65(7.3)	893(100.0)	
계		1441(69.2)	642(30.8)	2083(100.0)		1594(78.1)	353(17.3)	94(4.6)	2041(100.0)	

* $p < .05$, *** $p < .001$

학생에게 어울리는 ‘용의 복장을 위반’하는 행동의 경우 전체 학생의 69.2%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보면, 중학생들이 ‘용의 복장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와 실제로 ‘용의 복장 위반’을 한 행동에 있어서 중학생들(87.4%)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른 문제행동의 경우 초등학교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용의 복장’에 대해서는 중학생들이 가장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생들이 중·고등학교생에 비해 적은 이유는 용의 복장이 자유로우며 중학교에 들어서부터 교복을 착용하고 머리 모양이나 의복 등에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의 복장 위반’에 대해서는 여학생들(37.8%)이 남학생들(25.4%)보다 더 허용적인 인식(해도 된다)을 갖고 있으며 행동 정도에 있어서도 ‘위반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85.3%)보다 여학생(68.6%)이 낮게 나타나 여학생들이 더 용의 복장 위반을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⑦ 유흥업소 출입 (성인전용 노래방, 디스코텍, 술집, 비디오방 등)

7) 유흥업소 출입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도 된다				해도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9(99.7)	2(0.3)	721(100.0)	150.11***	680(98.6)	10(1.4)	-	690(100.0)
	중학교	648(95.2)	33(4.8)	681(100.0)		638(95.8)	21(3.2)	7(1.1)	666(100.0)
	일반고	368(86.2)	59(13.8)	427(100.0)		354(83.7)	57(13.5)	12(2.8)	423(100.0)
	실업고	209(80.4)	51(19.6)	260(100.0)		181(71.3)	57(22.4)	16(6.3)	254(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03(95.3)	15(4.7)	318(100.0)	3.65	291(94.8)	15(4.9)	1(0.3)	307(100.0)
	광역시	461(91.8)	41(8.2)	502(100.0)		441(88.9)	43(8.7)	12(2.4)	496(100.0)
	중소도시	807(93.1)	60(6.9)	867(100.0)		779(92.2)	54(6.4)	12(1.4)	845(100.0)
	읍면지역	373(92.8)	29(7.2)	402(100.0)		342(88.8)	33(8.6)	10(2.6)	385(100.0)
성	남	1057(93.5)	73(6.5)	1130(100.0)	1.32	1023(93.0)	59(5.4)	18(1.6)	1100(100.0)
	여	843(92.2)	71(7.8)	914(100.0)		789(87.7)	84(9.4)	17(1.9)	890(100.0)
계		1944(98.1)	145(6.9)	2089(100.0)		1853(91.1)	145(7.1)	35(1.7)	2033(100.0)

* $p < .05$, ** $p < .01$, *** $p < .001$

학생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행동인 ‘유흥업소 출입(성인전용 노래방, 디스코텍, 술집, 비디오방 등)’에 대해 전체 학생의 93.1%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99.7%, 중학생은 95.2%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응답한 데에 비해 고등학생(일반계 86.2%, 실업계 80.4%)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출입’ 행동의 정도에서는 학교급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초등학생(1.4%), 중학생(4.3%)에 비해 고등학생(일반계 16.3%, 실업계 28.7%)이 가끔 혹은 자주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실업고 학생들의 행동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11.1%)와 읍면지역(11.2%)의 학생들이 ‘유흥업소출입’을 더 많이 하며, 남학생(7.0%)보다는 여학생(11.3%)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자살 시도

8) 자살 시도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 급	초등학교	712(98.6)	10(1.4)	722(100.0)	34.38***	670(97.1)	19(2.8)	1(0.1)	690(100.0)	11.60
	중학교	658(96.5)	24(3.5)	682(100.0)		643(96.5)	21(3.2)	2(0.3)	666(100.0)	
	일반고	392(91.8)	35(8.2)	427(100.0)		399(94.3)	20(4.7)	4(0.9)	423(100.0)	
	실업	247(94.6)	14(5.4)	261(100.0)		239(93.7)	13(5.1)	3(1.2)	255(100.0)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307(96.5)	11(3.5)	318(100.0)	3.38	290(94.2)	17(5.5)	1(0.3)	308(100.0)	8.58
	광역시	481(95.2)	24(4.8)	505(100.0)		473(95.6)	19(3.8)	3(0.6)	495(100.0)	
	중소도시	840(96.8)	28(3.2)	868(100.0)		818(96.9)	24(2.8)	2(0.2)	844(100.0)	
	읍면지역	381(95.0)	20(5.0)	401(100.0)		370(95.6)	13(3.4)	4(1.0)	387(100.0)	
성	남	1080(96.6)	50(4.4)	1130(100.0)	0.89	1064(96.6)	32(2.9)	5(0.5)	1101(100.0)	3.69
	여	884(96.4)	33(3.6)	917(100.0)		845(94.9)	40(4.5)	5(0.6)	890(100.0)	
계		2009(96.0)	83(4.0)	2092(100.0)		1951(95.9)	73(3.6)	10(0.5)	2034(100.0)	

*** $p < .001$

‘자살 시도’는 극단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의 학생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님을 속이는 행동’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응답 결과는 학교급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살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98.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고 학생(91.8%)이 가장 낮았다.

‘자살 시도’ 행동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도 전체 학생의 4.1%가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인식과 실제 행동하는 비율과 일치하고 있다.

학교 소재 지역별,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⑨ 집단 괴롭힘 (왕따 시키기 등)

9) 집단 괴롭힘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도 된다				거의 하지 않는다			
		해서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 급	초등학교	715(99.0)	7(1.0)	722(100.0)	24.98***	631(91.7)	56(8.1)	1(0.1)	688(100.0)
	중학교	645(94.6)	37(5.4)	682(100.0)		604(90.6)	59(8.8)	4(0.6)	667(100.0)
	일반 고	408(95.3)	20(4.7)	428(100.0)		403(95.3)	17(4.0)	3(0.7)	423(100.0)
	실업	256(97.7)	6(2.3)	262(100.0)		243(95.3)	12(4.7)	-	255(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313(98.1)	6(1.9)	319(100.0)	4.54	286(93.2)	21(6.8)	-	307(100.0)
	도 광역 시	489(96.8)	16(3.2)	505(100.0)		457(92.3)	34(6.9)	4(0.8)	495(100.0)
	중소도시	839(96.7)	29(3.3)	868(100.0)		779(92.2)	64(7.6)	2(0.2)	845(100.0)
	읍면지역	383(95.3)	19(4.7)	402(100.0)		359(93.0)	25(6.5)	2(0.5)	386(100.0)
성	남	1092(96.6)	39(3.4)	1131(100.0)	0.13	1015(92.3)	80(7.3)	5(0.5)	1100(100.0)
	여	889(96.8)	29(3.2)	918(100.0)		825(92.8)	61(6.9)	3(0.3)	889(100.0)
계		2024(96.7)	70(3.3)	2094(100.0)		1881(92.5)	144(7.1)	8(0.4)	2033(100.0)

* $p < .05$, *** $p < .001$

최근 학생들의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인 ‘집단 괴롭힘(왕따 시키기)’ 행동에 대하여 대다수의 학생들(96.7%)은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99.0%가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94.6%, 일반고 학생은 95.3%, 실업고 학생도 97.7%가 ‘집단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 괴롭힘(왕따시키기)’을 실제로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의 7.5%가 가끔 혹은 자주 이 행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8.2%)과 중학생(9.4%)이 일반계(4.7%), 실업계(4.7%) 고등학생보다 ‘집단 괴롭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제행동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생은 각 문제행동들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학교급 학생들에 비해 높았을 뿐 아니라 문제행동 실행 정도도 가장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집단 괴롭힘(왕따 시키기)’ 행동은 초·중학생들의 실행 정도가 높은 것이 특기할 만 하다.

⑩ 절도 및 금품갈취

10) 절도 및 금품갈취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9(99.7)	2(0.3)	721(100.0)	5.58	685(99.7)	1(0.1)	1(0.1)	687(100.0)	12.28
	중학교	671(98.7)	9(1.3)	680(100.0)		655(98.5)	7(1.1)	3(0.5)	665(100.0)	
	일반고	423(99.1)	4(0.9)	427(100.0)		414(98.1)	4(0.9)	4(0.9)	422(100.0)	
	실업	260(98.5)	4(1.5)	264(100.0)		244(97.6)	5(2.0)	1(0.4)	250(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17(99.7)	1(0.3)	318(100.0)	1.96	305(99.7)	1(0.3)	-	306(100.0)	6.58
	광역시	499(98.8)	6(1.2)	505(100.0)		488(98.8)	4(0.8)	2(0.4)	494(100.0)	
	중소도시	859(99.0)	9(1.0)	868(100.0)		829(98.8)	7(0.8)	3(0.4)	839(100.0)	
	읍면지역	398(99.3)	3(0.7)	401(100.0)		376(97.7)	5(1.3)	4(1.0)	385(100.0)	
성	남	1116(98.7)	15(1.3)	1131(100.0)	4.37*	1076(98.0)	14(1.3)	8(0.7)	1098(100.0)	9.20*
	여	913(99.6)	4(0.4)	917(100.0)		880(99.5)	3(0.3)	1(0.1)	884(100.0)	
계		2073(99.1)	19(0.9)	2092(100.0)		1998(98.7)	17(0.8)	9(0.4)	2024(100.0)	

* $p < .05$

‘절도 및 금품갈취’ 행동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99.1%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역시 대다수의 학생(98.7%)들이 실제로 이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경향은 성별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98.7%)보다 여학생(99.6%)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절도 및 금품갈취 행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⑪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11)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거의 하지 않는다				χ^2
		해도 된다	전체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학교 급	초등학교	715(99.3)	5(0.7)	720(100.0)	123.12***	686(99.6)	3(0.4)	-	689(100.0)	50.26***
	중학교	625(91.9)	55(8.1)	680(100.0)		646(97.1)	14(2.1)	5(0.8)	665(100.0)	
	일반고	348(81.3)	80(18.7)	428(100.0)		394(92.9)	22(5.2)	8(1.9)	424(100.0)	
	실업	229(86.7)	35(13.3)	264(100.0)		234(92.9)	16(6.3)	2(0.8)	252(100.0)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298(93.4)	21(6.6)	319(100.0)	2.30	300(97.7)	6(2.0)	1(0.3)	307(100.0)	8.89
	광역시	456(90.5)	48(9.5)	504(100.0)		476(96.0)	18(3.6)	2(0.4)	496(100.0)	
	중소도시	796(91.8)	71(8.2)	867(100.0)		816(97.1)	18(2.1)	6(0.7)	840(100.0)	
	읍면지역	367(91.3)	35(8.7)	402(100.0)		368(95.1)	13(3.4)	6(1.6)	387(100.0)	
성	남	1024(90.6)	106(9.4)	1130(100.0)	2.84	1056(95.8)	32(2.9)	14(1.3)	1102(100.0)	9.39**
	여	851(92.7)	67(7.3)	918(100.0)		864(97.5)	21(2.4)	1(0.1)	886(100.0)	
계		1917(91.6)	175(8.4)	2092(100.0)		1960(96.6)	55(2.7)	15(0.7)	2030(100.0)	

** $p < .01$, *** $p < .001$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행동에 대해서 91.6%의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99.3%, 중학생 91.9%, 일반고 학생 81.3%, 실업고 학생 86.7%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지며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더 그런 경향을 보였다.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행동에 대한 경험 정도는 전체의 3.4%가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응답하여 학생으로서 해도 된다는 인식(8.4%)보다 경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행동 경험 정도에 대한 남녀 학생들의 응답경향을 살펴보면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응답하는 남학생(4.2%)들이 여학생(2.5%)보다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⑫ 성추행

12) 성추행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21(99.9)	1(0.1)	722(100.0)	13.49**	687(99.7)	2(0.3)	-	689(100.0)	8.04
	중학교	667(97.9)	14(2.1)	681(100.0)		657(98.8)	3(0.5)	5(0.8)	665(100.0)	
	일반고	425(99.3)	3(0.7)	428(100.0)		419(99.3)	-	3(0.7)	422(100.0)	
	실업고	261(98.9)	3(1.1)	264(100.0)		250(99.2)	-	2(0.8)	252(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18(99.7)	1(0.3)	319(100.0)	3.97	306(99.7)	-	1(0.3)	307(100.0)	10.39
	광역시	501(99.2)	4(0.8)	505(100.0)		490(99.0)	3(0.6)	2(0.4)	495(100.0)	
	중소도시	860(99.0)	9(1.0)	869(100.0)		838(99.6)	1(0.1)	2(0.2)	841(100.0)	
	읍면지역	395(98.3)	7(1.7)	402(100.0)		379(98.4)	1(0.3)	5(1.3)	385(100.0)	
성	남	1111(98.2)	20(1.8)	1131(100.0)	13.79***	1084(98.6)	5(0.5)	10(0.9)	1099(100.0)	12.20**
	여	919(99.9)	1(0.1)	920(100.0)		887(100.0)	-	-	887(100.0)	
계		2074(99.0)	21(1.0)	2095(100.0)		2013(99.3)	5(0.2)	10(0.5)	2028(100.0)	

** $p < 0.01$, *** $p < 0.001$

‘성추행’ 행동은 대다수의 학생들(99.0%)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학생도 99.3%으로서 인식과 경험이 거의 일치됨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학생들이 97.9%로서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에 비해 낮았다.

‘성추행’ 행동에 대하여는 남녀 학생의 인식과 행동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1.8%)이 여학생(0.1%)보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실제 행동 정도에서도 여학생들은 성추행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1.4%가 가끔 혹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⑬ 성매매

13) 성매매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도 된다				해도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χ^2
학교급	초등학교	722(100.0)	-	722(100.0)	12.84**	687(99.7)	2(0.3)	-	689(100.0)
	중학교	669(98.2)	12(1.8)	681(100.0)		658(98.9)	3(0.5)	4(0.6)	665(100.0)
	일반고	424(99.1)	4(0.9)	428(100.0)		418(99.1)	1(0.2)	3(0.7)	422(100.0)
	실업고	262(99.2)	2(0.8)	264(100.0)		249(99.2)	1(0.4)	1(0.4)	251(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18(99.7)	1(0.3)	319(100.0)	2.07	306(99.7)	-	1(0.3)	307(100.0)
	광역시	501(99.2)	4(0.8)	505(100.0)		490(99.0)	4(0.8)	1(0.2)	495(100.0)
	중소도시	869(98.8)	10(1.2)	869(100.0)		838(99.8)	-	2(0.2)	840(100.0)
	읍면지역	399(99.3)	3(0.7)	402(100.0)		378(98.2)	3(0.8)	4(1.0)	385(100.0)
성	남	1114(98.5)	17(1.5)	1131(100.0)	11.34**	1084(98.6)	7(0.6)	8(0.7)	1099(100.0)
	여	919(99.9)	1(0.1)	920(100.0)		886(100.0)	-	-	886(100.0)
계		2077(99.1)	18(0.9)	2095(100.0)		2012(99.3)	7(0.3)	8(0.4)	2027(100.0)

* $p < .05$, ** $p < .01$

‘성매매’ 행동에 대해서도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99.1%)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99.3%)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100.0%)들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일반계 99.1%, 실업계 99.2%)보다 중학생(98.2%)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 ‘성매매’ 행동이 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 행동에 대해서도 남학생(1.5%)이 여학생(0.1%)보다 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실제 행동 정도도 여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이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1.3%가 가끔 혹은 자주 ‘성매매’ 행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성추행’에 대한 응답 경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⑭ 성폭력

14) 성폭력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21(99.9)	1(0.1)	722(100.0)	15.50**	687(99.7)	2(0.3)	-	689(100.0)	6.07
	중학교	668(98.1)	13(1.9)	681(100.0)		658(98.9)	4(0.6)	3(0.5)	665(100.0)	
	일반고	426(99.5)	2(0.5)	428(100.0)		417(99.0)	1(0.2)	3(0.7)	421(100.0)	
	실업	263(99.6)	1(0.4)	264(100.0)		249(98.8)	1(0.4)	2(0.8)	252(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대도시	317(99.4)	2(0.6)	319(100.0)	1.23	306(99.7)	-	1(0.3)	307(100.0)	8.87
	광역시	501(99.2)	4(0.8)	505(100.0)		491(99.2)	3(0.6)	1(0.2)	495(100.0)	
	중소도시	863(99.3)	6(0.7)	869(100.0)		836(99.5)	2(0.2)	2(0.2)	840(100.0)	
	읍면지역	397(98.8)	5(1.2)	402(100.0)		378(98.2)	3(0.8)	4(1.0)	385(100.0)	
성	남	1116(98.7)	15(1.3)	1131(100.0)	7.59**	1085(98.8)	5(0.5)	8(0.7)	1098(100.0)	6.67*
	여	918(99.8)	2(0.2)	920(100.0)		884(99.7)	3(0.3)	-	887(100.0)	
계		2078(99.2)	17(0.8)	2095(100.0)		2011(99.2)	8(0.4)	8(0.4)	2027(100.0)	

* $p < .05$, ** $p < .01$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99.2%가 '성폭력'에 대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8.1%로 다른 학교급 학생들에 비해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행동 경험 정도에 대해서도 전체의 99.2%의 학생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인식과 실제 행동과 일치되고 있다.

남녀 학생별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98.7%, 여학생이 99.8%로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 경험 정도에 대해서도 남학생의 1.2%가 가끔 혹은 자주 한다는 응답을 하여 여학생(0.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등 성 관련 문제행동에 대해서 대다수(99% 이상)의 학생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 관련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실제 행동의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많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⑮ 폭력

15) 폭력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4(99.0)	7(1.0)	721(100.0)	29.37***	656(94.9)	34(4.9)	1(0.1)	691(100.0)	12.89*
	중학교	649(95.3)	32(4.7)	681(100.0)		622(93.5)	38(5.7)	5(0.8)	665(100.0)	
	일반고	406(94.9)	22(5.1)	428(100.0)		405(96.0)	15(3.6)	2(0.5)	422(100.0)	
	실업고	242(92.4)	20(7.6)	262(100.0)		232(91.3)	22(8.7)	-	254(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08(96.6)	11(3.4)	319(100.0)	7.26	296(96.7)	9(2.9)	1(0.3)	306(100.0)	6.54
	서울광역시	475(94.2)	29(5.8)	504(100.0)		466(93.6)	30(6.0)	2(0.4)	498(100.0)	
	중소도시	843(97.1)	25(2.9)	868(100.0)		790(93.8)	50(5.9)	2(0.2)	842(100.0)	
	읍면지역	385(96.0)	16(4.0)	401(100.0)		363(94.0)	20(5.2)	3(0.8)	386(100.0)	
성	남	1077(95.4)	52(4.6)	1129(100.0)	2.81	1003(91.1)	91(8.3)	7(0.6)	1101(100.0)	42.40***
	여	890(96.8)	29(3.2)	919(100.0)		871(98.0)	17(1.9)	1(0.1)	889(100.0)	
계		2011(96.1)	81(3.9)	2092(100.0)		1915(94.2)	109(5.4)	8(0.4)	2032(100.0)	

* $p < .05$, *** $p < .001$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96.1%가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99.0%, 중학생 95.3%, 일반고 학생 94.9%, 실업고 학생 92.4%의 순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실업고 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지역과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폭력’ 행동에 대한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94.2%의 학생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6.0%로 가장 높았으며, 실업고 학

생이 91.3%로 가장 낮았다. ‘폭력’ 행동을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5.0%로 일반고 학생(4.1%)보다 높았다. 실업고 학생(8.7%)이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에 비해 가끔 혹은 자주 ‘폭력’ 행동을 실행한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별로는 남학생(8.9%)이 여학생(2.0%)보다 가끔 혹은 자주 ‘폭력’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기 및 공공기물 파손

16)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기 및 공공기물 파손 행위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3(99.0)	7(1.0)	720(100.0)	24.76***	635(91.8)	54(7.8)	3(0.4)	692(100.0)	45.23***	
	중학교	649(95.3)	32(4.7)	681(100.0)		538(80.7)	117(17.5)	12(1.8)	667(100.0)		
	일반고	401(94.1)	25(5.9)	426(100.0)		356(84.0)	60(14.2)	8(1.9)	424(100.0)		
	실업고	255(97.3)	7(2.7)	262(100.0)		202(80.2)	49(19.4)	1(0.4)	252(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09(96.9)	10(3.1)	319(100.0)	1.26	264(85.7)	40(13.0)	4(1.3)	308(100.0)	4.79	
	광역시	482(95.8)	21(4.2)	503(100.0)		423(84.6)	69(13.8)	8(1.6)	500(100.0)		
	중소도시	839(96.8)	28(3.2)	867(100.0)		727(86.3)	108(12.8)	7(0.8)	842(100.0)		
	읍면지역	388(97.0)	12(3.0)	400(100.0)		317(82.3)	63(16.4)	5(1.3)	385(100.0)		
성	남	1087(96.5)	40(3.5)	1127(100.0)	0.04	917(83.3)	170(15.4)	14(1.3)	1101(100.0)	6.44*	
	여	886(96.6)	31(3.4)	917(100.0)		778(87.3)	103(11.6)	10(1.1)	891(100.0)		
계		2018(96.6)	71(3.4)	2089(100.0)		1731(85.1)	280(13.8)	24(1.2)	2035(100.0)		

* $p < .05$, *** $p < .001$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기 및 공공기물 파손’ 행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96.6%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99.0%, 중학생은 95.3%, 일반고 학생은 94.1%, 실업고 학생은 97.3%가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이 학생으

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고 학생과 실업고 학생 간에 응답율의 차이를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에 대한 경험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15.0%의 학생들이 가끔 혹은 자주 행동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19.3%)과 실업고 학생(19.8%)은 거의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고 학생의 경우 이 행동이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았으나 실제 경험한 행동 정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행동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남녀 학생별로는 남학생(16.7%)이 여학생(12.7%)보다 행동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⑰ 약물복용 (본드, 니스, 마약 등)

17) 약물복용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안 된다	해도 된다			안 한다	한다				
학교급	초등학교	719(99.6)	3(0.4)	722(100.0)	6.60	689(100.0)	-	-	-	689(100.0)	8.58
	중학교	672(98.5)	10(1.5)	682(100.0)		658(99.1)	3(0.5)	3(0.5)	3(0.5)	664(100.0)	
	일반고	424(99.5)	2(0.5)	426(100.0)		417(98.8)	2(0.5)	3(0.7)	3(0.7)	422(100.0)	
	실업고	263(99.6)	1(0.4)	264(100.0)		248(98.8)	2(0.8)	1(0.4)	1(0.4)	251(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18(99.7)	1(0.3)	319(100.0)	2.74	307(99.7)	1(0.3)	-	-	308(100.0)	11.83
	광역시	499(98.8)	6(1.2)	505(100.0)		491(99.4)	2(0.4)	1(0.2)	1(0.2)	494(100.0)	
	중소도시	863(99.4)	5(0.6)	868(100.0)		836(99.6)	-	3(0.4)	3(0.4)	839(100.0)	
	읍면지역	398(99.0)	4(1.0)	402(100.0)		378(98.2)	4(1.0)	3(0.8)	3(0.8)	385(100.0)	
성	남	1116(98.8)	14(1.2)	1130(100.0)	6.82**	1085(98.8)	6(0.5)	7(0.6)	7(0.6)	1098(100.0)	8.31*
	여	917(99.8)	2(0.2)	919(100.0)		884(99.9)	1(0.1)	-	-	885(100.0)	
계		2078(99.2)	16(0.8)	2094(100.0)		2012(99.3)	7(0.3)	7(0.3)	7(0.3)	2026(100.0)	

* $p < .05$, ** $p < .01$

‘약물(유해, 환각성)복용’ 행동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99.2%)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거의 하지 않는 것(99.3%)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학교소재 지역별로는 응답 경향에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았으며(남학생 98.8%, 여학생 99.8%)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실제 경험 행동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남학생 98.8%, 여학생 99.9%).

⑬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촉

18)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촉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20(99.7)	2(0.3)	722(100.0)	158.72***		688(99.7)	2(0.3)	-	690(100.0)	235.85***
	중학교	601(88.3)	80(11.7)	681(100.0)			552(82.8)	98(14.7)	17(2.5)	667(100.0)	
	일반고	329(77.0)	98(23.0)	427(100.0)			285(67.1)	118(27.8)	22(5.2)	425(100.0)	
	실업	235(89.4)	28(10.6)	263(100.0)			216(85.7)	33(13.1)	3(1.2)	252(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04(95.3)	15(4.7)	319(100.0)	14.27**		284(92.2)	23(7.5)	1(0.3)	308(100.0)	19.51**
	광역시	441(87.3)	64(12.7)	505(100.0)			408(82.4)	76(15.4)	11(2.2)	495(100.0)	
	중소도시	782(90.1)	86(9.9)	868(100.0)			727(86.1)	96(11.4)	21(2.5)	844(100.0)	
	읍면지역	358(89.3)	43(10.7)	401(100.0)			322(83.2)	56(14.5)	9(2.3)	387(100.0)	
성	남	976(86.4)	153(13.6)	1129(100.0)	31.79***		853(77.4)	216(19.6)	33(3.0)	1102(100.0)	122.89***
	여	864(94.0)	55(6.0)	919(100.0)			845(95.1)	35(3.9)	9(1.0)	889(100.0)	
계		1885(90.1)	208(9.9)	2093(100.0)			1741(85.6)	251(12.3)	42(2.1)	2034(100.0)	

** $p < .01$, *** $p < .001$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촉’ 행위는 전체의 90.1%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85.6%의 학생들은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촉’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행동에 대해서

는 일반고 학생들이 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23.0%)과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응답한 비율(32.9%)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소재 학교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속’ 해서는 안 되며(95.3%), 실제로 거의 하지 않는다(92.2%)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속’에 대해 더 허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해도 된다’ 13.6%), 더 자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가끔 혹은 자주 22.6%)으로 나타났다.

⑨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 (자살, 폭탄제조사이트 등)

19)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7(99.4)	4(0.6)	721(100.0)	56.57***	686(99.6)	3(0.4)	-	689(100.0)	29.25***	
	중학교	671(98.5)	10(1.5)	681(100.0)		658(98.9)	4(0.6)	3(0.5)	665(100.0)		
	일반고	396(92.7)	31(7.3)	427(100.0)		404(95.5)	14(3.3)	5(1.2)	423(100.0)		
	실업고	258(98.1)	5(1.9)	263(100.0)		246(97.2)	5(2.0)	2(0.8)	253(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16(99.1)	3(0.9)	319(100.0)	6.07	305(99.0)	3(1.0)	-	308(100.0)	14.11*	
	광역시	493(97.6)	12(2.4)	505(100.0)		488(99.0)	4(0.8)	1(0.2)	493(100.0)		
	중소도시	848(97.7)	20(2.3)	868(100.0)		829(98.5)	9(1.1)	4(0.5)	842(100.0)		
	읍면지역	385(96.3)	15(3.8)	400(100.0)		372(96.1)	10(2.6)	5(1.3)	387(100.0)		
성	남	1094(97.0)	34(3.0)	1128(100.0)	3.45	1075(97.8)	14(1.3)	10(0.9)	1099(100.0)	8.14*	
	여	903(98.3)	16(1.7)	919(100.0)		876(98.6)	12(1.4)	-	888(100.0)		
계		2042(97.6)	50(2.4)	2092(100.0)		1994(98.2)	26(1.3)	10(0.5)	2030(100.0)		

* $p < .05$, *** $p < .001$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자살, 폭탄제조사이트 등)’ 행동은 97.6%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98.2%의 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큰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급에 비해 일반고 학생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7.3%) 실제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4.5%) 것으로 나타났다.

㉑ 사이버 범죄

20) 사이버 범죄 행동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의 인식 및 행동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전체	χ^2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6(99.2)	6(0.8)	722(100.0)	19.38***	684(99.1)	6(0.9)	-	690(100.0)	28.52***	
	중학교	651(95.5)	31(4.5)	682(100.0)		631(94.7)	29(4.4)	6(0.9)	666(100.0)		
	일반고	409(95.8)	18(4.2)	427(100.0)		396(93.6)	23(5.4)	4(0.9)	423(100.0)		
	실업고	254(96.9)	8(3.1)	262(100.0)		241(95.3)	9(3.6)	3(1.2)	253(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17(99.4)	2(0.6)	319(100.0)	9.35*	306(99.4)	2(0.6)	-	308(100.0)	13.34*	
	광역시	489(97.0)	15(3.0)	504(100.0)		476(96.2)	16(3.2)	3(0.6)	495(100.0)		
	중소도시	841(96.8)	28(3.2)	869(100.0)		807(95.7)	30(3.6)	6(0.7)	843(100.0)		
	읍면지역	383(95.5)	18(4.5)	401(100.0)		363(94.0)	19(4.9)	4(1.0)	386(100.0)		
성	남	1084(96.0)	45(4.0)	1129(100.0)	6.98**	1040(94.5)	48(4.4)	13(1.2)	1101(100.0)	20.15***	
	여	901(98.0)	18(2.0)	919(100.0)		871(98.1)	17(1.9)	-	888(100.0)		
계		2030(97.0)	63(3.0)	2093(100.0)		1952(96.1)	67(3.3)	13(0.6)	2032(100.0)		

* $p < .05$, ** $p < .01$, *** $p < .001$

‘아이디 도용, 허위정보 유포, 스팸메일 발송 등의 사이버 범죄’ 행동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97.0%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99.2%, 중학생은 95.5%, 일반고 학생은 95.8%, 실업고 학생은 96.9%로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실제 ‘사이버 범죄’ 행동을 가끔 혹은 자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5.3%였으며, 일반고 학생(6.3%)의 ‘사이버

범죄' 행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학생들(5.9%)이, 또한 남학생(5.6%)이 여학생(1.9%)보다 이 행동을 가끔 혹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에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행동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 행동정도는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가정분위기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대부분의 문제행동에서 '해도 된다'에 반응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자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에 따라 그 문제행동을 '해도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실제행동이 동시에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수업시간에 잠 자는 것',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하기', '수업시간에 딴 짓 하기', '지각 · 결석', '부모님 석이기', '유흥업소 출입하기' 등 공부와 관련한 행동과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또한 '집단 괴롭힘', '이성과의 성접촉', '폭력',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피우기와 공공기물 파괴' 등 사회적 문제행동들이다.

그러나 '자살시도'와 '절도 및 금품갈취'와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들은 가정의 만족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반면, 학교생활의 만족도와는 높은 관련을 나타내었다. 즉,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한 학생일수록 '자살시도'와 '절도 및 금품갈취' 행동에 대해 더 많이 '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동시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추행',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관련 문제행동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해도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이버 문제행동들은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실제로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실제 행동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주된 삶의 장소인 가정과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보다 큰 만족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문제행동의 경험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한 문제행동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첫째는 5가지의 문제행동 유형³⁾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횟수를 응답하게 하는 방식이었으며, 둘째는 여러 가지 나열된 문제행동들 중 학생이 경험했던 행동을 선택하여 그 행동의 처음 경험시기와 처음 경험시 이유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① 5가지 문제행동 유형별 경험 여부

㉞ 과거 문제행동 경험 여부

전체 조사대상 2,086명의 초·중·고등학생들 중 74.9%가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중에서 어떠한 가지도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5가지 문제행동 유형 : 이 연구는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5개 연구기관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 하에 협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 중 특별히 '학교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는 연구임. 여기에 제시된 5가지 문제행동 유형은 연구진에 의해 선정된 것은 아니며,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5개 기관이 모두 공통으로 취하여 조사하기 위해 제공된 것임.

<표 III-2-18> 과거 문제행동 경험 여부

1) 가출·음주·흡연·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경험 여부
명(%)

구분 \ 응답내용		아니오	예	전체	χ^2
학 교 급	초등학교	675(94.0)	43(6.0)	718(100.0)	412.70***
	중학교	549(81.1)	128(18.9)	677(100.0)	
	일반고	229(53.9)	196(46.1)	425(100.0)	
	실업고	110(41.4)	156(58.6)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236(74.0)	83(26.0)	319(100.0)	6.87
	도 광역시	368(73.2)	135(26.8)	503(100.0)	
	중소도시	672(77.8)	192(22.2)	864(100.0)	
	읍면지역	287(71.8)	113(28.3)	400(100.0)	
성	남	862(76.8)	260(23.2)	1122(100.0)	5.99*
	여	664(72.1)	257(27.9)	921(100.0)	
계		1563(74.9)	523(25.1)	2086(100.0)	

* $p < .05$, *** $p < .001$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은 학생들이일수록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6.0%), 중학생(18.9%)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일반고 46.1%, 실업고 58.6%)들의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등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매우 적은 편이나 중학교 때 조금 더 증가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성별 경향에 있어서는 남학생(23.2%)보다 여학생(27.9%)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패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위협·기물파손·흥기소지 경험 여부 명(%)

구분	응답내용	명(%)			χ^2
		아니오	예	전체	
학교 급	초등학교	682(95.0)	36(5.0)	718(100.0)	65.45***
	중학교	612(90.7)	63(9.3)	675(100.0)	
	일반 고	376(88.7)	48(11.3)	424(100.0)	
	실업	207(77.8)	59(22.2)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286(89.7)	33(10.3)	319(100.0)	7.11
	시 광역시	446(89.2)	54(10.8)	500(100.0)	
	중소도시	795(92.0)	69(8.0)	864(100.0)	
	읍면지역	350(87.5)	50(12.5)	400(100.0)	
성	남	980(87.3)	142(12.7)	1122(100.0)	19.54***
	여	856(93.2)	62(6.8)	918(100.0)	
계		1877(90.1)	206(9.9)	2083(100.0)	

*** $p < .001$

전체 2,083명의 조사대상 학생들 중 90.1%의 학생들은 패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흥기소지 중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으며, 9.9%만이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실업고 학생(22.2%)들의 경험률이 월등히 많았으며, 일반고(11.3%), 중학교(9.3%), 초등학교(5.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은 여학생(6.8%)보다 남학생(12.7%)의 경험률이 2배 가까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3)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 팔기 경험 여부

		명(%)		
구분	응답내용	아니오	예	전체
학교 급	초등학교	692(96.5)	25(3.5)	717(100.0)
	중학교	596(88.2)	80(11.8)	676(100.0)
	일반고	351(83.0)	72(17.0)	423(100.0)
	실업고	210(78.9)	56(21.1)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278(87.1)	41(12.9)	319(100.0)
	도 광역시	448(89.6)	52(10.4)	500(100.0)
	중소도시	798(92.5)	65(7.5)	863(100.0)
	읍면지역	325(81.3)	75(18.8)	400(100.0)
성	남	959(85.5)	163(14.5)	1122(100.0)
	여	849(92.6)	68(7.4)	917(100.0)
계		1849(88.8)	233(11.2)	2082(100.0)

* $p < .05$, ** $p < .01$, *** $p < .001$

2,082명의 전체 조사대상 중 88.8%에 해당하는 초·중·고등 학생들은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팔기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2%만이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3.5%로 매우 낮은 편이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험이 더 많으며(중학교 11.8%, 일반고 17.0%, 실업고 21.1%), 실업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향에 있어서는 읍면지역 학생(18.8%)들의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서울(12.9%), 광역시(10.4%), 중소도시(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7.4%)보다는 남학생(14.5%)들이 이러한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4) 본드·가스·환각제·마약 경험 여부

명(%)

구분 \ 응답내용		아니오	예	전체	χ^2
학교 급	초등학교	710(99.0)	7(1.0)	717(100.0)	2.86
	중학교	662(97.9)	14(2.1)	676(100.0)	
	일반고	417(98.6)	6(1.4)	423(100.0)	
	실업	262(98.5)	4(1.5)	266(100.0)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311(97.5)	8(2.5)	319(100.0)	7.72
	광역시	495(99.0)	5(1.0)	500(100.0)	
	중소도시	855(99.1)	8(0.9)	863(100.0)	
	읍면지역	390(97.5)	10(2.5)	400(100.0)	
성	남	1097(97.8)	25(2.2)	1122(100.0)	8.35**
	여	911(99.3)	6(0.7)	917(100.0)	
계		2051(98.5)	31(1.5)	2082(100.0)	

** $p<.01$

2,082명의 조사대상 중 98.5%의 학생들은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중 어떤 것도 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5%만이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학교 학생(2.1%)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실업고(1.5%), 일반고(1.4%) 순이며, 초등학생들은 1.0%가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은 여학생(0.7%)보다 남학생(2.2%)들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추행·성관계·성매매(돈주고 또는 돈받고) 경험 여부

		명(%)			
구분	응답내용	아니오	예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06(98.5)	11(1.5)	717 (100.0)	4.30
	중학교	657(97.3)	18(2.7)	675 (100.0)	
	일반고	409(96.7)	14(3.3)	423 (100.0)	
	실업	258(97.0)	8(3.0)	266 (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서울	309(96.9)	10(3.1)	319 (100.0)	7.75
	광역시	486(97.2)	14(2.8)	500 (100.0)	
	중소도시	850(98.6)	12(1.4)	862 (100.0)	
	읍면지역	385(96.3)	15(3.8)	400 (100.0)	
성	남	1080(96.3)	42(3.7)	1122 (100.0)	15.75***
	여	907(99.0)	9(1.0)	916 (100.0)	
계		2030(97.5)	51(2.5)	2081 (100.0)	

* $p<.05$, ** $p<.01$, *** $p<.001$

전체 조사대상 2,081명 가운데 97.5%의 학생들은 성폭행, 성관계, 성매매 중에서 어떤 것도 해 본 적이 없었으며, 단지 2.5%만이 성폭행, 성관계, 성매매 중 한 가지라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1.0%)보다 남학생(3.7%)들의 성 관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지난 1년간 문제행동 경험 횟수

<표 III-2-19> 지난 1년간 문제행동 경험 횟수

1) 가출·음주·흡연·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경험 횟수
명(%)

응답내용		한 적 없다	6개월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 1~2번	일주일 3~4번	전체	χ^2
구분								
학 교 급	초등학교	692(96.6)	15(2.1)	4(0.6)	5(0.7)	-	716(100.0)	493.73***
	중학교	580(86.2)	49(7.3)	20(3.0)	13(1.9)	11(1.6)	673(100.0)	
	일반 고	249(59.0)	106(25.1)	44(10.4)	13(3.1)	10(2.4)	422(100.0)	
	실업	124(47.3)	46(17.6)	45(17.2)	34(13.0)	13(5.0)	262(100.0)	
학 교 소 재 지 역	대 도 시	240(76.2)	39(12.4)	21(6.7)	9(2.9)	6(1.9)	315(100.0)	25.49*
	광역시	388(77.6)	60(12.0)	26(5.2)	16(3.2)	10(2.0)	500(100.0)	
	중소도시	707(82.0)	88(10.2)	32(3.7)	27(3.1)	8(0.9)	628(100.0)	
	읍면지역	310(78.3)	29(7.3)	34(8.6)	13(3.3)	10(2.5)	396(100.0)	
성	남	919(82.3)	102(9.1)	50(4.5)	24(2.2)	21(1.9)	1116(100.0)	20.68***
	여	689(75.4)	113(12.4)	61(6.7)	39(4.3)	12(1.3)	914(100.0)	
계		1645(79.4)	216(10.4)	113(5.5)	65(3.1)	34(1.6)	2073(100.0)	

* $p < .05$, *** $p < .001$

초·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과 나이트클럽 출입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2,073명 중 79.4%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6%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학생들 중에는 6개월에 1~2번(10.4%)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2번(5.5%), 일주일에 1~2번(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경험률이 초등학교 3.4%, 중학교 13.8%, 일반고 41.0%, 실업고 52.7%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매우 낮으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험한 학생들은 대체로 6개월에 1-2번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특히 일반고 학생(25.1%)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 실업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2번(17.6%)뿐 아니라 한달에 1-2번(17.2%), 일주일에 1-2번(13.0%) 경험한 학생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년간의 경험률이 13% 내외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경험한 학생들 중 서울(12.4%), 광역시(12.0%), 중소도시(10.2%) 학생들 중 6개월에 1-2번 정도 경험한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으며,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번 경험한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남학생(17.7%)보다 여학생(24.6%)들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정도는 6개월에 1-2번 정도가 가장 많다.

2) 패싸움, 폭력씨를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흉기소지 경험 횟수

명(%)

구분	응답내용	한 적 없다	6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689(96.1)	26(3.6)	1(0.1)	1(0.1)	-	717(100.0)	82.18***
	중학교	625(92.9)	29(4.3)	5(0.7)	5(0.7)	9(1.3)	673(100.0)	
	일반고	387(91.9)	26(6.2)	4(1.0)	3(0.7)	1(0.2)	421(100.0)	
	실업고	216(81.8)	36(13.6)	8(3.0)	4(1.5)	-	264(100.0)	
학교소재지역	대서울	292(92.7)	18(5.7)	3(1.0)	1(0.3)	1(0.3)	315(100.0)	20.33
	광역시	466(93.2)	26(5.2)	4(0.8)	-	4(0.8)	500(100.0)	
	중소도시	809(93.6)	42(4.9)	4(0.5)	7(0.8)	2(0.2)	864(100.0)	
	읍면지역	350(88.4)	31(7.8)	7(1.8)	5(1.3)	3(0.8)	396(100.0)	
성	남	1000(89.4)	91(8.1)	11(1.0)	9(0.8)	7(0.6)	1118(100.0)	31.48***
	여	876(95.8)	24(2.6)	7(0.8)	4(0.4)	3(0.3)	914(100.0)	
계		1917(92.4)	117(5.6)	18(0.9)	13(0.6)	10(0.5)	2075(100.0)	

*** $p < .001$

지난 1년간 패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흉기 소지를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075명 중 92.4%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7.6%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학생들 중에는, 6개월에 1-2번 정도(5.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번(5.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초등학교생들은 3.9%로 매우 적은 편이며, 실업고 고등학생(18.2%)들의 경험률이 가장 많은 편이다. 경험 정도를 보면,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은 대체로 6개월에 1-2번 정도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여학생(4.2%)보다 남학생(10.6%)의 경험률이 높는데 대체로 6개월에 1-2번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 팔기 경험 횟수

		명(%)						
구분	응답내용	한 적 없다	6개월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697(97.2)	20(2.8)	-	-	-	717(100.0)	59.18***
	중학교	618(92.0)	40(6.0)	7(1.0)	4(0.6)	3(0.4)	672(100.0)	
	일반고	379(90.5)	34(8.1)	1(0.2)	1(0.2)	4(1.0)	419(100.0)	
	실업고	226(85.6)	34(12.9)	1(0.4)	2(0.8)	1(0.4)	264(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서울	287(91.1)	22(7.0)	3(1.0)	2(0.6)	1(0.3)	315(100.0)	35.28***
	광역시	461(92.4)	34(6.8)	1(0.2)	1(0.2)	2(0.4)	499(100.0)	
	중소도시	827(95.8)	31(3.6)	2(0.2)	2(0.2)	1(0.1)	863(100.0)	
	읍면지역	345(87.3)	41(10.4)	3(0.8)	2(0.5)	4(1.0)	395(100.0)	
성	남	1011(90.6)	90(8.1)	5(0.4)	3(0.3)	7(0.6)	1116(100.0)	17.48**
	여	868(95.1)	37(4.1)	4(0.4)	3(0.3)	1(0.1)	913(100.0)	
계		1920(92.7)	128(6.2)	9(0.4)	7(0.3)	8(0.4)	2072(100.0)	

** $p < .01$, *** $p < .001$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팔기 등의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나 했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2,072명 중 92.7%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경험률은 7.3% 정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경험한 학생들 대부분(6.2%)이 6개월에 1-2번 정도라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경험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팔기 행동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경험 정도는 모든 학교급 공히 6개월에 1-2번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험률이 중소도시(4.2%), 광역시(7.6%), 서울(8.9%), 읍면지역(12.7%) 순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학교급에서 6개월에 1-2번 정도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성별 경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90.6%)보다 여학생(95.1%)이 더 많아 남학생이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팔기 행동을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4)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경험 횟수

		명(%)						
구분	응답내용	한 적 없다	6개월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714(99.6)	2(0.3)	-	-	1(0.1)	717(100.0)	8.96
	중학교	669(99.4)	1(0.1)	1(0.1)	-	2(0.3)	673(100.0)	
	일반고	417(99.0)	1(0.2)	-	1(0.2)	2(0.5)	421(100.0)	
	실업고	262(99.2)	1(0.4)	-	1(0.4)	-	264(100.0)	

구분		응답내용	한 적 없다	6개월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전체	χ^2
학교 소재 지역	교 제 역	대 서울	311(98.7)	1(0.3)	-	2(0.6)	1(0.3)	315(100.0)	30.42**
		시 광역시	499(99.8)	-	-	-	1(0.2)	500(100.0)	
		중소도시	863(99.9)	-	-	-	1(0.1)	864(100.0)	
		읍면지역	389(98.2)	4(1.0)	1(0.3)	-	2(0.5)	396(100.0)	
성		남	1107(99.0)	4(0.4)	1(0.1)	1(0.1)	5(0.4)	1118(100.0)	6.22
		여	912(99.8)	1(0.1)	-	1(0.1)	-	914(100.0)	
계			2062(99.4)	5(0.2)	1(0.0)	2(0.1)	5(0.2)	2075(100.0)	

** $p < .01$

전체 2,075명의 학생들 중 99.4%가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등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학생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학교급,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5)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돈 주고 또는 돈 받고) 경험 횟수

명(%)

응답내용		구분						전체	χ ²
		한 적 없다	6개월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 1~2번	일주일 3~4번			
학교 급	초등학교	709(98.9)	5(0.7)	2(0.3)	1(0.1)	-	717(100.0)	19.95	
	중학교	667(99.1)	3(0.4)	-	-	3(0.4)	673(100.0)		
	고 일반	409(97.1)	5(1.2)	4(1.0)	2(0.5)	1(0.2)	421(100.0)		
	고 실업	257(97.3)	4(1.5)	1(0.4)	-	2(0.8)	264(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312(99.0)	1(0.3)	2(0.6)	-	-	315(100.0)	22.07*	
	시 광역시	490(98.0)	5(1.0)	1(0.2)	1(0.2)	3(0.6)	500(100.0)		
	중소도시	857(99.2)	3(0.3)	2(0.2)	2(0.2)	-	864(100.0)		
	읍면지역	383(96.7)	8(2.0)	2(0.5)	-	3(0.8)	396(100.0)		
성	남	1089(97.4)	15(1.3)	6(0.5)	3(0.3)	5(0.4)	1118(100.0)	14.88**	
	여	910(99.6)	2(0.2)	1(0.1)	-	1(0.1)	914(100.0)		
계		2042(98.4)	17(0.8)	7(0.3)	3(0.1)	6(0.3)	2075(100.0)		

* $p < .05$, ** $p < .01$

전체 조사대상 2,075명 중 98.4%가 지난 1년간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1.6%에 해당된다.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학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학생들(3.3%)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 학생들 가운데 2.0%가 6개월에 1-2번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일주일에 3-4번 경험한 학생들도 3명(0.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97.4%)보다 여학생(99.6%)이 더 높아 남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6개월에 1-2번 했다는 학생들 비율이 1.3%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1-2번(0.5%), 일주일에 3-4번(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행동 유형별 경험여부와 경험 정도’에 관한 내용은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한다. 우선은 지난 1년간의 문제행동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질문된 내용 중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성인용 술집, 나이트클럽 출입의 경우가 20% 정도인 점을 제외하고, 다른 4가지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의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험 학생도 자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등학생 특히 실업고 학생과 남학생들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요망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험률과 횟수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나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표 III-2-20> 5가지 문제행동 유형의 과거경험 여부

명(%)

	과거 경험 여부		1년간 경험 여부		전체
	아니오	예	아니오	예	
1)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탕/성인용 술집/나이트 클럽	1563(74.9)	523(25.1)	1645(79.5)	441(20.5)	2086(100.0)
2) 패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흉기소지	1877(90.1)	206(9.9)	1917(92.4)	166(7.6)	2083(100.0)
3) 물건 훔치기, 훔친물건 사고팔기	1849(88.8)	233(11.2)	1920(92.7)	162(7.3)	2082(100.0)
4)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2051(98.5)	31(1.5)	2062(99.4)	20(0.6)	2082(100.0)
5)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2030(97.5)	51(2.5)	2042(98.4)	39(1.6)	2081(100.0)

② 문제행동별 경험시기와 경험 이유

<표 III-2-21>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해 본 문제행동*

명(%)

문제행동	학교급	초 (N=730)	중 (N=684)	고		전체 (N=2108)
				일반고 (N=428)	실업고 (N=266)	
1) 흡연		23(3.2)	89(13.0)	100(23.4)	96(36.1)	308(14.6)
2) 음주		49(6.7)	136(19.9)	209(48.8)	138(51.9)	532(25.2)
3)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1(0.1)	124(18.1)	120(28.0)	43(16.2)	288(13.7)
4)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128(17.5)	84(12.3)	82(19.1)	59(22.2)	353(16.7)
5)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19(2.6)	88(12.9)	65(15.2)	24(9.0)	196(9.3)
6)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2(0.3)	32(4.7)	54(12.6)	40(15.0)	128(6.1)
7)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	84(12.3)	74(17.3)	9(3.4)	167(7.9)
8)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86(11.8)	177(25.9)	102(23.8)	49(18.4)	414(19.6)

* 전체 27가지 문제행동 중 여기서는 총 응답률이 5.0%가 넘는 문제행동 8가지만을 제시하였음

초·중·고등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경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험한 문제행동의 유형, 최초 경험시기,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2,108명 중 10%이상의 학생이 경험해 보았다고 한 문제행동은 ‘음주(25.2%)’,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19.6%)’,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16.7%)’, ‘흡연(14.6%)’,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 만화 등)을 보는 것(13.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9.3%)’,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7.9%)’,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6.1%)’ 등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5% 이상 10% 미만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학생들의 5%이상이 경험해 본 문제행동들을 중심으로 각 문제행동별로 학생들이 최초로 경험한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I-2-22참조).

<표 III-2-22> 이전에 경험해본 문제행동의 최초 경험 시기

문제 행동 최초 경험 시기	명(%)							
	흡연	음주	음란물 열람	머리염색	아이디 도용	이성친구 와 성적 접촉	인터넷 통한 음란물 열람	채팅/ 게시판에 욕설하기
초등학교 4학년 전	37(12.1)	65(12.4)	14(4.9)	82(23.8)	8(4.1)	3(2.4)	4(2.4)	19(4.7)
초등학교 4학년	17(5.6)	18(3.4)	12(4.2)	53(15.4)	8(4.1)	3(2.4)	3(1.8)	38(9.5)
초등학교 5학년	28(9.2)	24(4.6)	19(6.6)	45(13.0)	7(3.6)	-	5(3.0)	51(12.7)
초등학교 6학년	39(12.8)	38(7.3)	50(17.5)	38(11.0)	32(16.6)	7(5.6)	22(13.4)	61(15.2)

문제행동 최초경시기	흡연	음주	음란물 열람	머리염색	아이디 도용	이성친구 와 성적 접촉	인터넷 통한 음란물 열람	채팅/ 게시판에 욕설하기
중학교 1학년	50(16.4)	97(18.5)	85(29.7)	38(11.0)	42(21.8)	15(11.9)	51(31.1)	97(24.2)
중학교 2학년	80(26.3)	124(23.7)	57(19.9)	41(11.9)	34(17.6)	37(29.4)	44(26.8)	72(18.0)
중학교 3학년	30(9.9)	75(14.3)	34(11.9)	29(8.4)	30(15.5)	30(23.8)	17(10.4)	36(9.0)
고등학교 1학년	20(6.6)	58(11.1)	14(4.9)	18(5.2)	22(11.4)	27(21.4)	16(9.8)	17(4.2)
고등학교 2학년	3(1.0)	25(4.8)	1(0.0)	1(0.0)	10(5.2)	4(3.2)	2(1.2)	10(2.5)
전체	304(100.0)	524(100.0)	286(100.0)	345(100.0)	193(100.0)	126(100.0)	164(100.0)	401(100.0)

<표 III-2-22>에서처럼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때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높은 경험률(23.8%)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흡연’, ‘음주’,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등의 문제행동은 중학교 시기에 최초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지도가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경험되고 있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도될 필요가 있음도 알 수 있다.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 이유로 ‘화가 나서,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호기심이 생겨서’ 문제행동을 하게 된 학생들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유혹에 넘어가서, ‘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여서’ 학생들은 문제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살피고, 친구관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3> 이전에 경험해본 문제행동의 최초 경험 이유

문제 행동 이유	명(%)							
	흡연	음주	음란물 열람	머리염색	아이디 도용	이성친구 와 성적 접촉	인터넷 통한 음란물 열람	채팅/ 게시판에 욕설하기
(1)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5(1.7)	2(0.4)	-	2(0.6)	-	2(1.6)	-	1(0.2)
(2)학교가 싫어서	1(0.3)	2(0.4)	1(0.3)	-	1(0.5)	-	-	-
(3)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	3(1.0)	1(0.2)	3(1.0)	1(0.3)	3(1.5)	-	-	1(0.2)
(4)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14(4.6)	54(10.5)	8(2.8)	22(6.3)	5(2.6)	1(0.8)	3(1.8)	2(0.5)
(5)학업성적이 떨어져서	2(0.7)	3(0.6)	-	-	-	-	-	1(0.2)
(6)친구들이 같이 하는 유흥에 넘어가서	66(21.9)	78(15.1)	48(16.7)	12(3.5)	11(5.6)	4(3.3)	19(11.5)	4(1.0)
(7)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것이 좋아보여서	4(1.3)	4(0.8)	4(1.4)	86(24.8)	5(2.6)	8(6.5)	2(1.2)	2(0.5)
(8)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	1(0.2)	2(0.7)	-	-	2(1.6)	2(1.2)	-
(9)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	-	-	-	-	-	-	-
(10)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4(1.3)	20(3.9)	2(0.7)	22(6.3)	1(0.5)	3(2.4)	2(1.2)	2(0.5)
(11)호기심이 생겨서	165(54.6)	194(37.6)	180(62.7)	131(37.8)	83(42.6)	33(26.8)	95(57.6)	27(6.7)
(12)용돈이 모자라서	-	-	-	-	1(0.5)	-	1(0.6)	-
(13)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	-	-	-	12(6.2)	-	-	-
(14)화가 나서	3(1.0)	11(2.1)	-	2(0.6)	12(6.2)	2(1.6)	-	288(71.3)
(15)스트레스를 풀려고	24(7.9)	57(11.0)	4(1.4)	11(3.2)	6(3.1)	3(2.4)	5(3.0)	53(13.1)
(16)성적 충동 때문에	-	1(0.2)	29(10.1)	2(0.6)	3(1.5)	40(32.5)	32(19.4)	3(0.7)
(17)기타	7(2.3)	18(3.5)	4(1.4)	20(5.8)	26(13.3)	18(14.6)	3(1.8)	10(2.5)
(18)어른의 권유/허락으로	-	41(7.9)	1(0.3)	31(8.9)	-	-	-	-
(19)실수로, 모르고	-	21(4.1)	-	-	2(1.0)	1(0.8)	1(0.6)	1(0.2)
(20)필요해서	-	-	-	-	21(10.8)	-	-	-
(21)부모님과 의견 충돌 때문	1(0.3)	-	-	-	-	-	-	-
(22)귀찮아서, 그냥 싫어서	-	-	-	-	-	-	-	-
(23)심심해서, 별 이유 없이	3(1.0)	8(1.6)	1(0.3)	5(1.4)	3(1.5)	6(4.9)	-	9(2.2)
전체	302(100.0)	516(100.0)	287(100.0)	347(100.0)	195(100.0)	123(100.0)	165(100.0)	404(100.0)

(바) 문제 및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고민이나 걱정거리,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체 조사대상 1,977명 중 44.1%가 취미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한다’ (14.9%), ‘속으로 삭힌다’(14.7%),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II-2-24> 고민이나 걱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명(%)									
구분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학교 급	유치원	50(7.3)	246(36.0)	-	5(0.7)	1(0.1)	82(12.0)	66(9.6)	197(28.8)	37(5.4)	684(100.0)
	초등학교	29(4.5)	347(53.5)	11(1.7)	2(0.3)	2(0.3)	94(14.5)	59(9.1)	60(9.2)	45(6.9)	649(100.0)
	중학교	18(4.5)	168(42.3)	24(6.0)	2(0.5)	2(0.5)	82(20.7)	42(10.6)	25(6.3)	34(8.6)	397(100.0)
	고등학교	5(2.0)	110(44.5)	54(21.9)	-	1(0.4)	33(13.4)	16(6.5)	12(4.9)	16(6.5)	247(100.0)
학교 소재 지역	서울	17(5.8)	106(36.3)	17(5.8)	1(0.3)	2(0.7)	46(15.8)	32(11.0)	43(14.7)	28(9.6)	292(100.0)
	광역시	26(5.4)	226(46.9)	19(3.9)	2(0.4)	1(0.2)	70(14.5)	46(9.5)	62(12.9)	30(6.2)	482(100.0)
	중소도시	44(5.3)	373(45.3)	26(3.2)	2(0.2)	1(0.1)	125(15.2)	70(8.5)	131(15.9)	51(6.2)	823(100.0)
	읍면지역	15(3.9)	166(43.7)	27(7.1)	4(1.1)	2(0.5)	50(13.2)	35(9.2)	58(15.3)	23(6.1)	380(100.0)
성	남	59(5.5)	532(52.7)	38(3.6)	5(0.5)	4(0.4)	136(12.8)	94(8.8)	120(11.3)	48(4.5)	1066(100.0)
	여	43(4.9)	285(32.8)	51(5.9)	4(0.5)	2(0.2)	149(17.1)	82(9.4)	172(19.8)	81(9.3)	889(100.0)
계		102(5.2)	871(44.1)	89(4.5)	9(0.5)	6(0.3)	291(14.7)	183(9.3)	294(14.9)	132(6.7)	1977(100.0)

*** $p < .001$

- ① 공부에 더 열중하려고 노력한다
 ② 취미활동(오락, 게임, 인터넷, 독서,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에 몰두한다
 ③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다
 ④ 가출이나 자살을 시도한다
 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때린다
 ⑥ 속으로 삭힌다
 ⑦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⑧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한다
 ⑨ 기타_____

학교급별로 보면,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 모두 취미활동에 몰두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데 특히, 중학생(53.5%)들의 경우 반 이상의 학생들이 취미활동에 몰두함으로써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업고(44.5%), 일반고(42.3%), 초등학교(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속으로 삭힌다'는 해결방법은 중·고등학생(중학교 14.5%, 고등학교 20.7%)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고민, 갈등 해결방법인 반면 초등학생들은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고민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반면에, 실업고 학생들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21.9%) 고민이나 갈등을 해결한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남학생(52.7%)들이 여학생(32.8%)보다 고민, 걱정거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취미활동에 더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거나 속으로 삭힘으로써 고민, 갈등을 해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취미활동에 몰두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 건전하게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나 한편, 속으로 삭히거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고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또한 교사나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민, 걱정거리,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고민, 갈등,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표III-2-25>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는지 여부
명(%)

응답내용 구분		알리는 편이다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전체	χ^2
학 교 급	초등학교	439(63.0)	258(37.0)	697(100.0)	133.75***
	중학교	285(42.2)	390(57.8)	675(100.0)	
	일반고	142(34.1)	275(65.9)	417(100.0)	
	실업고	79(30.5)	180(69.5)	259(100.0)	
학교 소재 지역	서울	158(50.3)	156(49.7)	314(100.0)	2.64
	광역시	224(45.7)	266(54.3)	490(100.0)	
	중소도시	386(45.4)	465(54.6)	851(100.0)	
	읍면지역	177(45.0)	216(55.0)	393(100.0)	
성	남	489(44.4)	612(55.6)	1101(100.0)	4.41*
	여	444(49.1)	460(50.9)	904(100.0)	
계		945(46.1)	1103(53.9)	2048(100.0)	

* $p < .05$, ** $p < .01$, *** $p < .001$

문제행동을 하게 되어 어려움에 처할 때, 반수가 조금 넘는 학생(53.9%)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급별 경향을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은데(초등학교 37.0%, 중학교 57.8%, 일반고와 실업고 69.5%), 특히 고등학생들은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50.9%)보다는 남학생(55.6%)들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6>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알리지 않는 이유

		명(%)					
구분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132(28.2)	164(35.0)	29(6.2)	24(5.1)	119(25.4)	468(100.0)
	중학교	99(19.7)	270(53.8)	32(6.4)	44(8.8)	57(11.4)	502(100.0)
	일반고	47(15.0)	185(59.1)	27(8.6)	27(8.6)	27(8.6)	313(100.0)
	실업고	40(19.1)	119(56.9)	16(7.7)	14(6.7)	20(9.6)	209(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	37(17.0)	108(49.5)	15(6.9)	12(5.5)	46(21.1)	218(100.0)
	광역시	62(17.4)	172(48.2)	26(7.3)	30(8.4)	67(18.8)	357(100.0)
	중소도시	151(24.8)	311(51.1)	45(7.4)	40(6.6)	62(10.2)	609(100.0)
	읍면지역	68(22.1)	147(47.7)	18(5.8)	27(8.8)	48(15.6)	308(100.0)
성	남	192(22.8)	398(47.3)	63(7.5)	68(8.1)	121(14.4)	842(100.0)
	여	117(18.9)	322(52.1)	40(6.5)	39(6.3)	100(16.2)	618(100.0)
계		318(21.3)	738(49.5)	104(7.0)	109(7.3)	223(14.9)	1492(100.0)

** $p < .01$, *** $p < .001$

- ① 꾸중과 체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② 말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③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고 다시 안할 생각으로
 ④ 한번 알게 되면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까 봐
 ⑤ 기타 _____

문제행동을 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수(49.5%) 정도가 ‘말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꾸중과 체벌이 무섭고 두려워서’(21.3%), ‘한 번 알게 되면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까 봐’(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에 있어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말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알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제일 많았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반응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꾸중과 체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28.2%)들의 반응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학생(51.1%)들이 ‘말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중소도시(51.1%), 서울(49.5%), 광역시(48.2%), 읍면지역(4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꾸중과 체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중소도시(24.8%)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읍면지역(22.1%), 광역시(17.4%), 서울(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7> 알리지 않았던 문제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

		명(%)						
구분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292(52.6)	84(15.1)	28(5.0)	44(7.9)	8(1.4)	99(17.8)	555(100.0)
	중학교	262(49.3)	104(19.6)	54(10.2)	56(10.5)	5(0.9)	50(9.4)	531(100.0)
	일반고	146(44.0)	88(26.5)	43(13.0)	34(10.2)	2(0.6)	19(5.7)	332(100.0)
	실업고	76(35.8)	64(30.2)	26(12.3)	28(13.2)	1(0.5)	17(8.0)	212(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	115(47.5)	53(21.9)	20(8.3)	20(8.3)	1(0.4)	33(13.6)	242(100.0)
	광역시	182(45.4)	92(22.9)	45(11.2)	37(9.2)	2(0.5)	43(10.7)	401(100.0)
	중소도시	331(49.8)	133(20.0)	54(8.1)	70(10.5)	9(1.4)	67(10.1)	664(100.0)
	읍면지역	148(45.8)	62(19.2)	32(9.9)	35(10.8)	4(1.2)	42(13.0)	323(100.0)
성	남	441(48.2)	190(20.8)	88(9.6)	87(9.5)	11(1.2)	98(10.7)	915(100.0)
	여	318(46.6)	143(20.9)	61(8.9)	72(10.5)	5(0.7)	84(12.3)	683(100.0)
계		776(47.6)	340(20.9)	151(9.3)	162(9.9)	16(1.0)	185(11.3)	1630(100.0)

* $p < .05$, ** $p < .01$, *** $p < .001$

- ① 타이르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다
 ② 꾸중과 징계(벌점 부과 또는 체벌)를 내리셨다
 ③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
 ④ 상담을 받도록 했다
 ⑤ 주기적으로 지도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
 ⑥ 기타_____

전체 조사대상 1,630명 중 47.6%의 학생들은 알리지 않았던 문제행동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셨을 때 '타이르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꾸중과 징계를 내린(20.9%)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타이르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꾸중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2-28>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의 느낌
명(%)

응답내용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학 교 급	초등학교	439(66.1)	29(4.4)	27(4.1)	114(17.2)	55(8.3)	664(100.0)	193.16***
	중학교	317(50.7)	75(12.0)	55(8.8)	150(24.0)	28(4.5)	625(100.0)	
	일반고	140(36.0)	76(19.5)	61(15.7)	98(25.2)	14(3.6)	389(100.0)	
	실업고	89(37.6)	48(20.3)	38(16.0)	55(23.2)	7(3.0)	237(100.0)	
학 교 소 재 지 역	서울	142(49.1)	36(12.5)	36(12.5)	56(19.4)	19(6.6)	289(100.0)	23.59*
	광역시	223(47.8)	63(13.5)	48(10.3)	102(21.8)	31(6.6)	467(100.0)	
	중소도시	421(53.4)	84(10.6)	64(8.1)	192(24.3)	28(3.5)	789(100.0)	
	읍면지역	199(53.8)	45(12.2)	33(8.9)	67(18.1)	26(7.0)	370(100.0)	
성	남	581(55.1)	122(11.6)	94(8.9)	202(19.2)	55(5.2)	1054(100.0)	13.43**
	여	391(47.4)	99(12.0)	84(10.2)	206(25.0)	45(5.5)	825(100.0)	
계		985(51.4)	228(11.9)	181(9.5)	417(21.8)	104(5.4)	1915(100.0)	

* $p < .05$, ** $p < .01$, *** $p < .001$

- ① 문제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② 별 도움이 안 되었다
 ③ 오히려 더 반감을 느꼈다
 ④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⑤ 기타_____

전체 조사대상 1,915명 중 51.4%의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 문제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1.8%의 학생들은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별 도움이 안되었다는 학생과 오히려 더 반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각각 11.9%, 9.5%가 된다.

학교급별로는 낮은 학교급일수록 문제행동을 일으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 문제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66.1%, 중학교 50.7%, 일반고 36.0%, 실업고 37.6%). 반면 높은 학교급의 학생들일수록 별 도움이 안되었다 또는 오히려 더 반감을 느꼈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 초등학교생들과 중·고등학교생들 간에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반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더해 볼 때, 반 이상의 학생들은 문제행동을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 모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알게 되는 문제행동, 즉 드러난 문제행동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알리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앞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우선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에 무관심하고, 학생들 또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신뢰할 만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친구관계, 유해한 사회환경을 통해 접하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행동을 알게 된 경우에도 꾸중이나 체벌 등 징계보다도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들이

학생의 발달, 학생의 생활과 문화 등 학생들의 제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요구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학부모 의견 분석결과

(가) 학생에 관한 부모의 인식

학생 문제에 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의 고민거리와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29> 부모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명(%)									
구분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학교급	초등학교	186 (26.5)	63 (9.0)	10 (1.4)	26 (3.7)	23 (3.3)	82 (11.7)	235 (33.5)	60 (8.5)	17 (2.4)	702 (100.0)
	중학교	80 (12.6)	45 (7.1)	8 (1.3)	28 (4.4)	24 (3.8)	50 (7.9)	239 (37.6)	149 (23.5)	12 (1.9)	635 (100.0)
	일반	34 (8.3)	12 (2.9)	1 (0.2)	14 (3.4)	18 (4.4)	12 (2.9)	148 (35.9)	168 (40.8)	5 (1.2)	412 (100.0)
	실업	43 (18.8)	12 (5.2)	2 (0.9)	12 (5.2)	19 (8.3)	20 (8.7)	68 (29.7)	50 (21.8)	3 (1.3)	229 (100.0)
학교소재지역	서울	68 (20.8)	27 (8.3)	3 (0.9)	8 (2.4)	20 (6.1)	22 (6.7)	112 (34.3)	62 (19.0)	5 (1.5)	327 (100.0)
	광역시	90 (17.9)	27 (5.4)	4 (0.8)	15 (3.0)	19 (3.8)	44 (8.7)	170 (33.7)	124 (24.6)	11 (2.2)	504 (100.0)
	중소도시	109 (14.4)	52 (6.9)	10 (1.3)	42 (5.5)	26 (3.4)	67 (8.9)	266 (35.1)	171 (22.6)	14 (1.8)	757 (100.0)
	읍면지역	76 (19.5)	26 (6.7)	4 (1.0)	15 (3.8)	19 (4.9)	31 (7.9)	142 (36.4)	70 (17.9)	7 (1.8)	390 (100.0)
학생성	남	192 (17.4)	72 (6.5)	13 (1.2)	30 (2.7)	50 (4.5)	67 (6.1)	411 (37.3)	240 (21.8)	27 (2.5)	1102 (100.0)
	여	151 (17.2)	60 (6.8)	8 (0.9)	50 (5.7)	34 (3.9)	97 (11.1)	279 (31.8)	187 (21.3)	10 (1.1)	876 (100.0)
계		343 (17.3)	132 (6.7)	21 (1.1)	80 (4.0)	84 (4.2)	164 (8.3)	690 (34.9)	427 (21.6)	37 (1.9)	1978 (100.0)

*** $p < .001$

- | | |
|-----------------------|--------------------|
| ① 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 | ② 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 |
| ③ 형제들간의 갈등 | ④ 자기의 외모나 성에 대한 불만 |
| ⑤ 경제적 빈곤 | ⑥ 교우관계 |
| ⑦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 ⑧ 기타_____ |
| ⑧ 상급학교 진학문제 | |

학부모들에게 요즘 학생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34.9%의 학부모가 이에 응답했고, 이어서 ‘상급학교 진학문제(21.6%)’,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간섭(17.3%)’, ‘교우관계(8.3%)’, ‘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34.9%가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그리고 21.6%의 학부모들이 ‘상급학교 진학문제’를 학생들의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공부와 학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공부와 학습을 강요하게 되는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17.3%의 학부모가 ‘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을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한 경우는 실제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과잉보호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정을 잘 드러내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간섭’, ‘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 ‘교우관계’는 자녀의 학교급이 낮은 학부모들이 많이 응답한 반면, ‘상급학교 진학 문제’는 일반고 학생의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자기 외모나 성에 대한 불만’이나 ‘교우관계’를 학생의 고민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여학생 학부모가 남학생 학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자녀 학교급과 자녀 성에 따라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지도함에 있어, 학생들의 학교급과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30> 요즘 학생들에 관한 부모의 생각

명(%)	
응답 내용	응답인원(%)
신나고 즐거우며 매사에 즐거움이 넘침	573(27.6)
사색을 많이 하고 고독을 즐긴다	88(4.2)
부모 형제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반발	405(19.5)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상대와 대화를 원함	883(42.5)
부모 곁을 떠나 멀리 여행하고 싶어한다	166(8.0)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불안해함	127(6.1)
이유없이 신경질을 내고 울고 싶어함	251(12.1)
일하기 싫어하고 편한 것만 추구	1154(55.5)
기타	35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55.5%의 학부모가 요즘 아이들을 ‘일하기 싫어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 줄 상대와 대화를 원함’(42.5%), ‘신나고 즐거우며 매사에 즐거움이 넘침’(27.6%), ‘부모형제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반항’(19.5%), ‘이유없이 신경질 내고 울고 싶어함’(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터해서 볼 때, 학부모들의 눈에 비친 학생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함께 요즘 학생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도 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자녀 생활(고민, 문제)에 관한 파악(이해)

다음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활(고민, 문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게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59.5%의 학부모는 ‘약간 안다’에 응답했고, 23.5%의 학부모는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해,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0%의 학부모들은 ‘잘 모른다’에 응답해 자녀교육에 무관심함을 보이고 있다.

<표III-2-31>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인지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잘 알고 있다	약간 안다	잘 모른다	전체
학 교 급	초등학교	202(27.2)	445(59.8)	97(13.0)	744(100.0)
	중학교	151(22.8)	392(59.1)	120(18.1)	663(100.0)
	일반	83(19.8)	256(61.1)	80(19.1)	419(100.0)
	실업	49(20.5)	135(56.5)	55(23.0)	239(100.0)
학 생 성	남	235(20.6)	685(60.0)	222(19.4)	1142(100.0)
	여	250(27.1)	543(58.8)	130(14.1)	923(100.0)
계		485(23.5)	1228(59.5)	352(17.0)	2065(100.0)

** $p < .01$, *** $p < .001$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부모에 비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향이 높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인문계보다 실업계 고교학생의 학부모들일수록 ‘잘 모른다’에 응답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여학생의 학부모일수록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향이 높고 남학생의 학부모일수록 ‘잘 모른다’에 응답한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자녀가 남학생일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더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학생 지도에 있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녀 학생에 따라 학부모와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는다.

<표Ⅲ-2-32> 자녀의 학교 생활 확인 방법

응답 내용	명(%)
무응답	273(13.1)
담임선생님과 전화, 면담	101(4.9)
자녀에게 직접 물어봄	1096(52.7)
자녀 친구들에게 물어봄	62(3.0)
자녀 친구 엄마들과의 교류	51(2.5)
평소 자녀의 말과 행동	465(22.4)
기타	31(1.5)
전 체	2079(100.0)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2.7%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물어봄’에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22.4%의 학부모는 ‘평소 자녀의 말과 행동의 관찰’에 응답해, 약 75%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통하거나 자녀를 관찰함으로써 학교생활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과의 전화나 면담’(4.9%), ‘자녀 친구에게 물어봄’(3.0%), ‘자녀 친구 엄마들과의 교류’(2.5%) 등, 실제로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의 사용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자녀가 학교에서의 일을 잘 말 안 함’이 전체의 33.7%로 제일 높고, 이어서 ‘부모가 너무 바빠

자녀를 관찰, 대화할 시간이 없음'이 34.1%, 그리고 '교사에게 찾아가기 부담스러움' 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담임교사와의 교류 또한 부담스러움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심리적 부담 없이 담임선생님과의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자녀지도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III-2-33>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문제행동 파악에서의 어려움

구분 \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전체	명(%)
학교 급	초등학교	180(26.5)	231(34.0)	197(29.0)	71(10.5)	679(100.0)	60.97*
	중학교	228(37.0)	143(23.2)	188(30.5)	57(9.3)	616(100.0)	
	일반	160(40.0)	81(20.3)	124(31.0)	35(8.8)	400(100.0)	
	실업	80(34.8)	38(16.5)	96(41.7)	16(7.0)	230(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105(33.4)	92(29.3)	83(26.4)	34(10.8)	314(100.0)	23.43**
	시 광역시	151(30.2)	148(29.6)	159(31.8)	42(8.4)	500(100.0)	
	중소도시	246(33.7)	180(24.7)	228(31.3)	75(10.3)	729(100.0)	
	읍면지역	146(38.2)	73(19.1)	135(35.3)	28(7.3)	382(100.0)	
학생 성	남	412(38.5)	255(23.8)	328(30.7)	75(7.0)	1070(100.0)	33.80***
	여	236(27.6)	238(27.8)	277(32.4)	104(12.2)	855(100.0)	
계		648(33.7)	493(25.6)	605(31.4)	179(9.3)	1925(100.0)	

* $p < .05$, ** $p < .01$, *** $p < .001$

- ① 자녀가 학교생활 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잘 안 한다
 ② 교사에게 자녀의 일로 찾아가거나 상담을 청하기가 부담스럽다
 ③ 부모가 너무 바빠 현실적으로 자녀를 관찰하고 깊게 대화할 시간이 없다
 ④ 기타_____

또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문제행동 파악에서의 어려움의 이유는 학교 소재지와 자녀의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사에게 자녀의 일로 찾아가 상담을 청하기가 부담스럽다'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부모가 너무 바빠 현실적으로 자녀를 관찰하고 깊이 있게 대화할 시간이 없다'에 대한 응답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고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가 남학생일수록 '자녀가 학교생활 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잘 안한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나머지 응답에서는 자녀가 여학생일수록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데서의 어려움이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성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생지도 전략 개발시 지역적 특성과 학생의 '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Ⅲ-2-34> 자녀가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일 명(%)

응답내용	빈도(명수)
무응답	335(16.1)
자녀의 얼굴표정이나 태도 신체를 살핌	445(21.4)
자녀의 소지품을 살핌	55(2.6)
자녀의 외출과 밖에 있는 시간, 친구관계 등을 파악	340(16.4)
자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는다.	834(40.1)
자녀의 담임교사나 친구에게 묻는다.	46(2.2)
기타	24(1.2)
전체	2079(100.0)

자녀가 문제없이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학부모의 40.1%는 '자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는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21.4%

는 ‘자녀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 신체를 살핌’에, 16.4%는 ‘자녀의 외출과 밖에 있는 시간, 친구관계 등을 파악한다’고 응답했고, ‘자녀의 담임교사나 친구에게 묻는 것’은 2.2%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 주로 자녀를 통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통한 방법’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녀가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생지도시 학부모와 교사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보하는 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 ‘문제행동의 책임소재’,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세 가지 측면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II-2-35>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항목의 영향 정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명(%)

문제행동의 원인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무응답	계
① 가정교육의 부재	88 (4.2)	360 (17.3)	800 (38.5)	733 (35.3)	98 (4.7)	2079 (100.0)
② 불안정한 가정환경 (가정불화, 가족의 건강, 경제적 여건 등)	169 (8.1)	254 (12.2)	504 (24.2)	1090 (52.4)	62 (3.0)	2079 (100.0)
③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	88 (4.2)	325 (15.6)	870 (41.8)	697 (33.5)	99 (4.8)	2079 (100.0)
④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저조	97 (4.7)	504 (24.2)	955 (45.9)	432 (20.8)	91 (4.4)	2079 (100.0)
⑤ 청소년 유해 환경	99 (4.8)	301 (14.5)	792 (38.1)	800 (38.5)	87 (4.2)	2079 (100.0)
⑥ 불량 친구들의 영향	161 (7.7)	337 (16.2)	672 (32.3)	830 (39.9)	79 (3.8)	2079 (100.0)
⑦ 물질만능 주의적인 사회 풍토	75 (3.6)	369 (17.7)	875 (42.1)	677 (32.6)	83 (4.0)	2079 (100.0)
⑧ 낮은 학업 성취도	108 (5.2)	660 (31.7)	904 (43.5)	303 (14.6)	104 (5.0)	2079 (100.0)
⑨ 기타	17 (0.8)	23 (1.1)	18 (0.9)	25 (1.2)	1996 (96.0)	2079 (100.0)

청소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매우 크다’에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불량친구들의 영향’ 39.9%, ‘청소년 유해환경’ 38.5%, ‘가정교육의 부재’ 35.3%,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 33.5%, ‘물질만능주의적 사회풍토’ 32.6%,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저조’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부모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가장 중요 원인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의 부재와 같은 가정의 문제와 불량친구, 유해환경 등의 주변환경의 문제를 가장 크게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간 크다’와 ‘매우 크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쳐서 볼 때는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청소년 유해환경’이 각각 76.6%씩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36> 문제행동의 원인 중 ‘낮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응답 결과 명(%)

구분	응답내용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42(5.9)	253(35.8)	308(43.6)	104(14.7)	707(100.0)	26.44**
	중학교	28(4.4)	197(31.1)	304(47.9)	105(16.6)	634(100.0)	
	일반고	17(4.2)	130(31.9)	184(45.1)	77(18.9)	408(100.0)	
	실업고	21(9.3)	80(35.4)	108(47.8)	17(7.5)	226(100.0)	
학교소재지역	대서울	21(6.4)	118(36.0)	142(43.3)	47(14.3)	328(100.0)	12.96
	도시광역시	28(5.5)	172(33.7)	240(47.0)	71(13.9)	511(100.0)	
	중소도시	39(5.1)	269(35.5)	329(43.4)	121(16.0)	758(100.0)	
	읍면지역	20(5.3)	101(26.7)	193(51.1)	64(16.9)	378(100.0)	
학생성	남	54(4.9)	353(32.3)	506(46.3)	180(16.5)	1093(100.0)	4.34
	여	54(6.1)	307(34.8)	398(45.1)	123(13.9)	882(100.0)	
계		108(5.5)	660(33.4)	904(45.8)	303(15.3)	1975(100.0)	

** $p < .01$

청소년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학교급이 낮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급이 높은 학부모들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고등학생인 학부모들은 ‘낮은 학업성취도’의 영향력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이 대학 진학과 직결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 수준과 문제행동과는 더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37.3%의 학부모가 ‘사회환경’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학생 자신’ 28.0%, 부모님 18.8%의 순으로 응답해(<표III-2-37> 참조), 위의 청소년 문제행동 야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연계해 볼 때, 학부모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사회환경을 가장 큰 학생 문제 야기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II-2-37> 학생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에 관한 학부모 인식

		명(%)							χ^2
구분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 교 급	초등학교	123 (21.7)	159 (28.0)	33 (5.8)	32 (5.6)	7 (1.2)	209 (36.9)	4 (0.7)	88.23***
	중학교	138 (28.3)	85 (17.4)	16 (3.3)	50 (10.2)	7 (1.4)	188 (38.5)	4 (0.8)	
	일반	111 (33.2)	34 (10.2)	28 (8.4)	27 (8.1)	5 (1.5)	126 (37.7)	3 (0.9)	
	실업	75 (36.6)	21 (10.2)	7 (3.4)	26 (12.7)	3 (1.5)	72 (35.1)	1 (0.5)	
전체		567 (100.0)	488 (100.0)	334 (100.0)	205 (100.0)				

응답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구분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59 (22.3)	65 (24.6)	16 (6.1)	27 (10.2)	5 (1.9)	89 (33.7)	3 (1.1)	264 (100.0)	29.47*
	시 광역시	126 (31.0)	68 (16.7)	17 (4.2)	27 (6.6)	9 (2.2)	157 (38.6)	3 (0.7)	407 (100.0)	
	중소도시	154 (25.4)	117 (19.3)	35 (5.8)	52 (8.6)	6 (1.0)	239 (39.4)	4 (0.7)	607 (100.0)	
	읍면지역	108 (34.2)	49 (15.5)	16 (5.1)	29 (9.2)	2 (0.6)	110 (34.8)	2 (0.6)	316 (100.0)	
학생 성	남	245 (28.0)	162 (18.5)	50 (5.7)	72 (8.2)	13 (1.5)	326 (37.2)	8 (0.9)	876 (100.0)	1.75
	여	202 (28.1)	137 (19.1)	34 (4.7)	63 (8.8)	9 (1.3)	269 (37.5)	4 (0.6)	718 (100.0)	
계		447 (28.0)	299 (18.8)	84 (5.3)	135 (8.5)	22 (1.4)	595 (37.3)	12 (0.8)	1594 (100.0)	

* $p < .05$, *** $p < .001$

- | | |
|----------|--------|
| ① 학생 자신 | ② 부모님 |
| ③ 학교 교육 | ④ 친구 |
| ⑤ 학교 선생님 | ⑥ 사회환경 |
| ⑦ 기타 | |

이러한 응답결과는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는 데, 자녀의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부모들은 문제행동의 책임소재를 '부모님'으로 인식하는 반면,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생 자신'과 '친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이 크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학부모들은 '불순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13.7%)과 '집단 따돌림'(13.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어서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12.4%),

‘음주 및 흡연’(7.7%), ‘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7.6%), 폭력 및 패싸움 가담(7.6%),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6.6%)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부모들은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을 인식함에 있어 학생답지 못한 행동,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한 집단따돌림, 학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음주, 흡연,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이용 등의 문제행동은 상대적으로 이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38> 학부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응답 내용	응답인원(%)
①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 의지 저조	257(12.4)
② 늦은 귀가, 무단 결석 및 가출	121(5.8)
③ 용의복장 위반(머리염색, 화장, 귀걸이 착용 등)	54(2.6)
④ 도벽, 소매치기	11(0.5)
⑤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	137(6.6)
⑥ 폭력 사용, 패싸움 가담	159(7.6)
⑦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284(13.7)
⑧ 음주 흡연	161(7.7)
⑨ 본드 등 환각제나 약물 남용	69(3.3)
⑩ 유해업소 (오락실, 노래방, 술집) 출입	64(3.1)
⑪ 음란물, 음란 사이트 이용	158(7.6)
⑫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 관련 문제	101(4.9)
⑬ 집단 따돌림	285(13.7)
⑭ 공공 장소 소란 및 공공 기물 파손	9(0.4)
⑮ 기타	48(2.3)
무응답	161(7.7)
계	2079(100.0)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녀의 학교급이 점차 올라갈수록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 '음주 및 흡연', '본드 및 환각제나 약물사용'이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이용', '집단따돌림'이다.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자녀가 남학생인 경우는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 '폭력사용, 패싸움 가담', '유해업소 출입'과 '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에, 여학생인 경우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관련 문제'와 '집단따돌림'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자녀의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학부모들이 보는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 문제지도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학생의 학교급과 성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39> 학부모가 생각하는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1)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학교급	초등학교	70 (10.2)	36 (5.2)	16 (2.3)	3 (0.4)	46 (6.7)	49 (7.1)	122 (17.7)	24 (3.5)
	중학교	88 (14.4)	38 (6.2)	20 (3.3)	4 (0.7)	49 (8.0)	62 (10.2)	79 (13.0)	40 (6.6)
	일반	78 (19.5)	21 (5.3)	11 (2.8)	4 (1.0)	26 (6.5)	29 (7.3)	59 (14.8)	54 (13.5)
	실업	21 (9.5)	26 (11.8)	7 (3.2)	-	16 (7.2)	19 (8.6)	24 (10.9)	43 (19.5)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38 (12.0)	25 (7.9)	8 (2.5)	3 (0.9)	31 (9.8)	19 (6.0)	49 (15.5)	26 (8.2)
	광역시	64 (12.9)	29 (5.8)	14 (2.8)	4 (0.8)	27 (5.4)	49 (9.9)	84 (16.9)	38 (7.6)
	중소도시	101 (13.9)	38 (5.2)	22 (3.0)	3 (0.4)	54 (7.4)	59 (8.1)	108 (14.8)	51 (7.0)
	읍면지역	54 (14.4)	29 (7.7)	10 (2.7)	1 (0.3)	25 (6.6)	32 (8.5)	43 (11.4)	46 (12.2)
학생성	남	171 (16.3)	62 (5.9)	25 (2.4)	5 (0.5)	72 (6.9)	100 (9.5)	149 (14.2)	84 (8.0)
	여	86 (9.9)	59 (6.8)	29 (3.3)	6 (0.7)	65 (7.5)	59 (6.8)	135 (15.6)	77 (8.9)
계		257 (13.4)	121 (6.3)	54 (2.8)	11 (0.6)	137 (7.1)	159 (8.3)	284 (14.8)	161 (8.4)

- ①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 의지 저조
 ② 늦은 귀가, 무단 결석 및 가출
 ③ 용의복장 위반(머리염색, 화장, 귀걸이 착용 등)
 ④ 도박, 소매치기
 ⑤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
 ⑥ 폭력 사용, 패싸움 가담
 ⑦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⑧ 음주 및 흡연

<표 III-2-40> 학부모가 생각하는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2)
 명(%)

구분	응답내용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전체	χ^2
학교급	초등학교	15 (2.2)	23 (3.3)	82 (11.9)	41 (6.0)	141 (20.5)	5 (0.7)	15 (2.2)	688 (100.0)	193.88***
	중학교	21 (3.4)	28 (4.6)	53 (8.7)	25 (4.1)	84 (13.8)	2 (0.3)	16 (2.6)	609 (100.0)	
	일반고	20 (5.0)	6 (1.5)	19 (4.8)	22 (5.5)	40 (10.0)	-	11 (2.8)	400 (100.0)	
	실업	13 (5.9)	7 (3.2)	4 (1.8)	13 (5.9)	20 (9.0)	2 (0.9)	6 (2.7)	221 (100.0)	
학교소재지역	대도시	15 (4.7)	4 (1.3)	29 (9.1)	14 (4.4)	45 (14.2)	1 (0.3)	10 (3.2)	317 (100.0)	56.85
	광역시	17 (3.4)	16 (3.2)	31 (6.2)	33 (6.6)	76 (15.3)	2 (0.4)	13 (2.6)	497 (100.0)	
	중소도시	19 (2.6)	25 (3.4)	77 (10.6)	38 (5.2)	112 (15.4)	4 (0.5)	17 (2.3)	728 (100.0)	
	읍면지역	18 (4.8)	19 (5.1)	21 (5.6)	16 (4.3)	52 (13.8)	2 (0.5)	8 (2.1)	376 (100.0)	
학생성	남	33 (3.1)	44 (4.2)	93 (8.9)	37 (3.5)	144 (13.7)	4 (0.4)	27 (2.6)	1050 (100.0)	45.85***
	여	36 (4.1)	20 (2.3)	65 (7.5)	64 (7.4)	141 (16.2)	5 (0.6)	21 (2.4)	868 (100.0)	
계		69 (3.6)	64 (3.3)	158 (8.2)	101 (5.3)	285 (14.9)	9 (0.5)	48 (2.5)	1918 (100.0)	

*** $p < .001$

- ⑨ 본드 등 환각제나 약물 남용
 ⑩ 유해업소(오락실, 노래방, 술집) 출입
 ⑪ 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
 ⑫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관련 문제
 ⑬ 집단 따돌림
 ⑭ 공공 장소 소란 및 공공 기물 파손
 ⑮ 기타_____

(라) 문제행동 감소 요인 및 지도 대책

<표Ⅲ-2-41> 문제행동의 감소 요인 및 지도 대책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무응답	명(%)
①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배려	34 (1.6)	86 (4.1)	432 (20.8)	1471 (70.8)	56 (2.7)	2079 (100.0)
②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	28 (1.3)	311 (15.0)	915 (44.0)	7350 (35.4)	90 (4.3)	2079 (100.0)
③ 엄격한 학교 분위기	152 (7.3)	725 (34.9)	797 (38.3)	324 (15.6)	81 (3.9)	2079 (100.0)
④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54 (2.6)	338 (16.3)	828 (39.8)	776 (37.3)	83 (4.0)	2079 (100.0)
⑤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의 격려와 관심	32 (1.5)	140 (6.7)	524 (25.2)	1302 (62.6)	81 (3.9)	2079 (100.0)
⑥ 기타	17 (0.8)	22 (1.1)	17 (0.8)	31 (1.5)	1992 (95.8)	2079 (100.0)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과 지도대책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 각각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매우 크다’에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배려’에 70.8%의 학부모들이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어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의 격려와 관심’이 62.6%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37.3%,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 3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엄격한 학교분위기’는 15.6%만이 ‘매우 크다’에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부모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엄격함보다는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배려, 격려 등의 따뜻함에 근거한 지도를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녀의 학교급이 낮은 학부모들일수록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배려’, ‘엄격한 학교분위기’,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의 격려와 관심’의 영향력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의 영향력은 일반고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3, 4>참조).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생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전체의 33.2%가 ‘자녀의 발달특성과 생활에 대한 부모의 폭넓은 이해’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의 유형과 대처방식에 대한 지식(19.5%)’, ‘교사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17.7%)’을 들고 있다. 반면, ‘학교 상담교사의 확보 및 상담실 운영개선’과 ‘사회 유해환경개선’은 각각 6.1%, 6.8%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해 잘 알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교사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2> 자녀의 문제행동을 지도에 대한 요구

응답 내용	응답인원(%)
무응답	89(4.3)
자녀의 발달 특성과 생활에 대한 부모의 폭넓은 이해	691(33.2)
자녀의 문제행동의 유형과 대처방식에 대한 지식	406(19.5)
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245(11.8)
교사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369(17.7)
학교 상담교사의 확보 및 상담실 운영 개선	126(6.1)
사회 유해환경 개선	141(6.8)
기 타	12(0.6)
전 체	2079(100.0)

(3) 교사 의견 분석결과

(가) 학생에 관한 교사의 인식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32.5%가 ‘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주의 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29.3%)’, ‘교우 관계(14.6%)’, ‘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10.2%)’ 등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소수이긴 하나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문제(7.0%)’, ‘자기의 외모나 성에 대한 불만(3.8%)’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표 III-2-43>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응답 내용	응답인원(%)
①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	16(10.2)
②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	51(32.5)
③형제들간의 갈등	1(0.6)
④자기의 외모나 성에 대한 불만	6(3.8)
⑤경제적 빈곤	2(1.3)
⑥교우관계	23(14.6)
⑦주의 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46(29.3)
⑧상급학교 진학문제	11(7.0)
무응답	1(0.6)
계	157(100.0)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고민거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주의집중과 학생에 대한 자신감 부족’(34.9%)이고, 이어서 ‘상급학교 진학 문제’(21.6%)이며, ‘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는 6.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고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사는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가정문제’에서 보려는 경향이 큰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표 III-2-44> 요즘 학생들에 관한 교사의 생각

응답내용	응답인원 (전체 157명에 대한 응답 비율%)
① 신나고 즐거우며 매사에 즐거움이 넘친다	36(22.9)
② 사색을 많이 하고 고독을 즐긴다	2(1.3)
③ 부모 형제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반발한다	64(40.8)
④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상대와 대화하고 싶어한다	90(57.3)
⑤ 부모 곁을 떠나 멀리 여행하고 싶어한다	21(13.4)
⑥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불안해한다	23(14.6)
⑦ 이유없이 신경질을 내고 울고 싶어한다	23(14.6)
⑧ 일(공부)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	129(82.2)
⑨ 기타	4(2.5)

요즘 학생들에 관한 교사의 생각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매우 많은 교사들은 요즘 학생들이 ‘일(공부)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82.2%)’고 응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상대와 대화하고 싶어한다(57.3%)’의 내용에 과반수가 넘는 교사들이 응답했으며, 40.8%의 교사는 ‘부모 형제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반발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 경향과 거의 비슷하며, 요즘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교사와 학부모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사와 학부모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받는다.

(나) 학생지도를 위한 정보 수집

<표 III-2-45> 학생지도를 위한 교사의 정보수집 내용과 정도

	거의 수집하지 않음	별로 수집하지 않음	많이 수집하는 편	매우 많이 수집하는 편	무응답	계 명(%)
① 특정학급의 문제 학생에 관한 정보	11(7.0)	55(35.0)	84(53.5)	6(3.8)	1(0.6)	157(100.0)
② 학생들의 생활 문화에 대한 정보	4(2.5)	57(36.3)	87(55.4)	7(4.5)	2(1.3)	157(100.0)
③ 학생들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태도	5(3.2)	46(29.3)	101(64.3)	4(2.5)	1(0.6)	157(100.0)
④ 학생들을 지도할 학교차원의 생활지도 계획 및 방법	8(5.1)	58(36.9)	86(54.8)	4(2.5)	1(0.6)	157(100.0)
⑤ 기타	1(0.6)	3(1.9)	-	-	153(97.5)	157(100.0)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특정학급의 문제 학생’, ‘학생들의 생활 문화’, ‘학생들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태도’, ‘학생들을 지도할 학교차원의 생활지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태도(66.8%)’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실질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인 학생의 생활문화나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 계획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학생들의 문제(고민이나 갈등) 파악 방법 혹은 정보 수집

교사들이 평소 학생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표정, 태도, 행동 변화에 대한 관찰(43.9%)’ 이나 ‘수업시간이나 평소의 교류를 통해(33.1%)’, 그리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16.6%)’를 통해서 알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업시간이나 평소의 교류 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찰은 학생이 내색을 하지 않는 한 학생의 문제파악의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생이 상담을 손쉽게 요청해 올 수 있는 상담체제나 부모님과 교사의 빈번한 교류를 가능케 하는 체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III-2-46> 학생들의 고민이나 갈등 파악 방법

응답 내용	응답 인원(%)
① 동료 교사의 조언을 통해	5(3.2)
② 학생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를 통해	26(16.6)
③ 수업시간이나 평소의 교류를 통해	52(33.1)
④ 학생들의 표정, 태도, 행동 변화에 대한 관찰을 통해	69(43.9)
⑤ 부모님의 문의나 자녀 상담을 통해	4(2.5)
⑥ 기타	1(0.6)
계	157(100.0)

<표 III-2-47> 학생 문제행동 파악 및 지도상의 어려움

	명(%)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① 설사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동료 학생들이 이를 숨기고 교사에게 말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21 (13.4)	43 (27.4)	80 (51.0)	13 (8.3)	-	157 (100.0)
②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기를 꺼린다	13 (8.3)	43 (27.4)	83 (52.9)	17 (10.8)	1 (0.6)	157 (100.0)
③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9 (5.7)	29 (18.5)	85 (54.1)	33 (21.0)	1 (0.6)	157 (100.0)
④ 해당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	12 (7.6)	63 (40.1)	72 (45.9)	9 (5.7)	1 (0.6)	157 (100.0)
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21 (13.4)	85 (54.1)	47 (29.9)	3 (1.9)	1 (0.6)	157 (100.0)
⑥ 기타	-	1 (0.6)	3 (1.9)	2 (1.3)	151 (96.2)	157 (100.0)

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에 있어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으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응답(‘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내용을 합침)한 내용은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75.1%)’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내용은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기를 꺼린다(63.7%)’, ‘해당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51.6%)’, ‘설사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동료 학생들이 이를 숨기고 교사에게 말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59.3%)’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정이나 학급 상황에서 자녀의 문제행동 또는 동료 학생의 문제행동을 학교 교사에게 주저하지 말고 알리도록 하며, 교사에게는 이를 잘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받는다.

(라)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표 III-2-48>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항목의 영향 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명(%)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무응답	계
① 가정교육의 부재	-	3 (1.9)	37 (23.6)	116 (73.9)	1 (0.6)	157 (100.0)
② 불안정한 가정환경 (가정불화, 가족의 건강, 경제적 여건 등)	1 (0.6)	4 (2.5)	23 (14.6)	128 (81.5)	1 (0.6)	157 (100.0)
③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	1 (0.6)	37 (23.6)	86 (54.8)	32 (20.4)	1 (0.6)	157 (100.0)
④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저조	3 (1.9)	58 (36.9)	79 (50.3)	14 (8.9)	3 (1.9)	157 (100.0)
⑤ 청소년 유해 환경	1 (0.6)	14 (8.9)	80 (51.0)	61 (38.9)	1 (0.6)	157 (100.0)
⑥ 불량 친구들의 영향	1 (0.6)	22 (14.0)	79 (50.3)	54 (34.4)	1 (0.6)	157 (100.0)
⑦ 물질만능 주의적인 사회 풍토	1 (0.6)	21 (13.4)	77 (49.0)	57 (36.3)	1 (0.6)	157 (100.0)
⑧ 낮은 학업 성취도	5 (3.2)	65 (41.4)	63 (40.1)	23 (14.6)	1 (0.6)	157 (100.0)
⑨ 기타	1 (0.6)	-	4 (2.5)	1 (0.6)	151 (100.0)	157 (100.0)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사항들 각각이 학생의 문제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크다’에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이어서 ‘가정교육의 부재(73.9%)’, ‘청소년 유해환경(38.9%)’, ‘물질만능주의적 사회풍토(36.3%)’, ‘불량친구들의 영향(34.4%)’,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사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의 부재’와 같은 가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약간 크다’와 ‘매우 크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쳐 볼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교사들은 ‘가정교육의 부재(97.5%)’와 ‘불안정한 가정환경(96.1%)’ 등이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유해 환경(89.9%)’, ‘물질만능 주의적인 사회 풍토(85.3%)’,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75.2%)’ 등도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9> 학생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에 관한 교사의 인식

응답 내용	응답인원(%)
① 학생 자신	13(8.3)
② 부모님	68(43.3)
③ 학교교육	-
④ 친구	-
⑤ 학교 선생님	-
⑥ 사회환경	73(46.5)
⑦ 기타	3(1.9)
계	157(100.0)

교사들은 요즘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책임은 ‘사회환경(46.5%)’과 ‘부모님(43.3%)’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사나 학교 교육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학부모들의 응답경향과 약간 다르다. 학부모 역시 학생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들고는 있으나, 그 다음으로는 ‘불량친구’와 청소년 유해환경과 같은 주변 영향과 사회환경을 들고 있으며, ‘가정교육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일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경향은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은 그들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자신(55.4%)'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환경(17.8%)', '부모님(9.5%)'을 들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는 시각이 교사와 학부모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사회환경'을 우선으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교사와 달리 학부모는 학교교육과 학교 선생님을 책임 소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있고, 교사는 학부모를 책임 소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 학생은 스스로를 책임 소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큼을 보여준다.

<표 III-2-50> 교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명(%)

	응답 인원(%)
①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 의지 저조	48(30.6)
② 늦은 귀가, 무단 결석 및 가출	7(4.5)
③ 용의복장 위반(머리염색, 화장, 귀걸이 착용 등)	1(0.6)
④ 도박, 소매치기	1(0.6)
⑤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	12(7.6)
⑥ 폭력 사용, 패싸움 가담	7(4.5)
⑦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34(21.7)
⑧ 음주 흡연	-
⑨ 본드 등 환각제나 약물 남용	1(0.6)
⑩ 유흥업소 (오락실, 노래방, 술집) 출입	2(1.3)
⑪ 음란물, 음란 사이트 이용	13(8.3)
⑫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 관련 문제	8(5.1)
⑬ 집단 따돌림	14(8.9)
⑭ 공공 장소 소란 및 공공 기물 파손	1(0.6)
⑮ 기타	5(3.2)
무응답	3(1.9)
계	157(100.0)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 교사의 30.6%가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라고 대답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행동 중 교사의 수업과 직결된 사항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교사들은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21.7)', '집단 따돌림(8.9%)', '음란물, 음란 사이트 이용(8.3%)',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7.6%)'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결과와도 거의 비슷하다. 단, 응답률에 있어 교사들의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에 대한 응답률이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음주 흡연의 경우, 이를 문제행동으로 보는 교사가 없는 반면, 학부모들의 7.7%는 이를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마) 문제행동의 지도 경험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96.2%)'을 지도해 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90% 이상의 교사가 이에 대한 지도 효과가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무단결석 등 학교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지도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65.6%였으며, 이 부분의 지도효과에 대해 65.6%의 교사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우울·자살 충동 등 정서적 장애행동'에 대한 지도 경험은 25.7%의 교사만이 지도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35.6%의 교사만이 이 부분에 대한 지도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2-51> 교사의 학생 문제행동 지도 경험과 지도 효과 인식
명(%)

문제행동 종류	지도 경험 정도					지도 효과				
	많다	보통 이다	거의 없다	무응답	계	크다	약간 있다	거의 없다	무응답	계
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	84 (53.5)	67 (42.7)	6 (3.8)	-	157 (100.0)	51 (32.5)	95 (60.5)	8 (5.1)	3 (1.9)	157 (100.0)
② 가솔·무단결석 등 학교부적응 행동	28 (17.8)	75 (47.8)	54 (34.4)	-	157 (100.0)	26 (16.6)	77 (49.0)	34 (21.7)	20 (12.7)	157 (100.0)
③ 우울·자살 충동 등 정서적 장애행동	6 (3.8)	34 (21.9)	115 (73.2)	2 (1.3)	157 (100.0)	9 (5.7)	47 (29.9)	65 (41.4)	36 (22.9)	157 (100.0)
④ 기타	2 (1.3)	3 (1.9)	-	152 (96.8)	157 (100.0)	-	5 (3.2)	-	152 (96.8)	157 (100.0)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는 수업과 관련해서는 잘 지도할 수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요하는 정서적 장애행동이나 기타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기회를 마련함을 물론 심각한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연계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52> 문제행동 지도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생각
명(%)

응답 내용	응답인원(%)
①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 형성	75(47.8)
②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도방법	55(35.0)
③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협력	20(12.7)
④ 학생 생활과 문화에 대한 교사의 이해	7(4.5)
⑤ 학교 내 지원 체제의 적절성	-
⑥ 기타	-
계	157(100.0)

학생 문제행동 지도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 결과, 교사들의 47.8%는 학생 문제행동의 지도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 형성’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도방법(35.0%)’,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협력(12.7%)’이 지도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즉, 교사들은 효과적인 학생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 형성’과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도방법’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표Ⅲ-2-53>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
명(%)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무응답	계
①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배려	-	3 (1.9)	10 (6.4)	143 (91.1)	1 (0.6)	157 (100.0)
②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	3 (1.9)	9 (5.7)	61 (38.9)	83 (52.9)	1 (0.6)	157 (100.0)
③ 엄격한 학교 분위기	6 (3.8)	79 (50.3)	64 (41.8)	7 (4.5)	1 (0.6)	157 (100.0)
④ 지역사회 여건과 분위기	1 (0.6)	44 (28.0)	75 (47.8)	36 (22.9)	1 (0.6)	157 (100.0)
⑤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의 격려와 관심	-	4 (2.5)	53 (33.8)	98 (62.4)	2 (1.3)	157 (100.0)
⑥ 기타	-	2 (1.3)	-	2 (1.3)	153 (97.5)	157 (100.0)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 중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배려(97.5%)’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의 격려와 관심(96.2%)’,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91.8%)’, ‘지역사회 여건과 분위기(70.7%)’ 순으로 기여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학부모 응답결과와도 비슷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 강화와 교사의 학생 지도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54> 문제행동 지도 방법별 사용 정도

	명(%)					계
	거의 사용하 지 않음	별로 사용하 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무응답	
① 훈계(교화와 강의)	- (0.0)	4 (2.5)	64 (40.8)	87 (55.4)	2 (1.3)	157 (100.0)
② 벌점제 부가	52 (33.13)	38 (24.2)	49 (31.2)	17 (10.8)	1 (0.6)	157 (100.0)
③ 체벌	41 (26.1)	34 (21.7)	77 (49.0)	4 (2.5)	1 (0.6)	157 (100.0)
④ 상담(쪽지, 개별, 집단)	4 (2.5)	12 (7.6)	91 (58.0)	49 (31.2)	1 (0.6)	157 (100.0)
⑤ 특별 프로그램(캠프, 정신훈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실시	59 (37.6)	58 (36.9)	32 (20.4)	7 (4.5)	1 (0.6)	157 (100.0)
⑥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도(금연학교, YMCA 등)	89 (56.7)	40 (25.5)	23 (14.6)	4 (2.5)	1 (0.6)	157 (100.0)
⑦ 기타	- (0.0)	1 (0.6)	1 (0.6)	- (0.0)	155 (98.7)	157 (100.0)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은 ‘훈계(교화와 강의)(96.2%)’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담(쪽지, 개별, 집단)(89.2%)’, ‘체벌(51.5%)’, ‘벌점제 부가(42.0%)’, ‘특별 프로그램(캠프, 정신훈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실시(24.9%)’ 등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훈계’가 특성상 교사의 일방적인 설교나 강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면담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본 문제점 분석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대책을 탐색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사 49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였으며, 청소년 생활지도 담당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현장교사 면담에서 제시된 의견

면담 대상 교사들이 제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대책은 상담방법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자체적 제도 운영, 문제학생 특별 지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담방법의 경우 교내의 상담실을 이용하거나(9명), 학부모 상담원을 활용한 학생상담(4명),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1명)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심성수련 캠프와 봉사활동 프로그램(5명),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3명) 등이 있었다.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체적 제도로는 칭찬카드나 상벌제도 등을 운영하는 학교(3명)들이 있었고, 이외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해 비디오 자료 제시나 학급별 교화 및 강의(4명),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특별 지도(4명), 설문조사, 동아리 활동 등(3명)을 활용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이용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청이나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 ‘대안교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뿐 아니라 학부모를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에 참여시키는 경우, 학부모 선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문제학생을 밀착 지도하게 하거나 학부모 상담실을 운영하여

상담을 맡기기도 하였다. 또한 진로상담부가 주관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를 운영하거나, 학기초 전교생이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심성훈련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벌제도는 학교에서 정한 문제행동을 학생들이 행했을 경우 벌점을 주고, 일정 이상 벌점이 쌓이면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벌점제와 동시에 벌점 상쇄를 위한 상점제도도 같이 운영하여 학생들이 받은 상점이나 ‘칭찬카드’의 누적기록을 기준으로 학기말에 시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전통적인 문제행동 예방책 및 지도책이라 할 수 있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인성훈련 강의, 학급활동, 자료 제시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러한 대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상벌제도와 같은 특별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학교를 벗어나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가정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행동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학교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차원에서의 대책과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도실태 및 문제점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학교 청소년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와 관할 초·중·고등학교의 상담부장 및 윤리부장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된 ‘교육청 관내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행동 예방과 지도 실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상담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주로 학업성적, 친구관계, 진로문제,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가정 문제 등으로 상담실을 방문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상담실이나 상담교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실 방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를 해결하였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는 대체로 각각의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이 상당히 다양한 것에 비해 지도내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빚어지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이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고자질하기, 인터넷 게임 중독 등), 낮은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지도되고 있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흡연, 폭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로교육 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상담실을 찾거나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상담내용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급(초, 중, 고)별 혹은 교사(담임교사, 상담교사)별 지도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는데 있어, 각각의 교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실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첫째,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가정 및 사회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보통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일회성의 문제행동을 보일 때,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원인이 가정에 있고, 또한 이러한 점을 부모

가 인정하지 않을 때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문제와 흡연문제는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정, 사회와의 연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성인들의 조심스런 행위와 범 사회적인 관심과 연계 지도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접근이 요구되나, 대체로 교사들은 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험이 적은 교사의 경우,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교사에 대한 권위 도전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 쉬운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는 사랑, 진실된 마음, 학생과의 라포형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상담교사나 전문성을 갖춘 일부 담임 교사의 경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학교마다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상담교육전문가를 학교에 상설 배치하거나 초등학교부터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 및 학교 내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공 백

IV.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1.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 차원
2. 문제행동의 내용 및 성격 차원
3.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및 지도방법
차원

공 백

IV.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문헌 분석 결과, 질문 및 면담 조사결과, 그리고 전문가협의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즉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의 차원에서, 표출된 학생의 문제행동의 내용이나 성격의 차원에서,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나 지도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및 지도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 차원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원인에 관한 제반 연구 결과로부터 학생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은 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은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과 기대, 부정적 자아 정체감, 그리고 자기 감정 통제력 부족

등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건전한 가정 분위기와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 내·외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은 가정 내의 갈등이나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등에서 비롯된다. 가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고 학교 내·외 차원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분위기와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학급 및 학교 운영이 요구된다.

연구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 방법의 결여, 학교 상담 혹은 생활지도의 문제, 학교에 대해 느끼는 삶의 질 또는 결속력의 문제와 친구관계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범람하는 퇴폐풍조와 유해환경, 물질중시 사상의 팽

배로 인한 도덕성 결여 등도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분위기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성인과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문제행동의 내용 및 성격 차원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보다 효과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공통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접근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한 방향이 다음과 같아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우선적으로 예방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가 좁혀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좁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소수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문제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소수의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이 주가 되어 지도되는 동안 많은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은 소홀히 되어, 쉽게 예방 지도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문헌 검토 결과,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특히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의 시작과정'과 이러한 가벼운 수준의 문제행동에서 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범죄행위)으로 발전되어 가는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행동의 시작과정'에서는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이 학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단계인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에서는 불량교우와의 교제, 학교에서의 낙인경험이 학교 청소년들의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예방 지도하고 적합한 사후대처를 위해 이러한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3.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및 지도방법 차원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에 있어, 시간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과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공간적으로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사-학생 차원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차원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지도대책과 사회 및 국가차원에서의 예방 및 지도대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지도 내용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의 학생 질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의 ‘문제 행동 유형별 경험여부와 경험 정도’에 관한 내용은 학교 청소년의 문제 행동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지난 ‘1년간의 문제 행동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나 ‘문제 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극히 소수의 학생들만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경험 학생도 이러한 행동을 자주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행동이 비행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의 몇몇 문제 행동에 치중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흔히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학교 청소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행동중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인 행동으로는 ‘수업관련 행동’을 들 수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학교 규칙 관련 행동’,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란물 보는 행동’, ‘집단괴롭힘’, ‘공공기물 파손 행동’, ‘흡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이는 주된 문제행동들을 재점검하고, 각각의 문제 행동별 원인을 탐색하며, 문제행동별로 구체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문제 행동의 경험률이나 이유,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높은 경험률을 나타낸 반면, ‘흡연’ 등의 문제행동은 중학교 시기에 최초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교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교 시기에 보다 집중적인 지도가 요청되며, 문제행동 예방차원에서의 지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하교 후 학생들이 배회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학생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이 대체로 중학교 시기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중학교 시기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 시기로서 이 두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정도가 낮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기 학생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 사회의 관심 유도 및 학생의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다섯째,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발달 특징을 살피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생들은 ‘호기심이 생겨서’ 문제행동을 하게 되거나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유혹에 넘어가서, ‘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여서’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취미활동에 몰두’하거나 ‘속으로 삭힌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발달 특징을 살피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양한 예방적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문제행동의 유형과 원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습전략 향상 프로그램,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 자신감 형성 프로그램, 자기 발견 및 진로인식 프로그램, 학교적응 프로그램, 심성계발 활동, 품성계발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사안별 지도자료 개발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실제 교과지도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요망된다.

일곱째, 교사에게 문제 행동 지도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문제 행동을 다루는 전문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요구된다.

질문 조사 결과 교사들이 실질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인 학생의 생활문화나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 계획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에 있어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당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문제행동을 잘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활동을 위한 원활한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전문 상담교사, 담임교사, 학부모와의 자문, 조정활동 등 원활한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활동을 위해 전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노력, 교사-학생간의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 상담실의 내실화 그리고 행정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둘째, 가정 및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가정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운영할 뿐 아니라, 유흥가 업주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 공영방송에서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 보급, 청소년 대상 인터넷 업체에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등의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모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생활에 대해 비교적 알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일수록 그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문제없이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주로 자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거나 자녀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 신체를 살핀다고 하였다. 자녀의 담임교사나 친구에게 묻는 것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 주로 자녀를 통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자녀의 응답이나 표정 등’을 통해 자녀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녀가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

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발달특징과 생활을 이해하고, 자녀지도시 문제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지도시 학부모와 교사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보하는 일도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대체로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질문 조사 결과, 학생 문제 행동의 주된 배경이나 이유는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나 ‘가정교육의 부재’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기를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 때,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요망된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활동의 장과 그들의 의견 반영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활동의 장과 기회(각종 행사, 동아리, 특기 적성교육 등)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접수,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별 교육 특성과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

조사결과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일관성있게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신감과 공부 및 학교생활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읍면지역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일곱째, 국가수준의 종합적인 학교 청소년 정책과 체계적인 실천 접근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미시적 차원의 학생 문제 행동의 예방과 지도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고되어,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인식의 변화와 제고를 위한 홍보와 노력, 진학 제도의 개선, 청소년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양성(전문지도교사, 상담교사 등) 및 학교 배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보 및 제공, 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별개의 정책이나 계획이 아닌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의 학교 청소년 정책으로 새로이 구안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실천 접근이 요구된다.

공 백

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목적 및 추진과정
2. 연구결과 및 시사점
3.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공 백

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목적 및 추진과정

오늘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 사회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가 구조 및 기능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또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와 관련된 압력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고 그들이 지닌 다른 소질이나 취미를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또한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학교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도 전체 학생의 거의 10% (윤여각 외, 200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의 부적응 문제는 한편으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감소하거나 제거, 약화시키는 등의 예방의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존중감이나 사회성, 대처능력 등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특성들과 지지적인 가정환경 및 또래관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보호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에게 예방 및 보호 차원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며, 또한 학교제도에 있어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행동을 보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는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각종 학교 청소년 문제들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 2)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 분석
 - 학교 청소년의 문제현황 분석, 문제행동 원인 탐색, 고민이나 갈등 해결 양상 분석
-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지도 실태 및 대책 탐색
 -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파악 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실태
- 4)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대책 탐색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관련 통계자료 및 상담사례 검토·분석 등을 하였으며,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및 지도에 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학년(초등 5, 중2, 고2: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실업)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성(남, 여)을 고려해 표집한 2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의 관련학교 교사를 대상

으로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지도 대책을 탐색하기 위한 교사와의 면담 및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연구결과 및 시사점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연구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청소년기의 연령을 규정하는 데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며, 관련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가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다고 할 때, 이 역시 학교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어떤 기준이나 범위에 한정해 문제의 내용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관련 문헌 검토이나 면담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진화 등(2002)에 의해 제시된 문제행동에 대한 분류의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대상(예: 청소년 폭력)과 장소(예: 가정 부적응, 학교 부적응), 그리고 문제의 특성(예: 성일탈, 유해시설 접촉)등이 함께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5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공통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특히 학교 청소년에 한정

해 수행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 중 어떤 문제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지, 이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과 범위를 탐색해 보기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1)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결과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과 특별히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하영근과 최상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의 세 가지로 범주화 하였고, 김진화 등은 심리적 문제, 가정부적응 문제, 학교부적응 문제, 청소년 폭력, 유해약물 오용 남용, 성일탈, 유해미디어 이용, 유해시설 접촉, 청소년 범죄 등 아홉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이종원 등은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영역 중 학교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김진화 등의 경우 ‘학교부적응 문제 영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집중력부족’, ‘성적저하’, ‘시험불안’, ‘공부에 대한 무관심’, ‘중퇴’, ‘학교공포증’, ‘등교거부’, ‘중도포기’, ‘학교회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종원 등의 경우, 학교나 학생에 관한 문제행동은 주로 규범적 문제행동 영역에 치중되며, 규범적 문제행동의 영역에는 ‘화장’이나 ‘머리염색’ 등 학생의 의복, 용모와 관련된 표출형 문제행동, ‘음주’, ‘흡연’, ‘음란 포르노물 열람’ 등의 유희이나 풍속형 문제행동, ‘부모님이나 교사에 대한 반항’과 같은 권위 반항형 행동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관련 문제행

동은 일부 사이버 문제행동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관련 영역의 문제행동들은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에 제시된 ‘학교 부적응 유형’과 유사하다. 즉 한국청소년 연구회(200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업관련 유형’, ‘학교폭력관련 유형’, ‘학교교칙관련 유형’, ‘교우관련 유형’, ‘문화적차이 및 정서장애 관련 유형’ 등 5가지의 학교부적응 유형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기보다는 대체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들이라는 유사성을 갖는다.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도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제시된 문제행동의 영역보다는 축소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김순홍 외(2003)의 ‘청소년 생활 통계연보 2003’에 의하면, 청소년 문제 행동의 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중 학교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은 문제행동은 ‘흡연(56.8%)’,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비디오 시청(77.9%)’, ‘음란도서 열람(56.8%)’ 및 ‘컴퓨터 CD나 인터넷 사이트(68.0%)’ 등이었으며, ‘환각제나 분드, 부탄가스 흡입(1.1%)’은 거의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2.8%의 학생들만이 ‘어른 몰래 술을 마신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 2> 참조).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범위가 좁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말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경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취급하자는 뜻은 아니다. 극소수의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을 많은 학생이 경험한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실제로 쉽게 예방 지도할 수 있는 문제행동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질문조사 결과

학생 질문조사 결과, 흔히 발생하는 문제 행동으로는 전체 20여 가지의 문제행동 중 8가지로서 ‘수업관련’, ‘학교 교칙 관련’ 행동, ‘폭력관련’ 행동, ‘사이버상의 음란 사이트 접속’ 등에 관한 행동이었다.

<표 V-2-1> 학생 문제행동 발생 순위별 요약표

문제행동	조사대상 수	실제 경험자 수	명(%)	
			조사대상 수	경험에 대한 생각(해도 된다)
1.수업시간에 판 짓하는 것	2052(100.0)	1304(63.5)	2078(100.0)	322(15.5)
2.수업시간에 잠자기	2052(100.0)	1126(54.8)	2082(100.0)	650(31.2)
3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	2045(100.0)	612(29.9)	2088(100.0)	156(7.5)
4 지각, 결석	2044(100.0)	583(28.5)	2085(100.0)	481(23.1)
5 용의 복장 위반	2041(100.0)	447(21.9)	2083(100.0)	642(30.8)
6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기 및 공공기물 파손	2035(100.0)	304(15.0)	2089(100.0)	71(3.4)
7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 사이트 접속	2034(100.0)	293(14.4)	2093(100.0)	208(9.9)
8.집단 괴롭힘	2033(100.0)	152(7.5)	2094(100.0)	70(3.3)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은 학부모의 경우, ①집단따돌림 (13.7%), ②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13.7%), ③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12.4%), ④음주흡연(7.7%), ⑤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7.6%), ⑥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6.6%), ⑦늦은 귀가, 무단결석 및 가출(5.8%), ⑧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관련 문제(4.9%)이었으며, 교사의 경우는 ①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30.6%), ②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21.7%), ③집단 따돌림(8.9%), ④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8.3%), ⑤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7.6%), ⑥늦은 귀가, 무단 결석 및 가출(4.5%), ⑦폭력사용, 패싸움 가담(4.5%)이었다.

질문조사 결과 역시 관련 문헌이나 기존의 통계자료에서처럼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영역과 범위가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에 비해 축소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문헌 검토 결과,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접근은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영역 및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 행동과 발생하는 비율이 낮은 문제 행동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 행동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문제로, 학교 수업, 학교 생활(특히 친구관계, 규칙위반 등)에 관한 내용이며, 발생률이 낮은 문제 행동은 비교적 심각한 수준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비행화 과정에 비추어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수준의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지도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 분석

(1)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원인 파악

(가) 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초·중·고등학생들의 60.5%가 가정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낮은 학교급(초등학교)의 학생들이일수록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중·고등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는 점으로서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불만스러운 점으로 중학생과 일반고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을, 초등학생들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을, 그리고 실업고 학생들은 ‘경제력이 부족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은 부모가 자신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시 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들의 여러 가지 특성,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부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 이해 부족과 갈등은 오히려 자녀들을 빗나가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들의 자녀 이해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1/3 정도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실업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서울·대도시보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학교생활과 관련한 자신감, 자아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은 적게는 8.3%에서부터 36.3%까지의 분포로서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약간 만족한다는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63.1%에서 87.7%로서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 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각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가장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신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일반고등학생과 실업고등학생들은 10개 질문 중 각각 5개 질문에서 가장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별 경향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공부·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자신감,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성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으로서 첫째는,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교 공부,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낮게 나타난 자신감과 만족도는 학교 교육에 대한 위기를 염려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지식 위주의 평가 방법 운영으로 인해 공부 잘 하고 모범적인 소수의 학생만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교육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낮은 자신감과 만족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생활과 자신에 대해 불만족한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일관성 있게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신감과 공부 및 학교생활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어 열악한 생활과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만족, 나아가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실제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해도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 및 실제 행동과 상관이 크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의 자녀교육과 학교운영이 학생들에게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준다.

(나) 학생들의 하교 후 배회

80%가 넘는 초·중·고등학생들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하교 후 바로 집에 가기보다는 혼자서 또는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학교급의 학생들일수록 더 배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교 후 배회하는 주된 이유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즐겁고, 다음으로는 집에 가면 답답하거나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교 후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체로 1-2시간 정도(71.6%)가 가장 많았으며, 초·중학생보다 고등학교, 특히 실업고 학생들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들이 하교 후 주로 들르는 장소는 PC방, 전자오락실, 노래방의 순이었다. 학교급별 경향에 있어서는 중학생들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PC방과 만화가게에 가장 많이 들르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이와 같은 장소에 들르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읍면지역 학생들이 PC방과 전자오락실 출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주로 PC방과 전자오락실에, 여학생들은 노래방에 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에 기초해 볼 때, 하교 후에 배회하는 정도나 시간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PC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만화가게 출입도 중학교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컴퓨터 게임,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부모들의 눈을 피해 PC방이나 전자오락실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최근 컴퓨터,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의 욕구를 적절히 가정 안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64.1%의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반수가 넘는 초·중·고등학생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자기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잠자기’,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하기’, ‘수업시간에 딴 짓 하기’, ‘지각·무단결석’, ‘부모님 속이기’는 학교생활이나 교사, 부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행동들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짓하기, 지각 및 결석하기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부모님 속이기 등 교사와 부모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폭력·절도 비행 중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왕따 시키기)’ 행동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도 및 금품갈취’ 행동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99.1%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들은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성추행’, ‘성매매’, ‘성폭력’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91.6%)’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99% 이상)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살 시도’의 경우 전체의 4% 정도의 학생들이 ‘해도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물(유해, 환각성)복용’ 행동에 대해서는 ‘자살 시도’보다 더 엄격한 규제 인식과 행동을 보여 대다수(99% 이상)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들은 학생들의 가정분위기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문제 행동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문제행동의 경험

학생들이 경험한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 여부와 경험 횟수에 대한 분석 결과와 경험했던 행동에 대한 처음 경험 시기, 경험 이유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5가지 문제행동 유형별 경험 여부 및 경험 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5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률은 적게는 1.5%부터 25.1%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이들 5가지 문제행동 중 학생들은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경험(25.1%)이 가장 많고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경험(1.5%)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경험은 2.5% 정도이며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팔기와 패싸움, 폭력써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흥기소지 행동을 경험한 학생도 각각 11.2%와 9.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경향에 있어서는 중학생들이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행동의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서 경험률이 매우 낮다가 중학교 시기에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시기

에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5가지 문제행동 중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의 경우에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경험횟수에 있어서는 대체로 5가지 문제행동에 대해 6개월에 1-2번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험률과 횟수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나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로, 문제행동별 경험 시기와 경험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2,108명 중 10% 이상의 학생이 경험해 보았다고 한 문제행동은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흡연',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 만화 등)을 보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체 학생의 5% 이상 10% 미만이 경험한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동'이다.

전체 응답 학생들의 5% 이상이 경험해 본 문제행동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최초로 경험한 시기를 보면,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23.8%), '흡연', '음주',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인

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등의 문제행동은 중학교 시기에 최초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지도가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적은 비율이지만 초등학교 시기부터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도될 필요가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 이유로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살피고, 친구관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민이나 갈등 해결 양상 분석

초·중·고등학생들은 고민이나 걱정거리, 갈등이 생겼을 때 주로 취미활동에 몰두함(44.1%)으로써 해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거나, 속으로 삭히는 등 비교적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남학생들은 취미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여학생들은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통해 고민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교사나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민, 걱정거리,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고민, 갈등,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반이 조금 넘는 학생(53.9%)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알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알리지 않는 주요 이유로 50%에 가까운 학생들은 말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꾸중과 체벌이 두려워서(21.3%), 한 번 알게 되면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까봐(7.0%)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지 않았던 문제행동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셨을 때, 타 이르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한(47.6%)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꾸중과 징계를 받은(20.9%)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에 51.4%의 학생들은 문제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8%의 학생들은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고, 약 20%가 넘는 학생들은 별 도움이 안되었거나 오히려 더 반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더해 볼 때, 반 이상의 학생들은 문제행동을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 모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알게 되는 문제행동, 즉 드러난 문제행동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알리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앞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우선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에 무관심하고, 학생들 또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신뢰할 만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친구관계, 유해한 사회환경을 통해 접하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행동을 알게 된 경우에도 꾸

중이나 체벌 등 징계보다도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들이 학생의 발달, 학생의 생활과 문화 등 학생들의 제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요구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지도 실태 분석

질문지 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청소년 문제행동 지도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가) 학생의 고민과 특성에 대한 인식

요즘 학생들의 고민과 특성에 대해 교사들은 ‘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32.5%)를 가장 큰 학생들의 고민으로 보는데 비해 학부모는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34.9%)과 ‘상급학교 진학 문제’(21.6%)를 들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심각한 고민거리를 보는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교사와 학부모가 공통으로 느끼는 요즘 학생들의 고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요즘 학생들의 특성으로 ‘일(공부)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에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고민거리로 인식하고 있는 영역과,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학생 문제행동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학생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어 교사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학부모는 ‘불량친구’와 ‘청소년 유해환경’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적 환경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문제행동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사회 환경’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다) 학부모와 교사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생 문제행동

교사와 학부모가 보는 심각한 학생 문제행동 중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인 문제행동은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와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학부모보다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를 문제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더 높은 반면, 학부모들이 문제행동으로 보고 있는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급과 성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의지 저조’와 ‘본드 및 환각제나 약물 사용’은 자녀의 학교급이 높은 학부모가 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과 ‘음란물 및 음란 사이트 이용’, ‘집단 따돌림’은 자녀의 학교급이 낮은 학부모들이 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식한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과 ‘음란물, 음란 사이트 이용’은 남학생 학부모가, 그리고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집단 따돌림’은 여학생 학부모들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문제지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학생의 학교급과 성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라) 학생의 고민, 갈등,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 파악 방법과 파악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고민·갈등)를 파악함에 있어 주로 ‘학생들의 표정·태도·행동변화에 대한 관찰’(43.9%)과 ‘수업시간이나 평소의 교류를 통해’(33.1%)하고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을 주로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52.7%)과 ‘평소 자녀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22.4%)에 의해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부모와 학교 교사와의 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방법은 매우 적게 쓰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자녀의 말이나 행동관찰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는 학생이나 자녀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데서의 어려움 또는 애로사항으로,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75.1%)는 것과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를 학교에 알리기 꺼린다’(64.1%)에 응답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학교생활 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잘 안 한다’(33.7%)거나, ‘자녀의 일로 교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청하기가 어렵다’(25.6%)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로사항은 학교 소재지역이나 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대도시 학부모들은 학교에 찾아가 상담을 청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반면, 읍면지역의 학부모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학교를

못 찾는 경향이 더 크거나, 자녀가 남학생인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해 학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지도 전략 개발시 지역적 특성과 학생의 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학생과 자녀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실태

(가) 교사의 문제행동 지도경험 및 지도방법

교사들이 학생 문제행동을 지도해 본 경험은 주로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에 관한 것이 많은 반면, 보다 전문적인 지도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가출·무단결석 등의 부적응 행동'과 '우울·자살충동 등의 정서장애 행동'에 대한 지도경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훈계'와 '상담'이며, '특별 프로그램이나 외부기관과의 연계지도' 등은 비교적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훈계'는 교사의 일방적인 설교나 강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율성 면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앞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도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과 함께 학교의 힘으로는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의 학생들을 전문가나 기타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문제행동 감소 요인 및 지도 대책

학생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 형성’(47.8%)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도방법’(35.0%)을 들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자녀의 발달 특성과 생활에 대한 부모의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보다 밀접해져야 한다는 것과 학생문제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 넓은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의 격려와 관심’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의 강화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가능케 하는 분위기 쇄신과 제도마련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문헌 분석 결과, 질문 및 면담 조사결과, 그리고 전문가협의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즉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의 차원에서, 표출된 학생의 문제행동의 내용이나 성격의 차원에서,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나 지도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및 지도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의 차원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원인에 관한 제반 연구 결과로부터 학생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은 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건전한 가정 분위기와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 내, 외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학급 및 학교운영이 요구된다.

넷째,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2) 문제행동의 내용 및 성격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보다 효과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공통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접근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한 방향이 다음과 같아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우선적으로 예방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화과정’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3)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및 지도방법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에 있어, 시간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과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공간적으로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사-학생 차원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차원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지도대책과 사회 및 국

가차원에서의 예방 및 지도대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지도 내용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흔히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교 시기에 보다 집중적인 지도가 요청되며, 문제행동 예방차원에서의 지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들의 발달 특징을 살피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양한 예방적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일곱째, 교사에게 문제 행동 지도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문제 행동을 다루는 전문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요구된다.

(2)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활동을 위한 원활한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둘째, 가정 및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학부모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대체로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활동의 장과 그들의 의견 반영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역별 교육 특성과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국가수준의 종합적인 학교 청소년 정책과 체계적인 실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재일(1985). 교도활동 강화를 위한 중학교 생활지도의 조직과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양서원.
- 김성이(1997). 청소년 일탈행위와 전문직의 역할, 학교폭력과 사회복지의 과제. 학교사회사업학회 제 1회 학술대회.
- 김순홍 외(2003). 청소년 생활 통계 연보 2003, (사)광주사회조사연구소.
- 김영갑(1983). 중학교 생활지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웅(1985). 중학교 생활지도의 조직과 지도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진화 외(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김형수(2001). 등교거부 사례.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사례연구집 2001. pp.220-238.
- 노성호(1992). 한국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p.134, 재구성.
- 박효정 외(2002).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중·고등학교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2-3.

- 백형기(1999). 뺑뺑이만 나가는 18세 휴학생과 그 어머니.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사례연구집 1999. pp.155-165.
- 서울특별시 자녀 안심 운동 서울협의회(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2000연구보고서.
- 신종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웅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안종현(1993). 중등학교 학교상담 실태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1993). 학교상담의 전문화를 위하여. 카운슬러 협회보. 19(1). 1-3.
- 유정미(1997). 한국학교상담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홍준 외(1999). 학교생활 요인과 학교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 제38권 제1호(통권 제48호), 123-150.
- 윤여각 외(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2002-9.
- 이경은(1998).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1997).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 대한의사협회지, 40(10), 1268-1273.
- 이종원 외(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1-R 15.
- 이형득(1993a). 학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 상담과 지도, 제28호.

- _____(1993b).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카운슬러 협회보. 19(2), 1-3.
- 임영식(1997).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과 문제행동. 사회과학연구 제10집, 1-23,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임용우(1992). 학교상담의 과제와 발전방향. 학교경영, 5(2), 106-109.
- 임은미 외(1999). 사이버상담 운영 보고서, 한국 청소년 상담원.
- 장석민(200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 문제와 지도 대책」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6, pp 51-82.
- 장선규(1995).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민(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종희(1990). 학교상담활동의 활성화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2).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대화의 광장.
- 한국여성개발원(1985). 한국소년 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 프로그램.
- 한준상(1995). 학교 스트레스: 시험제도의 개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홍혜영(2000). 청소년 면접상담사례 '학교부적응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서울청소년상담연구, 제2권, 제1호, 83-102.

- 황응연(1994). 교육-생활지도와 인간교육. 상담과 지도, 제29호 24-41.
-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사대논총 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Asarmove, H. R., & Horton, A. A. (1990). Coping and stress in families of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Parents of children with depressive and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 145-157.
- Barnes, G. M., Farrell, M. P., & Banerjee, S. (1995). Family influences on alcohol abuse and white Americans. In G. M. Boyd, J. Howard, & R. A. Zucher(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Hillsdale, NJ: Erlbaum.
- Blumenthal, S. J. & Kupfer, D. G. (1998). Overview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1-23.
- Dielman, T., Schullenberg, J., Leech, S., & Shope, J. T. (1992). Reduction of su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d alcohol use/misuse through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Dishion, T. J., Andrew, D. W. & Crosby, L. (1995). Antisocial boys and their friend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quality and interactional process, *Child development*, 66, 139-151.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 in the cycle of violence, 250, 1678-1683.
- Dryfoos, J. G. (1990). Adolescent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R. C., Levy, L., Sullenberger, T., & Vyas, A. (1991).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The on-going Debate.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6(3-4), 59-74.
- Garn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213-233).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Book Supplement No. 4).
- Gerler, Edwin R. & Anderson, Ronald F. (1986). The effects of classroom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Hawkins, J. D., Farrington, D. P. & Catalano, R. F. (1998). Reducing violence through the schools. In D. S. Elliotts, B. A. Hamburg & K. R. Williams(Eds.).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A new perspectives*, 188-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kins, J. D., Kosreman, R., Catalano, R. F., Abbott, R. D. & Hill, K. G. (1996). Promoting academic success and preventing crime in urban America: six year follow-up effects of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 Huff, C. R.(1996) The Criminal behavior of gang members and non gang at risk youth In C. R. Huff et al Gangs in America (2nd ed. pp75-102)Thousand Oaks, Cal, Sage.
- Hughes, S. O., Power, T. G., & Francis, D. J. (1992). Attachment, autonomy, and adolescent drinking: Differentiating abstrainers, experimenters, and heavy us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Idem, M. N. (1991). Youth needs: contextual variations and approaches to change. Evans, K. and Haffenden, I. G.(Ed.), Education for young adults: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87-94.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Ketterlinus, R. D., & Lamb, M. E. (1994).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ssues and Researc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W. (1993). Social Resources, Social Networks,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the Strength of 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Loeber Stouthmer-Lor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yntton, H. (1995). Child and family predictors of conduct disorder and crimi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Morrill, Weston H. Oetting, E. R., & Hurst, James C. (1980). the Methods of intervention. In W. H Morill, J.C, Hurst, E. R. Oetting, & Others(Eds), *Dimensions of intervention for student development*. New York: Jhon Wiley & Sons.
- Pe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Reasoner (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ERIC Document ED 373281)
- Rich, Yisrael (1987),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school counseling to school integr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495-498.
- Rubenstein J. L., Halton, A., Kasten, M.A., Rubin, C. & Stechler, G. (1998).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ce: Stress and protection in different famil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 274-284.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ntrock, J. W. (1996). *Adolescence*(6th ed.); An introduction. Brown & Benchmark.
- Seydlitz, R. (1993). Complex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direct and in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4, 243-275.
- Sprinthall, N. A., & Collins, W. A. (1995).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3rd ed.). McGraw-Hill, Inc.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3rd ed.). McGraw-Hill, Inc.
- Tuma, Margaret R. (1974). *Implementing a program in developmental guidance and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2, 376-381.
- Viney, Linda L., Clark Alex M. & Benjamin, Yvonne N. (1986). *A genaral systems approach to the patient, hospital staff, family, and community*: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services. *Behavioral Science*, 31, 239-252.
- Withr, B.S., Coyne, A. & Adams, M. (1991). A school counseling program that reduces dropout rate. *School Counselor*, 39, 131-137.

통계자료 출처

- http://152.99.19.110/data_room/행정통계자료/흡연현황.html,
2002년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편] 발췌
- http://152.99.19.110/data_room/행정통계자료/긴급전화이용현황.html,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2). 2년주기 통계자료. “중·고등학생 흡연을 변화”.

공 백

부 록

공 백

부 록

<부록 표 1> 흡연, 술, 약물, 음란물 등에 대한 경험 여부와 경험 후의 느낌

단위: %

		합계		있다	없다		무응답
		%	응답자수		충동을 느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없다	
흡연	전체	100.0	2,278	56.8	5.2	37.6	0.4
	고						
	일반고	100.0	762	73.4	3.9	22.5	0.2
	실업고	100.0	404	78.3	1.6	19.9	0.1
	중학교	100.0	1,112	37.6	7.4	54.4	0.7
어른 몰래 술 마심	전체	100.0	6,014	21.8	78.1		0.2
	고						
	일반고	100.0	762	28.0	6.3	65.5	0.2
	실업고	100.0	404	55.1	4.2	40.7	0.0
	중학교	100.0	1,112	22.4	6.0	71.5	0.2
	초등학교	100.0	3,736	16.7	83.2		0.2
환각제나 분드, 부탄가스 흡입	전체	100.0	2,278	1.1	1.5	97.1	0.2
	고						
	일반고	100.0	762	0.3	1.4	98.0	0.2
	실업고	100.0	404	1.9	1.8	96.2	0.1
	중학교	100.0	1,112	1.4	1.5	96.8	0.3
미성년자 판람불가 영화나 비디오 볼	전체	100.0	2,278	77.9	3.4	18.7	0.1
	고						
	일반고	100.0	762	89.7	2.2	8.2	0.0
	실업고	100.0	404	89.6	2.2	8.1	0.0
	중학교	100.0	1,112	65.5	4.6	29.8	0.1
음란도서나 비디오 볼	전체	100.0	2,278	58.8	3.9	37.1	0.2
	고						
	일반고	100.0	762	71.8	2.7	25.2	0.2
	실업고	100.0	404	82.7	1.9	15.4	0.0
	중학교	100.0	1,112	41.2	5.4	53.2	0.2
컴퓨터 음란CD나 인터넷 음란사이트 볼	전체	100.0	2,278	68.0	2.8	29.1	0.1
	고						
	일반고	100.0	762	76.0	2.4	21.5	0.1
	실업고	100.0	404	75.3	1.0	23.5	0.1
	중학교	100.0	1,112	59.9	3.6	36.3	0.2

<부록 표 2> 흡연, 술, 약물, 음란물 등에 대한 경험 여부와 경험 후의 느낌

단위: %

		합계		해도 된다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해서는 안된다	모르겠다 /무응답
		%	응답자수				
흡연	전체	100.0	2,278	4.3	14.2	73.4	8.2
	고						
	일반고	100.0	762	4.0	13.7	74.3	8.1
	실업고	100.0	404	7.8	19.3	66.2	6.7
어른 몰래 술 마시는 것	중학교	100.0	1,112	3.2	12.6	75.4	8.8
	전체	100.0	2,278	6.2	57.5	29.1	7.2
	고						
	일반고	100.0	762	7.3	72.0	14.9	5.7
환각제나 분드, 부탄가스 흡입하는 것	실업고	100.0	404	8.8	77.3	9.8	4.0
	중학교	100.0	1,112	4.5	40.4	45.8	9.3
	전체	100.0	2,278	0.4	1.8	84.3	13.6
	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나 비디오 보는 것	일반고	100.0	762	0.3	0.8	86.0	12.9
	실업고	100.0	404	0.2	1.4	81.3	17.2
	중학교	100.0	1,112	0.5	2.6	84.1	12.8
	전체	100.0	2,278	13.1	56.8	23.1	7.1
음란도서나 비디오 보는 것	고						
	일반고	100.0	762	16.4	65.2	13.1	5.3
	실업고	100.0	404	16.0	67.5	12.7	3.8
	중학교	100.0	1,112	9.7	47.1	33.6	9.5
컴퓨터 음란CD나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	전체	100.0	2,278	8.5	41.0	43.3	7.2
	고						
	일반고	100.0	762	10.1	52.3	32.0	5.6
	실업고	100.0	404	12.0	43.9	39.4	4.7
중학교	100.0	1,112	6.2	32.2	52.5	9.1	
	전체	100.0	2,278	10.0	34.8	47.8	7.4
	고						
	일반고	100.0	762	11.0	42.8	40.9	5.4
컴퓨터 음란CD나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	실업고	100.0	404	13.4	35.3	45.4	5.8
	중학교	100.0	1,112	8.1	29.1	53.4	9.4

<부록 표 3>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배려' 요인의 기여 정도

		명(%)					
구분	응답내용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전체	χ^2
학 교 급	초등학교	15(2.1)	26(3.6)	94(13.0)	589(81.4)	724(100.0)	105.82***
	중학교	11(1.7)	20(3.1)	136(21.0)	482(74.3)	649(100.0)	
	일반고	3(0.7)	16(3.8)	119(28.5)	279(66.9)	417(100.0)	
	실업	5(2.1)	24(10.3)	83(35.6)	121(51.9)	233(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서울	7(2.1)	15(4.5)	68(20.4)	243(73.0)	333(100.0)	11.59
	도 광역시	8(1.5)	18(3.4)	123(23.3)	378(71.7)	527(100.0)	
	중소도시	13(1.7)	28(3.7)	147(19.2)	578(75.5)	766(100.0)	
	읍면지역	6(1.5)	25(6.3)	94(23.7)	272(68.5)	397(100.0)	
학생 성	남	20(1.8)	48(4.3)	245(21.9)	804(72.0)	1117(100.0)	0.77
	여	14(1.5)	38(4.2)	187(20.6)	667(73.6)	906(100.0)	
계		34(1.7)	86(4.3)	432(21.4)	1471(72.7)	2023(100.0)	

*** $p < .001$

<부록 표 4>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 요인의 기여 정도

응답내용		명(%)					χ^2
구분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전체	
학교 급	초등학교	13(1.8)	124(17.6)	311(44.1)	258(36.5)	706(100.0)	23.60**
	중학교	11(1.7)	88(13.7)	307(47.9)	235(36.7)	641(100.0)	
	일반 고	1(0.2)	49(11.8)	194(46.7)	171(41.2)	415(100.0)	
	실업	3(1.3)	50(22.0)	103(45.4)	71(31.3)	227(100.0)	
학교 소재 지역	대 도	4(1.2)	59(18.3)	143(44.3)	117(36.2)	323(100.0)	11.69
	시	6(1.2)	71(13.6)	237(45.5)	207(39.7)	521(100.0)	
	광역시	12(1.6)	106(14.0)	354(46.8)	285(37.6)	757(100.0)	
	중소도시	6(1.5)	75(19.3)	181(46.6)	126(32.5)	388(100.0)	
학생 성	남	17(1.5)	184(16.7)	510(46.3)	390(35.4)	1101(100.0)	3.77
	여	11(1.2)	127(14.3)	405(45.6)	345(38.9)	888(100.0)	
계		28(1.4)	311(15.6)	915(46.0)	735(37.0)	1989(100.0)	

** $p < .0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질문지 (학생용)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성별 (남, 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조사는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인적사항은 오직 통계분석에만 사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응답이 우리나라 교육 문화의 개선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7.

한국교육개발원장

이 종 계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 연구팀

우)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전화) 02-3460-0266, 0268, 0341

I. 다음은 학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응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___ ① 서울 ___ ②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___ ③ 시지역(광역시 제외) ___ ④ 읍면지역

2. 학생의 성적은 학급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 ___ ① 매우 우수하다 ___ ② 잘 하는 편이다
___ ③ 좀 뒤쳐지는 편이다

3.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___ ① 상 ___ ② 중상 ___ ③ 중 ___ ④ 중하 ___ ⑤ 하

4. 다음 중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 √표 하십시오.

- ___ ① 아버지 ___ ② 어머니 ___ ③ 형제·자매
___ ④ 친척(할머니, 할아버지 포함) ___ ⑤ 기타 _____

II. 다음 질문에 대하여 평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해서는 안 된다
___ ② 할 수도 있는 일이다

2.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 ___ ① 자기 자신 ___ ② 부모님 ___ ③ 학교교육
___ ④ 친구 ___ ⑤ 학교 선생님 ___ ⑥ 사회환경
___ ⑦ 기타 _____

3. 우리집 가정분위기에 대한 만족하십니까?

- ___ ① 만족하는 편이다
___ ② 그저 그렇다
___ ③ 불만스럽다

4. 집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 ____ ①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____ ② 경제력이 부족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
 ____ ③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다
 ____ ④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
 ____ ⑤ 나에 대한 부모님의 애정이 부족하다
 ____ ⑥ 부모님이 나를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____ ⑦ 기타 _____

5. 학교가 끝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는 일이 있습니까?

- ___① 자주 있다 ___② 가끔 있다
___③ 어쩌다 있다 ___④ 전혀 없다

6. 배회하는 일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 ① 집에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없다
 ____ ② 집에 가면 답답하거나 불안하다
 ____ ③ 늦게 와도 야단을 치거나 꾸중하는 사람이 없다
 ____ ④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____ ⑤ 학원이나 과외 또는 특별히 계획하여 할 일이 없다
 ____ ⑥ 기타 _____
 ____ ⑦ 배회하는 일이 없다

7. 학교가 끝난 후 밖에서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_ ① 1-2시간 ____ ② 3-4시간
____ ③ 5-6시간 ____ ④ 6시간 이상

8. 배회하며 들리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하십시오.)

- | | |
|-------------------|---------------|
| ___ ① 전자오락실 | ___ ② 커피숍, 카페 |
| ___ ③ 레스토랑 | ___ ④ 유흥주점 |
| ___ ⑤ 노래방 | ___ ⑥ 비디오방 |
| ___ ⑦ 찜질방 | ___ ⑧ PC방 |
| ___ ⑨ 만화가게나 책 대여점 | ___ ⑩ 기타_____ |

9.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 | | |
|----------------|--------------|
| ___ ① 만족하는 편이다 | ___ ② 그저 그렇다 |
| ___ ③ 불만스럽다 | |

10. 다음 각각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곳에 √표 하십시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매일 가고 싶은 곳이다.	___	___	___
2)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인 것이 자랑스럽다	___	___	___
3)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준다.	___	___	___
4) 학교에서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___	___	___
5) 학교에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___	___	___
6) 학교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배운다.	___	___	___
7)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신다.	___	___	___
8) 선생님들은 학급에서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신다.	___	___	___
9) 나는 공부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___	___	___
10) 나는 학교에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___	___	___

III. 학생이 아래의 행동유형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행동 유형	아니오	예
1. 나는 가출·음주·흡연·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2. 나는 패싸움, 폭력씨클 가입, 폭행·위협·기물파손·흥기소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3. 나는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 팔기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4. 나는 본드·가스·환각제·마약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5. 나는 성추행·성관계·성매매(돈주고 또는 돈받고)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IV.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 행동유형을 어느 정도 경험했습니까? 해당 응답란에 √표해 주십시오.

행동유형	한 적 없다	6개월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1. 가출·음주 흡연·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①	②	③	④	⑤
2. 패싸움, 폭력씨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흥기소지	①	②	③	④	⑤
3. 물건 훔치기, 훔친 물건 사고 팔기	①	②	③	④	⑤
4.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①	②	③	④	⑤
5.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돈 주고 또는 돈 받고)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보거나 겪을 수 있는 행동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행동유형	학생으로서 이런 행동을		나는 이런 행동을		
	해서 안 된다	해도 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1.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하기 (욕하거나 대답 안하기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수업시간에 딴 짓 하는 것 (떠돌고 문자 보내기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지각, 결석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용의 복장 위반 (머리염색, 화장, 귀걸이 착용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부모님 속이기 (용돈, 신용카드 몰래 사용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자살 시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집단 괴롭힘(왕따 시키기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9. 유흥업소 출입(성인전용 노래방, 디스코텍, 술집, 비디오방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 절도 및 금품갈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 이성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2. 성추행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3. 성매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4. 성폭력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5. 폭력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행동유형	학생으로서 이런 행동을		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16.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기 및 공공기물 파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7. 약물복용(본드, 니스, 마약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8.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음란사이트 접촉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9. 인터넷을 통한 유해 사이트 접촉 (자살, 폭탄제조사이트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0. 사이버 범죄(아이디 도용, 허위정보 유포, 스팸메일 발송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VI. 다음 <보기1>은 여러분 시기에 경험해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기2>는 그 문제행동들의 최초 경험시기이며, <보기3>은 행동의 이유입니다. 다음의 [응답요령]과 같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요령]

만약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흡연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학생은 아래와 같이 응답하면 됩니다

행동유형	최초 경험시기	이유·동기
①	⑤	⑥

이 외에도 다른 행동을 더 경험했으면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칸에 응답하면 됩니다.

<보기1>

행 동 유 형	
① 흡연	⑮ 가출하는 것
② 음주	⑯ 버스/지하철 등에서 이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
③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만화 등)을 보는 것	⑰ 이성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받는 것
④ 머리를 염색하고 외출하는 것	⑱ 이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
⑤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것	⑲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⑥ 체중조절을 위한 특수식품/약 복용 또는 끼니 굶기	⑳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치는 것
⑦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	㉑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
⑧ 디스코텍/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것	㉒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는 것
⑨ 성인용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하는 것	㉓ 대마초/엑스타시 등 환각성 마약을 흡입하는 것
⑩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것	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왕따)
⑪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	㉕ 자살을 시도하는 것
⑫ 이성친구와 포옹/키스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㉖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하는 것
⑬ 학교를 무단 결석하는 것	㉗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것
⑭ 다른 사람의 컴퓨터 웹사이트를 고의로 해킹하는 것	

<보기2>

최초 경험 시기		
① 초등학교 4학년 전	② 초등학교 4학년	③ 초등학교 5학년
④ 초등학교 6학년	⑤ 중학교 1학년	⑥ 중학교 2학년
⑦ 중학교 3학년	⑧ 고등학교 1학년	⑨ 고등학교 2학년

VII. 다음은 학생에게 고민이 있거나 문제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생은 고민이나 걱정거리, 갈등이 생겼을 때 보통 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 ___ ① 공부에 더 열중하려고 노력한다
- ___ ② 취미활동(오락, 게임, 인터넷, 독서,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에 몰두한다
- ___ ③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다
- ___ ④ 가출이나 자살을 시도한다
- ___ 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때린다
- ___ ⑥ 속으로 삭인다
- ___ ⑦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___ ⑧ 부모님, 형, 누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한다
- ___ ⑨ 기타_____

2. 학생은 문제행동을 하게 되어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사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립니까?

- ___ ① 알리는 편이다
- ___ ②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3.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꾸중과 체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 ___ ② 말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 ___ ③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고 다시 안할 생각으로
- ___ ④ 한번 알게 되면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까 봐
- ___ ⑤ 기타_____

4. 알리지 않았던 학생의 문제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___ ① 타이르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다
- ___ ② 꾸중과 징계(벌점 부과 또는 체벌)를 내리셨다
- ___ ③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
- ___ ④ 상담을 받도록 했다
- ___ ⑤ 주기적으로 지도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
- ___ ⑥ 기타 _____

5.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 ___ ① 문제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___ ② 별 도움이 안 되었다
- ___ ③ 오히려 더 반감을 느꼈다
- ___ ④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 ___ ⑤ 기타 _____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질문지 (학부모용)

자녀에 관한 사항 :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성별(남, 여) 이름 _____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조사는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질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주신 의견과 인적사항은 오직 통계분석에만 사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이 우리나라 교육 문화의 개선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7.

한국교육개발원장

이 종 재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 연구팀
문의처 우)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전화) 02-3460-0266, 0268, 0341

I

◆ 다음은 학부모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이나 학부모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이 질문지에 응답하시는 분은?

_____① 아버지 _____② 어머니
③ 그 외 보호자(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 ## 2. 아버지의 학력

___ ① 초졸 ___ ② 중졸 ___ ③ 고졸
___ ④ 전문대졸 ___ ⑤ 대졸 ___ ⑥ 대학원 이상

- ### 3. 어머니의 학력

___ ① 초졸 ___ ② 중졸 ___ ③ 고졸
___ ④ 전문대졸 ___ ⑤ 대졸 ___ ⑥ 대학원 이상

4. 현재 학부모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___ ② 어려운 편이다(항상 빠듯하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여유 있는 편이다 ___ ⑤ 아주 여유 있다

5.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① 서울 ___②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___③ 시지역(광역시 제외) ___④ 읍면지역

6. 아버지(가장)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① 무직 ___② 전문직(교사, 고위 공무원, 자격증 소지 직업)
___③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___④ 단순직(판매원, 노동직, 생산직)
___⑤ 자영업 ___⑥ 농·축·수산업
___⑦ 기타 _____

7.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성적은 학급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중간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다

II

◆ 다음은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 및 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부모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시거나 응답을 적어주십시오.

1.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약간 안다
☐ ③ 잘 모른다

2.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하십니까?

- ☐ ① 담임선생님과 가끔 전화하거나 면담을 한다
☐ ② 자녀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어본다
☐ ③ 자녀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 ④ 자녀 친구 엄마들과의 교류를 통해 확인한다
☐ ⑤ 평소 자녀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한다
☐ ⑥ 기타 _____

3.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① 자녀가 학교생활 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잘 안 한다
☐ ② 교사에게 자녀의 일로 찾아가거나 상담을 청하기가 부담스럽다
☐ ③ 부모가 너무 바빠 현실적으로 자녀를 관찰하고 깊게 대화할 시간이 없다
☐ ④ 기타 _____

4 자녀가 문제없이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 ☐ ① 자녀의 얼굴표정이나 태도, 신체를 잘 살펴본다
☐ ② 자녀의 소지품을 유심히 살핀다
☐ ③ 자녀의 외출과 밖에 머무르는 시간, 친구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다
☐ ④ 자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는다
☐ ⑤ 자녀의 담임교사나 친구에게 묻는다
☐ ⑥ 기타 _____

5. 최근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들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① 가정교육의 부재	_____	_____	_____	_____
② 불안정한 가정환경(가정불화, 가족의 건강, 경제적 여건 등)	_____	_____	_____	_____
③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	_____	_____	_____	_____
④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저조	_____	_____	_____	_____
⑤ 청소년 유해 환경	_____	_____	_____	_____
⑥ 불량 친구들의 영향	_____	_____	_____	_____
⑦ 물질만능주의적인 사회 풍토	_____	_____	_____	_____
⑧ 낮은 학업 성취도	_____	_____	_____	_____
⑨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____① 학생 자신 ____② 부모님 ____③ 학교교육
 ____④ 친구 ____⑤ 학교 선생님 ____⑥ 사회환경
 ____⑦ 기타 _____

7. 다음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입니다. 각 사항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①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배려	_____	_____	_____	_____
②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	_____	_____	_____	_____
③ 엄격한 학교 분위기	_____	_____	_____	_____
④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_____	_____	_____	_____
⑤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의 격려와 관심	_____	_____	_____	_____
⑥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자녀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음 중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____① 자녀의 발달 특성과 생활에 대한 부모의 폭넓은 이해
 ____② 자녀의 문제행동의 유형과 대처방식에 대한 지식
 ____③ 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____④ 교사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____⑤ 학교 상담교사의 확보 및 상담실 운영 개선
 ____⑥ 사회 유해 환경 개선
 ____⑦ 기타 _____

9 다음 중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 ☐ ① 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
☐ ② 결혼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영향
☐ ③ 형제들간의 갈등
☐ ④ 자기의 외모나 성에 대한 불만
☐ ⑤ 경제적 빈곤
☐ ⑥ 교우관계
☐ ⑦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 ⑧ 상급학교 진학문제
☐ ⑨ 기타_____

10.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요즘 학생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 ☐ ① 신나고 즐거우며 매사에 즐거움이 넘친다
☐ ② 사색을 많이 하고 고독을 즐긴다
☐ ③ 부모 형제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반발한다
☐ ④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상대와 대화하고 싶어한다
☐ ⑤ 부모 곁을 떠나 멀리 여행하고 싶어한다
☐ ⑥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불안해한다
☐ ⑦ 이유 없이 신경질을 내고 울고 싶어한다
☐ ⑧ 일(공부)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
☐ ⑨ 기타_____

11.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 ☐ ①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 의지 저조
☐ ② 늦은 귀가, 무단 결석 및 가출
☐ ③ 용의복장 위반(머리염색, 화장, 귀걸이 착용 등)
☐ ④ 도벽, 소매치기
☐ ⑤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
☐ ⑥ 폭력 사용, 패싸움 가담

- ___ ⑦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 ___ ⑧ 음주 및 흡연
- ___ ⑨ 본드 등 환각제나 약물 남용
- ___ ⑩ 유흥업소(오락실, 노래방, 술집) 출입
- ___ ⑪ 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
- ___ ⑫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관련 문제
- ___ ⑬ 집단 따돌림
- ___ ⑭ 공공 장소 소란 및 공공 기물 파손
- ___ ⑮ 기타 _____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질문지 (교사용)

_____ 학교 _____ 학년 담당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조사는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과 인적사항은 오직 통계분석에만 사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이 우리나라 교육 문화의 개선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7.

한국교육개발원장

이 종 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 연구팀

문의처 우)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전화) 02-3460-0266, 0268, 0341

I

◆ 다음은 선생님께서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거나 응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급은?

___ ① 초등학교

___ ② 중학교

___ ③ 일반고

___ ④ 실업고

___ ⑤ 기타 _____

2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학년과 소속된 부서, 직위는?

1) 학급담당여부 : ___ ① 담임(___학년 담임) ___ ② 비담임

2) 소속부서 : _____

3) 직위 :

___ ① 교장

___ ② 교감

___ ③ 부장교사

___ ④ 평교사

3.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___ ① 서울

___ ② 광역시

___ ③ 시 지역(광역시 제외)

___ ④ 읍면 지역

4. 선생님의 성별 : ___ 남 ___ 여

5. 선생님의 교직 경력

___ ① 5년 미만

___ ② 5~10년 미만

___ ③ 10~15년 미만

___ ④ 15~20년 미만

___ ⑤ 20~25년 미만

___ ⑥ 25~30년 미만

___ ⑦ 31년 이상

II

◆ 다음은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 및 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시거나 응답을 적어주십시오.

1. 평소 학생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은 주로 어떻게 알게 됩니까?

- ___ ① 동료 교사의 조언을 통해
___ ② 학생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를 통해
___ ③ 수업시간이나 평소의 교류를 통해
___ ④ 학생들의 표정, 태도, 행동 변화에 대한 관찰을 통해
___ ⑤ 부모님의 문의나 자녀 상담을 통해
___ ⑥ 기타 _____

2. 다음은 학생 문제행동 파악 및 지도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설사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동료 학생들이 이를 숨기고 교사에게 말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②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기를 꺼린다	_____	_____	_____	_____
③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_____	_____	_____	_____
④ 해당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할 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이려는 자 세가 안 되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⑥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학생들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하십시오

____ ① 학생 자신 ____ ② 부모님 ____ ③ 학교교육
 ____ ④ 친구 ____ ⑤ 학교 선생님 ____ ⑥ 사회환경
 ____ ⑦ 기타 _____

4. 교사로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해본 경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문제행동 종류	지도 경험 정도			지도 효과		
	많다	보통 이다	거의 없다	크다	약간 있다	거의 없다
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가솔·무단결석 등 학교부적응 행동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 우울·자살 충동 등 정서적 장애행동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④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학생 문제행동의 지도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 ①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 형성
 ____ ②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도방법
 ____ ③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협력
 ____ ④ 학생 생활과 문화에 대한 교사의 이해
 ____ ⑤ 학교 내 지원 체제의 적절성
 ____ ⑥ 기타 _____

6 다음은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① 가정교육의 부재	_____	_____	_____	_____
② 불안정한 가정환경(가정불화, 가족의 건강, 경제적 여건 등)	_____	_____	_____	_____
③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	_____	_____	_____	_____
④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저조	_____	_____	_____	_____
⑤ 청소년 유해 환경	_____	_____	_____	_____
⑥ 불량 친구들의 영향	_____	_____	_____	_____
⑦ 물질만능 주의적인 사회 풍토	_____	_____	_____	_____
⑧ 낮은 학업 성취도	_____	_____	_____	_____
⑨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입니다. 각 항목이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크다	매우 크다
①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배려	_____	_____	_____	_____
② 학생 개인의 높은 삶의 만족도	_____	_____	_____	_____
③ 엄격한 학교 분위기	_____	_____	_____	_____
④ 지역사회 여건과 분위기	_____	_____	_____	_____
⑤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의 격려와 관심	_____	_____	_____	_____
⑥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데 다음의 방법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거의 사용하지 않음	별로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① 훈계 (교화와 강의)	_____	_____	_____	_____
② 벌점제 부가	_____	_____	_____	_____
③ 체벌	_____	_____	_____	_____
④ 상담(쪽지, 개별, 집단)	_____	_____	_____	_____
⑤ 특별 프로그램(캠프, 정신훈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실시	_____	_____	_____	_____
⑥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도 (금연학교, YMCA 등)	_____	_____	_____	_____
⑦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9.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각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수집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거의 수집하지 않음	별로 수집하지 않음	많이 수집하는 편임	매우 많이 수집함
① 특정 학급의 문제 학생에 관한 정보	_____	_____	_____	_____
② 학생들의 생활 문화에 대한 정보	_____	_____	_____	_____
③ 학생들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태도	_____	_____	_____	_____
④ 학생들을 지도할 학교차원의 생활지 도 계획 및 방법	_____	_____	_____	_____
⑤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 다음 중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 골라 ✓표 해주십시오

- ___ ① 부모의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
- ___ ② 결혼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영향
- ___ ③ 형제들간의 갈등
- ___ ④ 자기의 외모나 성에 대한 불만
- ___ ⑤ 경제적 빈곤
- ___ ⑥ 교우관계
- ___ ⑦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 ___ ⑧ 상급학교 진학문제
- ___ ⑨ 기타_____

11.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학생들은? (해당 사항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 ___ ① 신나고 즐거우며 매사에 즐거움이 넘친다
- ___ ② 사색을 많이 하고 고독을 즐긴다
- ___ ③ 부모 형제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반발한다
- ___ ④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상대와 대화하고 싶어한다
- ___ ⑤ 부모 곁을 떠나 멀리 여행하고 싶어한다
- ___ ⑥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불안해한다
- ___ ⑦ 이유 없이 신경질을 내고 울고 싶어한다
- ___ ⑧ 일(공부)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한다
- ___ ⑨ 기타_____

12.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골라 ✓표 해주십시오

- ___ ①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 의지 저조
- ___ ② 늦은 귀가, 무단 결석 및 가출
- ___ ③ 용의복장 위반(머리염색, 화장, 귀걸이 착용 등)
- ___ ④ 도벽, 소매치기
- ___ ⑤ 부모님과 선생님 속이기
- ___ ⑥ 폭력 사용, 패싸움 가담
- ___ ⑦ 불손한 언행 및 비속어 사용

- ___ ⑧ 음주 및 흡연
- ___ ⑨ 본드 등 환각제나 약물 남용
- ___ ⑩ 유흥업소(오락실, 노래방, 술집) 출입
- ___ ⑪ 음란물, 음란사이트 이용
- ___ ⑫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관련 문제
- ___ ⑬ 집단 따돌림
- ___ ⑭ 공공 장소 소란 및 공공 기물 파손
- ___ ⑮ 기타 _____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 · 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 · 김진호 · 오해섭 · 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 · 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 · 중 · 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화)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3-02

연구보고 03-R 39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인 쇄 2003년 12월 26일
발 행 2003년 12월 30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권 이 중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대산문화사
전화 (02) 2278-0958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2188-8844(사무국)

ISBN 89-7816-502-8(93330)

공 백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연구책임자 : 이 재 분

공동연구자 : 현 주

박 효 정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3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5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II.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9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11
2. 문제행동의 형성 배경과 원인	20
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지도	27
4. 연구추진 방향에의 시사점	33
III.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	35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37
2. 학교 청소년의 문제 현황 및 지도 실태 분석	39
3. 면담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본 문제점 분석	142
IV. 효과적인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147
1.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 차원	149
2. 문제행동의 내용 및 성격 차원	151
3.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및 지도방법 차원	152
V. 요약 및 제언	161
1. 연구의 목적 및 추진과정	163
2. 연구결과 및 시사점	165

3. 효과적인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183
-------------------------------------	-----

참고문헌	188
------------	-----

부록	197
----------	-----

표 차 례

<표Ⅱ-1- 1> 각 국 청소년의 연령 범주	12
<표Ⅱ-1- 2>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의 청소년 명칭 및 연령 규정	13
<표Ⅱ-1- 3> 김진화 등(2002)의 청소년 문제행동 분류	16
<표Ⅱ-1- 4> 이종원 등(2002)의 청소년 문제행동 분류	17
<표Ⅲ-1- 1> 면담대상 교사의 지역별, 학교급별 구성	37
<표Ⅲ-1- 2> 교사들이 지적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우선순위(10가지)	38
<표Ⅲ-2- 1> 조사 대상 학생의 분포	40
<표Ⅲ-2- 2> 조사 대상 학부모의 분포	40
<표Ⅲ-2- 3> 조사 대상 교사의 분포	40
<표Ⅲ-2- 4> 학생용 질문지의 구성 내용	41
<표Ⅲ-2- 5> 학부모용 질문지의 구성 내용	42
<표Ⅲ-2- 6> 교사용 질문지의 구성 내용	43
<표Ⅲ-2- 7> 가정분위기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44
<표Ⅲ-2- 8> 학생이 느끼는 가정에서의 가장 불만스러운 사항	45
<표Ⅲ-2- 9>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47
<표Ⅲ-2-10> 학교나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결과	48
<표Ⅲ-2-11> 하교 후 배회하는 정도	60
<표Ⅲ-2-12> 하교 후 배회하는 이유	61
<표Ⅲ-2-13> 하교 후 배회 시간	62
<표Ⅲ-2-14> 학생들이 배회하며 들르는 장소	63
<표Ⅲ-2-15>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의식	65
<표Ⅲ-2-16> 학생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에 관한 학생의 인식	66

<표Ⅲ-2-17> 20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응답 결과	67
<표Ⅲ-2-18> 과거 문제행동 경험 여부	91
<표Ⅲ-2-19> 지난 1년간 문제행동 경험 횟수	96
<표Ⅲ-2-20> 5가지 문제행동 유형의 과거경험 여부	102
<표Ⅲ-2-21>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해 본 문제행동	102
<표Ⅲ-2-22> 이전에 경험해본 문제행동의 최초 경험 시기	103
<표Ⅲ-2-23> 이전에 경험해본 문제행동의 최초 경험 이유	106
<표Ⅲ-2-24> 고민이나 걱정 감동을 해결하는 방법	107
<표Ⅲ-2-25>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는지 여부	109
<표Ⅲ-2-26>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알리지 않는 이유	110
<표Ⅲ-2-27> 알리지 않았던 문제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	111
<표Ⅲ-2-28>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의 느낌	112
<표Ⅲ-2-29> 부모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114
<표Ⅲ-2-30> 요즘 학생들에 관한 부모의 생각	116
<표Ⅲ-2-31>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인지 정도	117
<표Ⅲ-2-32> 자녀의 학교 생활 확인 방법	118
<표Ⅲ-2-33>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문제행동 파악에서의 어려움	119
<표Ⅲ-2-34> 자녀가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일	120
<표Ⅲ-2-35>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항목의 영향 정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121
<표Ⅲ-2-36> 문제행동의 원인 중 ‘낮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응답 결과	122

<표Ⅲ-2-37> 학생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에 관한 학부모 인식	123
<표Ⅲ-2-38> 학부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125
<표Ⅲ-2-39> 학부모가 생각하는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1)	126
<표Ⅲ-2-40> 학부모가 생각하는 현재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중 가장 심각한 것(2)	127
<표Ⅲ-2-41> 문제행동의 감소 요인 및 지도 대책	128
<표Ⅲ-2-42> 자녀의 문제행동을 지도에 대한 요구	130
<표Ⅲ-2-43>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130
<표Ⅲ-2-44> 요즘 학생들에 관한 교사의 생각	131
<표Ⅲ-2-45> 학생지도를 위한 교사의 정보수집 내용과 정도	132
<표Ⅲ-2-46> 학생들의 고민이나 갈등 파악 방법	133
<표Ⅲ-2-47> 학생 문제행동 파악 및 지도상의 어려움	134
<표Ⅲ-2-48>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항목의 영향 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135
<표Ⅲ-2-49> 학생 문제행동의 책임 소재에 관한 교사의 인식	136
<표Ⅲ-2-50> 교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	137
<표Ⅲ-2-51> 교사의 학생 문제행동 지도 경험과 지도 효과 인식 ...	139
<표Ⅲ-2-52> 문제행동 지도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생각	139
<표Ⅲ-2-53>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	140
<표Ⅲ-2-54> 문제행동 지도 방법별 사용 정도	141
<표Ⅴ-2- 1> 학생 문제행동 발생 순위별 요약표	168

그 립 차 례

[그림 II-3-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31
[그림 II-3-2] 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접근과 방법	32